•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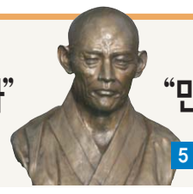
제 693 호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8월 20일(음력 7월 20일) 수요일(주간)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똥막대기를 마음껏 물어뜯어라"

8 2008 하안거 해제법어



"만해정신 세계로 세계로…"

5 2008 만해축전 풍성한 통섭 마당



"종회 사부대중 양원제로…"

2 고준환 교수 불교개혁 '쓴소리'



"5계 제대로 지키면 부처"

7 선지식-통도사 율원장 혜남 스님

"이 봉우리 이름 직지입니다"

히말라야에 '직지봉' 명명

파키스탄 승인… 직지원정대 쾌거

히말라야에 '직지봉'이 생겼다.

충북 산악구조대원들로 구성된 '직지원정대(대장 박연수)'가 지난달 세계에서 처음으로 오른 파키스탄령 히말라야 산맥의 한 미답봉(해발 6230m)이 파키스탄 및 세계 각국의 지도에 '직지봉'으로 표기된다.

원정대에 따르면 파키스탄 지명위원회는 7월 28일 이 원정대가 7월 16일 세계 최초로 등정하고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직지봉'으로 이름 붙인 이 미답봉을 '직지봉'으로 명명하는 것을 공식 인정키로 했다.

히말라야 산맥의 봉우리 가운데 한글로 이름이 명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박연수 대장은 설명했다. 박 대장은 "원정대가 오른 길은 '직지루트'라는 이름으로 세계 산악계에 보고된다"며 "직지에 담긴 우리 조상의 창조 정신이 히말라야 설산에 새겨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직지원정대 배명석, 민준영 대원(왼쪽부터)
사진제공=직지원정대

"27일 시청앞 광장에 불자들 모여라"

'헌법파괴 …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 일시 · 장소 변경

8월 23일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헌법파괴 ·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가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앞 광장으로 변경됐다.

범불교도대회는 27개 종단 결집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봉행위원회가 주관해 종단과 사찰, 그리고 단체가 참여해 불교계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예정이다.

봉행위원회는 8월 11일 각 종단과 총림, 사찰, 신도단체, 불교NGO 대표 등 200여명이 모인 긴급범불교대표자회의를 열고 "국민 참여를 위해 베이징올림픽 기간은 피하자"는 안건을 받아들여 8월 27일 개최를 결의했다. 이에 앞서 불교종단협의회도 13일 이사회를 열어 모든 종단과 사찰이 범불교도대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봉행위는 "18일 교구본사주지회의와 19일 직할교구주지회의, 20일 중앙종회, 22일 범불교도지도자회의 등을 열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조계사, 봉은사에 이어 도선사 · 전등사 등 주요사찰에서 23일까지 규탄법회를 열어 열기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봉행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사과 ▲정부의 조계종 본말사 회유행위 중단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을 시 영남권을 시작으로 지역별 범불교도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웃종교에서도 정부의 '종교차별 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천도교청년회, 원불교청년회,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회,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민족종교청장년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청년위원회 등 10여 개 청년 · 종교단체 회원들은 8월 12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종교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했다.관련 기사 3면 **노덕현 기자**

진흥원 새 이사장에 민병천 박사추대

이용부씨 이사에 … 불교방송이사로도 추천

대한불교진흥원은 8월 14일 신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故 홍승희 이사장 타계로 공석이던 이사장에 민병천(76 · 사진 왼쪽) 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출했다. 새 이사로는 이용부(64 · 사진 오른쪽) 前 문화부 종무관을 선임하고 불교방송 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민병천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서경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부터 진흥원 이사를 지내며 홍승희 이사장 타계 후부터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적극 실천해 나가는 진흥원이 되자는 이사회의 주문을 받아 만장일치로 선출된 민병천 이사장은 "시대 흐름에 맞는 진흥원 운영 방법을 연구해 올해 가을 안에 가시화 하겠다"며, 불교방송의 조속한 사장 선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병천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이용부 이사 임기는 故 홍승희 이사의 잔여임기인 2010년 2월 28일까지다. **조동섭 기자**





社 告

메주와 첼리스트 禪詩를 말하다

–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출간기념 돈연 법사 강연회



<황금털사자의 미미소>1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에서 고암 스님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선사들이 남긴 깨달음의 원음을 선시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본격적인 선시 해설서입니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불교계는 물론 문단에서도 선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출간을 기념해 돈연 법사(사진)를 초청해 선시 특강을 갖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선시강연회

◆강연
주제: 21세기 한국 문학에서 선시의 자리
강사: 돈연 법사(시인, 메주와 첼리스트 대표)
◆인사말씀
송준영 시인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저자)
◆특별 연주
첼로: 도완녀(메주와 첼리스트 대표)

참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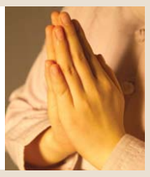
◆동참금:1만원
◆계좌 입금 후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국민은행, 예금주 에이치비엠씨)038-25-0008-365.
(농협,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053-01-269050.
–입금 후 전화 하실 곳
현대불교신문사 (대표)02-2004-8200/(담당자) 2004-8233.
◆일시: 2008년 8월 27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조계종 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
◆주관: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취재기자 모집

현대불교신문사가 취재기자(신입)를 모집합니다. 신심을 가지고 불교계에서 일할 인재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모집부문 : 취재기자 ◆모집인원 : 신입 0명
◆지원자격 : 대졸자 이상 ◆접수기간 : 2008년 8월 20일(수)까지
◆문의 : 이메일로만 접수 (전화문의 사절) cgseo@buddhapia.com
◆제출서류 –이력서(자유양식, 반명함판 사진 부착, 상단에 연락처 명시)–자기소개서
–메일 제목에 [취재기자 지원_이름_연락처] 순으로 명기.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114 01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 · 관욕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1만관 대종 주조 성공



– 국내 범종의 1만관 시대 개막 –

국내 최대종인 화천 세계평화의 종(37.5ton)이 성종사 기술진에 의해 성공리에 주조되었습니다.
오는 11월 화천 평화의 종 공원에 설치되어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활용될
세계평화의 종은 성종사의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주조된 국내 최대의 종으로
한국 범종 역사에 길이 남을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민주의 종 8150관(현존 국내 최대)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sungjongsa@hotmail.com
◈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hanmail.net

방장스님들의 '눈높이' 시사 법어

1970년대 말, 사회적 영향력의 부재로 굴욕적인 불교계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1981년 1월, 조계종 새 종정에 추대된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山是山 水是水)'라는 법어 한 마디로 세상의 소란을 잠재웠다.

뜻도 모르고 읊조리던 '산시산 수시수' 법어가 전설이 된 요즘도, 부처님오신날이나 결제·해제 때마다 발표되는 방장스님들의 법어는 혼탁한 세상에 감로수와 같은 청량함을 선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어가 '여전히 어렵다'거나, '세간의 삶과 동떨어진 법문이 아닌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하안거 해제법어 가운데는 시사적인 법문들이 등장해 더욱 눈길을 끈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최근의 종교편향 사건과 이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과 관련, 차분한 법어를 내렸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외도들이 욕하거나 때려도 묵빈 대치하라고 하셨다"며 "요즘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방해한다지만 우리는 상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종교편향 사건과 관련, 외도와 같이 가볍게 처신하지 말고 불제자답게 시비·분별을 넘어선 자리에서 담담하게 대응하라는 지적이다. 그들의 망동에 대해 똑같이 흥분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냉철히 응대하되, 우리 자신부터 "아만을 끊고 남의 잘잘못을 말하지 않으며"가장 큰 분별심인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공부에 매진하자는 법문이다.

한편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혜초 스님은 불교학계의 '오매일여(寤寐一如)' 논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매일여란 잠잘 때에도 깨어 있을 때처럼 수행의 자세를 유지해야하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며 "이는 선수행의 기본자세를 제시한 말씀으로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자들의 논쟁이 어찌 무익한 일이겠는가, 다만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알음알이나 이론보다 실참으로 스스로 증험함이 소중하다는 뜻이리라.

세간사에 관심을 둔 방장스님들의 이러한 법어는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닌 불이(不二)의 입장에서 불자들을 배려한 것이라 여겨진다. 수좌에게는 '생사 해탈'이란 일대사가 목전의 과제이지만, 재가불자에게는 세간사 역시 버릴 수 없는 공부거리이기 때문이다. 출·재가 대중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과거 보다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도록 일깨우는, 추상적인 말 보다는 현실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법어는 더욱 불자들의 심금을 울릴 것이다. 우리 시대 불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법어가 마음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쏟아지길 기원한다.



"독선·오만·편향정권 참회하라" 강남 봉은사(주지 명진)는 8월 10일 사중 스님 18명과 1200여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독선과 오만, 거짓 이명박 정권 규탄 시국법회'를 개최했다. 김성우 기자

"사장 공석 더 이상 안된다"

진흥원 이사회, 불교방송에 이사회개최 촉구

사장 없이 이사장 영담 스님 직할 체제로 운영 중인 불교방송에 사장추천 기관인 대한불교진흥원(직무대행 민병천) 이사들과 불교방송 일부 이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불교진흥원 이사회는 8월 12일 영담 스님에게 '불교방송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발송했다. 진흥원 이사회는 이 공문에서 "7월 30일 예정된 이사회를 긴급하지도 않은 사유로 2~3일 전 취소 후 무기연기했다"며, "추천한지 2달 반이 넘은 사장 선임을 위해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해 제대로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불교진흥원 이사회의 '불교방송 이사회 소집요구서'는 불교방송 전체 이사 16명 중 5명을 제외한 11명이 합의한 것이다. 조동섭 기자

외국인 스님 교과안거 실시

용인 법륜사서 내달 3일부터

하안거 해제 후 기본교육중인 외국인 스님을 위해 '교과안거'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9월 3~10일 용인 법륜사에서 '제7회 외국인 기본선원 교과안거'를 개최한다.

외국인 기본선원 교과안거는 언어 등으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을 위해 ▲근현대 선불교 역사 ▲서장 ▲한국의 불화 ▲한국의 불화 등을 교육한다.

강원 등에서 수행중인 외국인 스님을 제외한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 계룡 무상사 국제선원, 강화 연등국제선원에서 수행하는 외국인 사미·사미니가 대상이다. 조동섭 기자

종교차별 신고 센터 조계종 홈피에 개설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종교차별 신고센터'가 8월 11일자로 문을 열었다. '종교차별 신고센터는 불자 및 국민들의 다양한 종교편향 및 차별에 대한 사례접수와 상담처리, 종교차별 금지를 통한 종교화합은 물론 사회화합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설됐다. 제보 받은 민원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전국 선원 하안거 해제 2259명 일제히 회향

전국 95개 선원 수좌 2259명이 동참한 불기 2552년 무자년 하안거가 8월 15일 해제됐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무자년 하안거 선사방함록(禪社芳啣錄)>에 따르면 이번 하안거에는 전국 95개 선원(총림 5곳, 비구선원 56곳, 비구니선원 34곳)에서 총 2259명(비구 1140명, 비구니 924명, 총림 195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하안거 해제법어를 통해 "대중들은 만행길에 선지식을 만나거든 결제동안 공부한 것이 금인지 똥인지를 제대로 점검받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도 "중생과 고통을 함께 하는 살아 있는 생활불교를 실천해야 한다"고 해제법어를 발표했다.(해제법어 전문 8면) 김성우 기자

태고종 '조사위' 구성키로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인공)가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둘러싼 각종 의혹사항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8월 19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제95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총무원장이 종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요청한 이같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종파 제도 초월, 수행 봉사로 거듭나자"

고준환 교수, 기조강연서 불교계 비판



"불교는 종파성과 제도적 경직성을 벗어나 수행과 봉사 위주의 단체로 거듭나야한다."

정부의 종교편향으로 불교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때, 교계 지식인층에서 불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비구와 비구니가 1:0.1 비율로 구성된 1.1부 종회"라는 직언도 서슴치 않고, 불교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한 이는 고준환 교수(경기대·사진)다.

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 이하 교불련)가 8월 18~20일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에서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교수불자대회에서 초대 교불련 회장을 역임한 고 교수는 '미래세계의 불교 '기득권층인 비구 스님들의 독점욕에 기초한 1.1부 종회'라 지적했다. 이어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중앙종회를 출가자 상원, 재가자 하원으로 나누더라도 반드시 사부대중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고 교수는 '마음공부'를 실천하는 교계 풍토 조성과 심안산업(心安産業) 등을 통해 무주상보시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도 강조했다.

창립20주년을 맞은 교불련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국불

조계종종회 사부대중으로 구성해야
불자교수들 통일과 세계화에 관심을

교의 중심에 서겠다는 각오로 교불련 선원을 건립해 세계선정문화의 중심이 돼야한다"며, 민족통일에 기여하고, 세계교수불자연합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고 교수는 "다른 종교를 적대시하고 권력종교화해 십자군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일으켜 인류역사에 큰 죄를 짓는 종교라면 인류평화를 위해 사라지는 것이 낫다"고 강력비판하며 종교들의 평화적다원화를 주장했다. "영구평화를 위해 UN을 발전적으로 해체한 뒤, 세계정부를 세우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화합중(和合衆) 경제체제를 이루자"는 고준환 교수의 세계 비전도 주목 받았다.

한국불교 미래에 대한 장고 끝에 던진 고준환 교수의 개혁 발언을 계기로 불교계가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삼보에 지심귀명례 하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물질문명과 황금만능의 가치가 미증유의 난국으로 전철되는 삭막한 현실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니 될 지금 우리 사회는 말세적 격동과 충격의 혼돈을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참된 신앙의 용기를 갖고 자아를 일깨워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된 종교의 인식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소납은 생각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정신계의 황폐로 진리의 힘과 정의의 승고한 양심이 부패하고 불의와 야합하며 살아온 소수의 횡포에 길들여지는 듯한 안타까움이 절벽처럼 느껴지며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부처님 전에 발원하며 전국의 종도님 전에 간곡한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종도 여러분!

2008년 7월 29일 대한불교 법화종 전국종도모임에서 부족한 소납이 정화추진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제가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은 그간 총무원원장 이하 임직원들이 저질러온 부정부패 및 바르지 못한 방법에 의한 여러 종도들의 억울함을 모두 모아서 정화추진위원회 대표위원들의 결의에 따라 종도님들의 억울함을 해결 해 드리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현 총무원장 재임 시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소명 자료와 같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정화추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안은 모두 없었던 것으로 간주 차후 구재의 길이 없음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법화종 종찰은 본 위원회가 종도님들과 합심하여 종단정화 후 사자상속이든 직계상속이든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으로 남아 있는 한 현주지스님께서 전법과 기도에 지장이 없도록 차후 새로이 구성되는 총무원과 중앙종회의원들의 결의에 따라 종헌 종법에 명시하여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기를 틈타 대한불교 법화종을 탈종하거나 전종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절대로 용납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종단이 와해되는 것이고 그간의 노력이 헛되이 하기에 정화추진위원회는 강력히 그 대비책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종도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의 문화를 창달하며 지켜온 호국의 불교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제는 부처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바른 법을 중생에게 전법하며 부처님의 법등이 환하게 밝혀지는 대한불교 법화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원을 세운다면 못 이룰 리 없는 우리들의 정신적 집념으로 부처님의 가피력과 호국불교 정신으로 모든 종도가 개인적인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고 종단과 종도를 위한 지혜를 모은다면 틀림없이 부처님은 저희의 발원을 들어 주실것입니다. 화합하는 종단 수행과 정진으로 밤을 세는 종도들로 다시 태어나길 소납은 부처님께 발원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보은으로 날마다 좋으시며 두루 강안하시길 바랍니다.

총무원장 및 임직원들의 부당 부정행위 신고

여러 종도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어 무궁한 발전과 건승하시기를 정화추진위원회는 발원 드리며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현 총무원장 및 임직원들의 부당 부정행위로 입은 사암의 인적 물질적 피해 사항 모든 것을 아래의 기일 내에 소명 자료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일 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간주 추후 대한불교 법화종. 또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일 시 : 200년 8월 10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 신고처 :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 신고 된 내용은 철저한 비밀이 지켜집니다.

불기 2552(2008)년 8월 5일

대한불교 법화종 전국 사암주지 및 대표임원 여러분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불교 법화종의 전국사암 주지 및 대표임원들은 참으로 안타깝고도 결연한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혜륜 총무원장이 서리로 처음 시작할 때 다소 시끄럽고 바르지 못해도 자비(慈悲)로 이해해 왔고 총무원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진심어린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재임기간 중 종도의 지지를 받는 총무원장이 되길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임과 동시에 편중 인사와 종권 싸움으로 경동교구가 모두 탈종하고 여러 가지의 속세법에 의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우리 종도들은 믿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총무원장은 몇 임직원과 결탁하여 종도들이 피땀으로 쌓아온 사암을 소위 종찰이란 명목으로 공갈 협박하고 또는 갈취하여 그들만의 배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벌. 출가사찰의 허위. 속세법에 의한 벌금형. 종도가 구속되는 폭행사건. 비구니와의 부적절한 관계. 김창교구의 집단탈종. 교헌사. 대방사. 금불사. 안정사. 흥국사 그 외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현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종도의 대의기관인 중앙종회 마저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몇몇 종회의원들은 같은 무리로 지금까지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자신들의 이권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종헌종법은 직접적으로 우리 종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인데 어떻게 계정 되었는지 우리가 낸 종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 졌는지 중앙종회의원 종무원장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이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꼭 종도들이 알아야할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몇몇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 종도들도 소상히 알아야 하겠기에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모인 종도만이 아니라 전 종도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고 전 종도가 합심하여 종단의 혁신과 화합하는 종단이 되게 합시다.

종도들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중앙종회는 깊은 성찰을 바랍니다 종도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가 신속하고도 책임 있는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중앙종회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정화추진위원회와 전국종도들은 더 이상 내면의 평화에 머물지 않고 종단과 종도의 미래를 밝히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사적 결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밖에 없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결 의 문

1.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스님들은 총무원장 혜륜(김용대)스님이 재직하며 저질러온 부정부패의 종무행정과 패륜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총무원장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스님들은 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종회가 엄연히 직분을 다하여 부정부패의 종무행정과 총무원장의 패륜적 행위를 감시 감독하여 작금의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그에 방관 하였고 오히려 총무원장의 그 같은 행위에 야합하는 몇몇의 중앙종회의원까지 있어 정화추진위 원회 스님들과 모든 종도들은 더 이상 중앙종회를 믿을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종회는 혜륜(김용대) 총무원장 재직 시 행해온 입법 예산 결산 감사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둘. 중앙종회는 종도를 대표한 기구임에도 아직까지 한번 도 종회회의 내용과 입법내용을 종도에게 고지 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중앙종회가 그 임기 중에 행하여온 모든 것을 2008년 8월 15일까지 공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위 1. 2. 항의 관철되지 않을 시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스님들은 그 책임을 물을 확고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결의 한다.

불기 2552(2008)년 7월 29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위 원 장 대 구 선 불 사 지 성
부위원장 서 울 흥 창 사 혜 암
부위원장 창 원 수산자비원 법 상

위 원
광 주 교헌사 혜 가 서 울 법만사 법 만
서 울 법화사 현 우 삼천포 대방사 도 안
진 주 길상사 송 원 진 주 약수암 원 봉
양 주 연화사 청 례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지성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10번지 / 전화 054)973-2521~2)

문화재환수에 '한마음'

남·북 불교대표 8일 서명…독도 관련 성명도

물보다 진하다는 피도 고개 돌린 남북이 불심으로 손잡았다.

경색된 남북 관계로 남과 북 선수단이 따로 입장하던 베이징올림픽 개막일(8월 8일)에 남북 불교계가 공동합의를 이뤘다.

'해외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운동' 협의차 8월 5~9일 평양을 방문한 조선왕실의궤환수위 공동의장 인묵 스님(봉선사 주지) 등 남측 불교계 인사 11명은 정서정 위원장(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등 북측 불교계 인사와 8월 8일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공동성명 · 공동합의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성명서와 합의서는 남측에서 김원웅 前 국회의원(조선왕실의궤환수위 공동의장), 인묵 스님(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 손안식 부회장(조계종 중앙신도회)이, 북측에서는 정서정 위원장(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라영식 회장(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이 서명했다.

"남과 북은 문화재 환수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합의서는 일본 궁내청 등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와 <패엽경>, 미국 보스톤 미술관 소장한 '라마탑형사리구' 반환을 위한 남북 공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남북 공조는 1965년 한일조약으로 반출문화재 청구권을 포기한 남측을 대신해 북측이 북일수교 조건으로 '조선왕실의궤'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남북이 함께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혜문 스님(환수위원회 간사)은 "북측의 변호사 선임 위임을 받아 남북이 함께 민사소송형태로 나선 것은 약탈 문화재 반환에 새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일본 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야마구치 현립대학 소장 데라우찌 문고 ▲이토오 히로부미 규장각 대출 도서 938책 ▲일본 국립박물관, 도쿄대학 소장 '평남 대동군 출토 낙랑유물 등 한일협정 당시 반환받지 못한 문화재들에 대한 반환 요구 대책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남측은 북측에 <한국불교전서>(동국대 출판부 刊),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국립문화재연구소 刊), <일본소재한국전적목록>(문화재관리국 刊),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한국해외전적조사연구회 刊), <데라우치 문고 목록>(문화재청 제공) 등 문헌을 제공했다.

일본의 독도강탈 책동을 규탄하는 남북불교도 공동성명서도 발표됐다. 남북 불교도들은 성명서에서 "일본의 독도강탈 책동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며, 일본에 독도강탈 책동 중단과 과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촉구했다. 남북 불교계는 일본의 책동 저지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인묵 스님(봉선사 주지)은 "금강산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가는 국면에서 남북 불교계가 독도 문제와 민족문화재 반환 운동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합의서와 함께 작성된 '조선왕실의궤' 환수를 위한 반환요청서는 8월 말경 일본 수상과 외무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독도침략과 불교 문화재 되찾기에 하나된 남북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뜻을 모아 민족종교로서 정통성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격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교과부장관 공식사과

11일, 학교정보지도 사찰누락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이 교과부 학교정보지도 사찰누락에 대해 공식사과문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8월 1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을 통해 "교육지리정보서비스에 사찰정보가 누락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금일부로 교육지리정보서비스업무 담당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교과부 감사관에게 이번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경위 조사 후 관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도서비스(gis.seoul.go.kr)에서도 사찰 정보가 누락된 것이 발견됐다. 문제의 서울시 지도서비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4년 7월부터 서비스됐다. 문제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 역시 국토부와 교과부 지도를 제작한 동일업체여서 수정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묵과해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도서비스 중 '내지도 만들기'라는 코너에서는 종교시설로 표시가능한 시설은 교회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13일 논란이 일자 다음날 오전을 기해 '내지도 만들기'에서 교회아이콘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서울시는 "가능한 사찰명칭은 즉시 시정했으며 일부 산악지역의 누락된 사찰 명칭은 기술적으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8억원 돌려달라"

통도사 성북구청에 소송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가 서울 성북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8억원의 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통도사는 소장을 통해 "1998년 성원토건그룹 김성필 前 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성북구 소재 부동산에 불당과 탑, 미술전시관 등 종교시설물을 세웠는데 성북구청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고 6년이 지난 2004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니까 3년 치 세금 8억원을 돌라 달라"고 환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성북구 관계자에 따르면 "종교시설로 이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 없다"며 "과세된 건축물 중 일부는 외부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 되어있는 곳도 있고, 또 종교시설과는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곳도 있다"고 통도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종교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로, 이에 종교 단체들은 비영리사업자라서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이번 소송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원 기자

무기한 단식·시위 돌입

범불교도대회 봉행위

정부의 종교편향행위에 항의하는 단식과 1인시위가 시작됐다.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는 8월 11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헌법파괴 · 종교편향 이명박정부 규탄 실천활동 선포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국실장 스님 등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혜경(총무원 총무국장), 미등(총무원 기획국장), 성혜(총무원 교육국장) 스님의 단식돌입과 삭발식이 거행됐다.

노덕현 기자

"불심으로 메달 환호성…"

조계종 포교원 북경올림픽 현장 불자선수 위문



베이징올림픽에서 불자 선수들을 응원중인 포교원 관계자들. 맨 오른쪽이 포교원장 혜총 스님.

베이징올림픽에서 불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승전보가 연일 들려오고 있다.

첫날인 8월 10일 여자양궁단체전 윤옥희 선수의 금메달과 여자역도 윤진희 선수(53kg급)의 은메달에 이어 11일 남자양궁단체전 임동현 · 이창환 · 박경모 선수의 금메달과, 12일 레슬링 박은철 선수(그레코로만형 55kg급)의 동메달 소식이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불자선수는 모두 32명으로 위의 메달획득 선수뿐만 아니라 남녀 양궁개인전(이창환, 박경모, 임동현, 윤옥희)과 태권도(손태진), 배드민턴 남녀혼합복식(이용대), 여자하키(김미선, 김정희, 조혜숙, 김종은) 등에서 메달획득이 기대된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불교계가 처음으로 응원전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조계종을 대표해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교육부장, 포교부장 등 스님들과 신도 10여명은 8월 11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들은 도착후 양궁경기장을 찾아 한국응원단과 함께 남자양궁 단체결승전을 응원했다. 이날 남자대표들은 중국 관중들의 호루라기 소리나 기침, 야유에 굴하지 않고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이에 앞서 조계종에서는 지난 해 10월 28일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조직했다.

노덕현 기자

"평화·상생" 국회의원들 기도회 연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신앙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종교를 초월해 국가발전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기 위해 국회연합기도회를 연다.

정각회와 국회직원불교신도회, 가톨릭신도의원회, 원정회, 다산회는 9월 4일 오전 7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평화와 상생의 정치를 위한 국회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

국회연구모임인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대표 박상돈)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장단, 각 당 대표, 각 종교단체 의원모임 회원, 등 3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02)788-2477

김성우 기자



봉 미얀마 문화원 개원 축

모시는 말씀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싸
No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mbuddhas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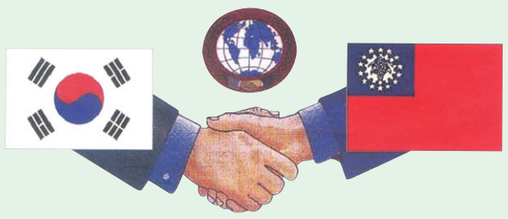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님을 미얀마 문화원 개원에 초대합니다.
미얀마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왜곡되지 않은 진실된 내용을 바르게 아는 공간을 마련하고
미얀마를 좋아하고 알고자 하는 분들의 만남과 대화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첫 문을 열어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참석하여 주시어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일시 : 2008년 8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종로구 청진동 6 대명빌딩 303호

한국주재 미얀마 대사 우 묘 르윈

외교법인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공동대표 영산 - 홍파 목탁 - 혜은

문화원 대표전화 02)733-5665 / 협회 02)733-5670~1



국제불교 봉사단 모집

중생과 함께 숨쉬며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부처님의 숨결이 마음과 육신에 와 닿는 생활 불교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곳 서울 한복판에 부처님진신사리박물관을 개원하고 전국 각지의 숨은 인재들을 초청하여 국내외 불교 지도자들의 각종 행사 및 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한국 정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스님 한분 한분이 소중하고 귀하신 존재이기에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풍토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곳에는 어느 종단스님도, 명성도 불문이고 무엇을 펼쳐 보고자 하나 도반이 없어 늘 마음으로 끝나지만 각자 그 지역의 불교 지도자로서 땀흘리는 부처님 세상에 주역이신 소중한 스님 및 재가자들과 마음과 행을 같이하고자 합니다. 법인 설립 중인 국제 불교 봉사단에 법하를 초청합니다.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50년 일군 도량 1억 1천만원 때문에…

포천 금룡사 30년 재판 승소, 토지매입금 없어 '발동동'


무심행 보살(원안)의 원력으로 지켜낸 포천 금룡사가 토지 매입금을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경기도 포천 금주산 금룡사(金龍寺). 새벽 4시 어둠이 가시지 않은 산길을 한 노보살이 오른다. 계곡 따라 굽이진 돌계단을 한참 오르니 절벽에 매달리듯 서있는 대웅전이 보인다. 그 위로는 미륵부처님이 도량을 굽어보고 있다. 법당에 들어간 노보살은 예불 후 기도정진에 든다.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 23번지…." 금룡사 주소를 읊조리는 노보살은 누구며, 무슨 사연으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일까?

금룡사는 1865년 이순신 장군 후손인 지담 스님이 위태로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 창건한 호국도량이다. 지담 스님이 가난과 병고와 전쟁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겠다며 세운 금룡사는 작은 암자에 불과했다. 기도처로 명맥만 유지하던 이 곳이 도량의 위엄을 갖춘 것은 지혜 스님과 무심행 보살이 불사를 시작한 1970년부터다.

스님과 보살의 원력에 관세음보살님도 감응했는지 미륵불 점안식을 봉행한 1970년 7월 8일 밤 9시와 2005년 7월 8일 밤 9시 관세음보살님이 나투셨다. 밤하늘을 환하게 비춘 방광을 산불로 오인한 마을 사람들이 신고해 소방차가 출동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지혜 스님과 무심행 보살은 한짐 한짐 흙짐을 져 나르며, 금주산 계곡을 따라 계단을 내고, 대웅전을 짓고, 미륵석불을 세웠다. 암벽을 파내 감실에 1000불도 모셨다. 석굴암 불사가 한창일 때 경봉 스님이 "금룡사 석굴암 불사가 완전히 끝나야 남북통일을 이룬다"고 말할 정도였다. 지혜 스님이 입적한 2007년까지 금룡사 불사는 계속됐다.

오늘도 변함없이 법당에서 정진 중인 노보살은 금룡사 불사를 이룬 무심행 보살(76)이다.

"50여년 일군 도량이 1억1100만원이 없어 도량이 사라지게 됐소." 눈물을 글썽이는 노보살이 한숨 끝에 입을 연다.

"불사가 한창이던 1980년대부터 빨갱이 돈으로 불사한다는 모함에 스님도 나도 군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소. 형사고발로도 안되자 1990년대부터는 토지소유권을 둘러싸고 민사소송이 걸렸고…." 수십년 설움의 회한이 북 받혀서일까? 무심행 보살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서류를 위조한 이들이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별일을 다 겪었소. 소송에 이길만 했을 때 소유권을 넘겨 다른 사람하고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한 것은 우습고, 인터넷에 매물 · 경매로 올랐다며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온 것은 예사요. 법당 철거하겠다고 깡패들이 몇 트럭씩 찾아온 것도 버텼소. 신도라며 드셔보라고 건넨 떡, 등산객이 먹어보라며 주고 간 밤에 독이 들어 죽을 뻔도 했소." 애써 말을 잇는 무심행 보살의 음성은 떨렸어도 30년 고난 속에 도량을 수호했다는 자부심만은 역력했다.

"대법원 승소까지 받았으니 이제는 조용히 불사를 마무리하고 포교에만 힘쓰고 싶소."

대법원은 2004년 소유권을 주장하며 금룡사를 허물고 가톨릭 기도원을 짓겠다는 문모씨에게 금룡사로부터 1억1100만원을 받고 2500평의 등기를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03다66448)

대법원 판결로 금룡사는 철거를 면했지만 다음이 문제였다. 삼보정재를 아끼겠다며 손수 법전을 살피며 재판정에 섰던 30여년이지만, 줄이은 송사와 병고에 시달린 무심행 보살에게 1억여원이 있을 리가 없다.

무심행 보살은 1980년대, 사찰음식이 주목받지 못하던 때부터 메주와 된장을 담가 팔며 사중 살림을 보탰다. "된장 만들어 팔면서 뇌종양도 고쳤지." 보살이 된장을 담가 금룡사만 이룬 것은 아니었다. 인근 8사단 군법당 관음사, 5군단 군법당 금강사 등 불사 외에 낙산사 불사 등 전국의 크고 작은 불사라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시주했다.

"반평생 넘게 금룡사를 일궜는데 정작 불사를 마무리할 인연은 따로 있나보오. 누가 도우려고 부처님이 기다리는 것인지 궁금해. 어서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밤낮없이 목탁 치고, 목 놓아 관세음보살을 불렀지만 아직 때가 아닌가봐."

스님이던 어머니의 권유로 포천 금룡사를 찾아 불사를 수행삼고 살아온 무심행 보살의 80여년 삶, 부처님 품에서 진력한 50년 중 30여년은 마장으로 송사에 시달린 회한의 시절이었다. 금룡사에 평생을 바친 노보살의 원력은 꽃피울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절을 찾아 부처님께 위안 받으려 하지 부처님 지키려 하지는 않아."

포천 금룡사의 사연은 1억 1100만원의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나 무심행 보살의 말처럼 한국불교의 현실 같아 안타까움이 더하다.(031) 533-4405 · 4425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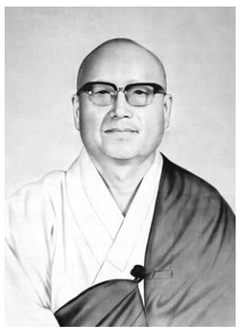
〈6〉탄허 대종사❷

"그렇게 하려면 다시는 절에 오지 말라. 남편부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부처님께 마지를 올려서 무슨 덕을 보겠다고?"

이 말을 들은 막내 아이가 어머니께 사뢰었다.

"어머님께서는 8년 동안 저를 위해 불공을 드려 주셨는데, 저는 오늘 아버지를 위해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 두꺼비 저금통을 털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 놓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맞아 아랫목에 앉게 했다. 그리고는 큰 상을 바치고 삼배를 드리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한편 거사는 크게 참회하였다.

"큰스님, 큰스님을 몰라 뵙고 구업 지은 것을 참회합니다."

"그래 아내부처, 자식부처 잘 섬기고 살게."

이렇게 탄허 스님은 자상하시면서도 호탕하여 각성, 무비, 통광, 성일 등 눈 푸른 납자들과 동건, 문환, 찬우 등 기라성 같은 대학자들을 배출하여 한국불교문화에 큰 빛이 되었다.

탄허 스님은 이와 같이 선 · 교에 능통한 대불교학자일뿐 아니라 유교와 도교에까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 일본, 대만에 까지 출강하시어 동양문화의 일대 보물로 알려져 있다. 동국대학교 교수였던 故 양주동 박사는 그의 제자 몇 사람과 함께 1주일 동안 〈장자(莊子)〉 강의를 듣고,

"만약 장자가 다시 태어나서 자기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스님을 능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였다.

80년대 초 미국 하와이에 가서 스님의 친필(親筆)을 신처럼 모셔 놓고 부처님 받들 듯 하는 것을 보았다. 과연 이 시대의 일과 이치에 능통하고, 종통(宗通; 마음의 이치를 요달해 진리를 깨달음), 설통(說通; 법문을 자유자재로 하는 언변을 얻음)한 사람이 탄허 스님을 빼고 또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아내·자식 부처처럼 섬겨라"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영문을 몰라 안절부절하였다.

사실대로 이야기 하니 아버지께서는 매우 겸연쩍어 하시며,

"너희들에게 불교를 그렇게 가르치는 스님이 계신다면 나도 가서 뵈리라. 나는 네 엄마가 스님 애인이 생겨가지고 매년 불공을 핑계하고 그분을 뵈러 절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나도 한번 가서 꼭 뵙고 십구나.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라 하드냐? 내 다음 달 월급타서 대중공양을 한번 크게 하리라."

"만두와 국수라 하였습니다."

얼마 후 만두와 국수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그 국수 공양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던 스님이 왈칵 게워 내은 방안이 국수 천지가 된 일이 있었다.

"글도 잘 하시고,
글씨도 잘 쓰시고
말도 잘 하시고,
행(行)도 원만하여
만인의 사랑을 받던 스님이여,
오늘은 또 구루매 안경을 끼시고, 어디를 가셔서 누구를 교화하고 계십니까."

대불련 전국 총동문회 23~24일 동화사서 봉행

대불련총동문회(회장 전보삼)는 8월 23~24일 대구 동화사에서 '2008년 대불련 전국 총동문대회'를 개최한다. 개인의 수행을 점검하고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할 이번 대회는 23일 오후 2시 30분 갓바위 순례와 입재식(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법문), 축제한마당(야외공연장) 순으로 진행된다.

24일에는 동화사 승가대학장 지운 스님의 특강, 장현갑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의 '불교적 심리치료' 특강, 회향식 및 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된다. (011)503-2060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태평성대 발원 담은 '충담사 안민가비' 제막

경주 홍도공원에서 8월 15일 봉행


충담사 안민가비.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가 태평하리라.'

(사)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흠)와 불국사(주지 성타) 공동 주최로 건국60주년을 기념해 안민가비 제막기념식이 열렸다. 8월 15일 경주 보문단지 내 홍도공원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1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막식은 백상승 경북 경주시장의 초헌(初獻)을 시작으로 엄숙히 진행됐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안민가(安民歌)'는 통일신라 승려 충담사(忠談師)가 경덕왕에게 바친 향가다.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달여 미륵보살에게 헌다한 충담사 스님이 다례를 마치고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02)734-5866 가연숙 기자

한국방송작가협, JTS에 北지원 성금 전달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김옥영)는 8월 8일 북한식량지원을 위한 성금 1500만원을 국제구호단체 JTS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옥영 이사장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굶어죽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작가들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한국방송작협회 소속 작가 121명이 참가했으며, 탈북여성과 남한 남자의 결혼 이야기를 다룬 KBS 라디오 시트콤 '남남북녀' 팀도 모금에 동참했다. 또 북한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1% 책정, 식량20만톤 긴급지원을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이뤄졌다.

노덕현 기자

정토회, 단기출가 모집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토회 행자원(원장 유수)이 제5기 100일 출가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1만배 정진, 새벽예불, 명상, 참회기도, 발우공양, 포살법회, 생태농사 등을 경험한다. 이밖에도 깨달음의 장, 나눔의 장, 일체의 장 등 마음수련과정을 통해 자기변화 훈련을 하게 된다.

'100일 출가'를 지도하는 유수 스님은 "이번 단기출가 수행은 내면의 문제를 확연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새로운 삶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신청마감은 8월 20일. (054)571-6030, www.jungto.org.

김성우 기자

"(假稱)梵魚寺 和合 僧伽會" 發起文

— 修行과 衆生救濟의 中心인 禪刹大本山 梵魚寺가 持續的인 葛藤과 混亂에 흔들리고, 近者에는 司法機關과 言論까지 동원되어 四部大衆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 이는 門中別로 分裂하고 오로지 小集團의 權益만 주장하고 있는 梵魚寺 僧伽의 現實에 基因한 것으로, 修行者로서 本然의 姿勢를 忘却하고 私利私慾이 앞선 탓이라 할 것 입니다.

— 昨今의 內訌을 終熄하고 무너진 位階秩序를 바로 세워, 다시 梵魚寺가 修行과 衆生救濟의 中心이 될 수 있도록, 뜻 있는 스님들이 모여 "(假稱)梵魚寺 和合 僧伽會"를 結成하게 되었습니다.

"(假稱)梵魚寺 和合 僧伽會" 發起人 一同















2008 만해축전, 심포지움 시상식 공연 등 풍성한 '통섭의 마당'

"만해의 가르침 세계로 세계로…"









축제는 끝났다. 그러나 여운은 길다.

건국 60주년, 현대시 100년, 만해축전 10년의 의미를 담고 설악산 만해마을에서 열린 2008만해축전. 올해도 전국의 문학인과 예술인들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만해축전은 자유와 평화를 가르친 만해의 정신을 되새기고 세계로 전파하자는 다짐의 자리였다.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만해축전에서는 만해대상 유심문학상 시상식을 비롯 학술심포지엄과 시인학교, 고교생백일장, 시낭송, 공연 등이 이어지며 문학과 세상이 소통하는 길을 넓혔다. 특히 만해학술원이 주관한 '한국현대시 10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과 만해 정신의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담론의 틀을 제공하는 자리였다. 5차례로 나눠 진행된 이 심포지엄의 기조강연에 나선 이어령 前 문화부장관은 "한국시의 세계화는 불가능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다. 우리글로 된 시를 제대로 읽는 것에서부터 번역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기조강연에 나선 김종길 고려대 명예교수도 "시를 언어적 측면과 의미의 측면에서 제대로 읽는 것에서 번역의 난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강연 전문 buddhanews.com에)

만해축전의 하이라이트인 만해대상 시상식(12일 오후 5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인 지관 스님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교계 중진 스님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만해 평화의 종 타종을 시작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평화부문에 로카미트라 잠부드비파회 회장, 문학부문에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학술부문에 김태길 박사, 포교부문에 도선사 주지 선묵혜자 스님과 로버트 버스웰 UCLA대 교수 등이 영예의 만해대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민족애와 조국애를 실천한 만해 한용운 큰스님의 뜻을 이어 각자의 생활 속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유인촌 장관은 축사를 통해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이 가장 좋아하는 시"라며 만해스님의 정신과 가르침이 세계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인 로카미트라 법사는 "저는 이런 교류와 대화를 통해 3천만 명에 달하는 인도의 신불교도들이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의 풍부함은 물론 만해 스님과 같은 위대한 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기를 희망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해축전은 지난 10년간 해마다 8월 중순에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며 국내에서 가장 크고 뜻 깊은 문학축제로 자리 잡았다. '유심상'과 '유심신인상' '유심시조백일장' 등 한국문학의 성장과 저변확대를 주도하며 문학을 통한 불교정신의 세계화를 주도해 왔다. 특히 만해대상은 그 폭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로 넓혀오며 상과 수상자의 권위를 함께 높였다.

비보이 공연을 비롯한 젊음의 향연과 세계적 지성의 학문과 문학의 향기를 두루 통섭하는 포괄적인 문화향연으로 자리 잡은 만해축전은 내년에도 더 진화된 주제로 '기룬 님'들을 찾아 갈 것을 기약하며 8월 14일 만찬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와 (주)LG데이콤의 전략적 제휴

LG데이콤 myLG070

인터넷 전화 무상 보급

"스님,불자님". . . . . .
아직도 인터넷 전화로 안바꾸셨습니까
불자님들과의 무료통화를 제공합니다.

불자간 무료 통화 — 언제 어디서나 myLG070 070번호 불자님들과의 무료통화

문자 전용폰 — 문자 메세지로 불자간 공지사항을 전달해보세요.

전국 단일 시내요금 — 시내,시외의 불자님들과 전국 단일 최저요금으로 통화하세요

※ 전사찰에 인터넷 전화기를 무상 보급합니다.

'(주)LG데이콤과 함께 지금 바로 불자님들의 가계통신비를 줄여보세요'



■myLG070 신청 문의
지금바로전화상담!
070)7561-0352
www.gomylg070.co.kr

◆ (주)LG데이콤은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와 함께 정보화산업을 진행합니다.

|| 주관사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재단법인대한불교미타종 || || 시행사 (주)더블유폰 ||

일주문



백중회향 경로잔치 개최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8월 14일 공산초등학교에서 대구불교복지회 요양원 및 지역 경로당 어르신 1000여명을 모시고 백중회향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법흥사 문화마당

도완 스님(법흥사 주지)은 8월 7일 법흥사 앞마당에서 아리솔 문화예술단을 초청해 어울림 문화마당을 개최했다.



나눔의 집 위안부기념관 10주년행사

원행 스님(나눔의집 원장)은 8월 14일부터 2008년 말까지 광복 63주년 및 위안부기념관 10주년 기념사진전을 개최한다.



나라사랑 · 독도사랑 글짓기대회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8월 10일 '제2회 나라사랑, 독도사랑 전국 초중고교생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지혜로운여성 다문화교육

(사)지혜로운여성 김인숙 이사장은 9월 2일~10월 17일 조계사 교육관 2층 강의실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전문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02)722-2101



전원주씨, 지구촌공생회 홍보대사 위촉

불자 탤런트 전원주씨는 8월 6일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대중화합, 수행·교육에 최선 다할 터"

신임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인재불사' 다짐



"더 이상 종교편향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재불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8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신임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최근 종교편향으로 인한 종단의 어려움은 인재의 부재에서 기인했다"며 "늦었지만 본사 차원의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월 16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현응 스님에 이어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조계종 종정)으로부터 새 해인사 주지로 추천된 선각 스님은 "4년 내내 어미닭이 알을 품는 심정으로 성심성의껏 해인사 주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각 스님은 "해인사는 절 살림도 크고 대중도 많아서 주지가 긴장해야 하는 자리"라며 "절에서 평상시 살면서 생각했던 개선방안을 원 없이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문중간에 잡음이나 균열이 일지 않도록 대중화합에 힘쓰고 ▲수행 · 교육 도량인 해인사에 걸맞게 교육불사를 추진하며 ▲지역민과 이웃 포교에 소홀한 점을 개선시켜 소통시키는 포교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에 대한 원인을 소극적 인재불사의 결과라고 지적한 스님은 "100년 전부터 해왔어야 할 불교계 인재육성을,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정부의 불교차별과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59년생인 선각 스님은 1984년 해인사에서 혜인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해인사 선원장, 해인사 자비원 대표이사, 해인사 고불암 주지, 제12~14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종정 예경실장을 겸임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불교정신으로 세계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 로카미트라 법사



"불교정신으로 창조적이면서 비폭력적인 인권운동을 할 것입니다"

제12회 만해축전 평화부문 대상을 수상한 TBMSG대표 로카미트라 법사(61 · 본명: 제레미 구디)는 8월 13일 만해 NGO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해대상 수상은 인도 불가촉천민 상황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인도인권운동을 알릴 기회로 생각돼 매우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로카미트라 법사는 1947년 런던에서 태어나 1974년 '서구불교 승가종'에서 상가락쉬타 법사한테 아나가리카(8계를 지키는 행자)로 '로카미트라(모든사람의 친구)'라는 법명을 받았다. 이후 인도 불가촉천민 해방운동을 전개한 암베드카르 박사에 감명 받아 1976년부터 인도 나가푸르 지역에서 불가촉천민 해방운동과 자활운동에 앞장서 온 불교인권운동가이다.

로카미트라 법사는 "현재 인도에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2억 명에 달하는 불가촉천민들이 있다. 이들은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도 교육을 받을 수도 없는 신분으로 심지어 법적 보호와 사람 대접조차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주로 민주 정권이 아닌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어 종교, 특히 불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2003년 임진각 등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을 때 강 이쪽은 평화적 분위기가, 강 저쪽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것에 놀랐다. 북한인권상황을 비롯해 중국 · 티베트 인권 문제 등 세계인권문제에 불자들도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노덕현 기자

견불사 제초작업 중 사고로 실명

송영철 거사, 예초기 사용중 파편에



여름철 산중의 제초작업 시 예초기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8월 1일 함양 지리산 견불사(주지 보덕)에서는 신도 송영철(52) 거사가 예초기 사용중 파편으로 인해 왼쪽 눈을 실명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 현재 대전 건양병원에서 치료중인 송씨는 평소 어려운 살림에도 견불사의 주변도량과 마을을 내 집처럼 청소하며, 말없이 선행을 짓던 터라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매년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온 견불사 주지 보덕 스님은 본인이 느낄 상실감과 생활 적응력 저하, 그리고, 어려운 형편으로 인한 퇴원 후 병원비가 걱정된다"며 불자들의 지원을 호소했다. (055)962-3931

혜철 충청지사장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진각종립 위덕대 배도순 4대총장 선임



"개혁보다는 개선과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각종 위덕대학교 제4대 총장에 선임돼 8월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배도순(55) 총장은 "종립학교로서의 설립취지를 존중하고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참인재를 육성, 명문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용맹정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총장은 이어 "대학의 우선과제인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우수 교수 및 학생 유치를 위해 전 학교 구성원이 일심단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10년 내에 건실한 명문사학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덧붙였다.

배 총장은 1972년 경북고를 졸업하고 경희대대학원 무역학과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강릉대 무역학과 교수와 위덕대 사무처장, 경영대학원장 겸 도서관장, 교육대학원장, 총장직무대행을 역임했다.

김성우 기자

파라미타 한·일 청소년불교교류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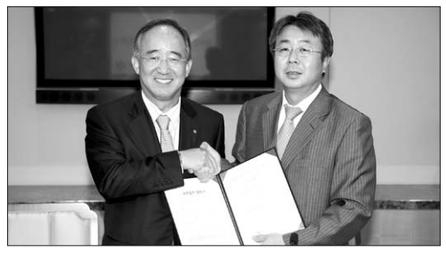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는 7월 30일 ~ 8월 4일 일본 큐슈지역에서 아시아불교도협회(이사장 이바라기)와 한 · 일 청소년불교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일 행사에는 단장 범성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신도국장) 인솔 하에 청소년 22명이 참가했다. 노덕현 기자

진각종, 자성동이 풋살대회



대한불교 진각종과 (사)비로자나협회는 8월 13~14일 경주 위덕대에서 제3회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풋살대회를 개최했다. 총상금 300만원에 초등16개팀 중등4개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불교미래 주역인 자성동이(어린이불자)들이 건강한 심신과 유대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東大, 조인스닷컴과 산학협력 조인식



동국대(총장 오영교)와 중앙일보 조인스닷컴(대표이사 하지윤)이 산학협력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산학협력 협정으로 동국대와 조인스닷컴은 산학협력을 위한 인력, 시설, 정보의 공동활용과 언론인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산학협력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한 · 버마 문학교류의 밤



'버마를 사랑하는 작가들의 모임'(회장 임동확 시인)은 8월 8일 '8888버마 민중항쟁 20주년'을 기념해 버마저항시인 마웅 소쟁(59)을 초청, 오후 6시 마포 이원문화원에서 한 · 버마 문학교류의 밤을 개최했다. 한국 · 버마 문학 교류의 밤은 버마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투쟁을 전개, 3000여 명이 학살된 '버마8888민중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작가회의, 한국문학평화포럼 등 후원으로 양국의 문인들이 마련한 것이다. 노덕현 기자

樂山 志安 講伯 傳燈講脈 傳授法會

대한불교조계종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에서 수학(修學)한 저희 전강제자들이 요산(樂山) 지안(志安) 큰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하는 전강식(傳講式)을 갖습니다. 전강(傳講)이라 함은 말 그대로 '강맥(講脈)을 전한다'는 뜻으로 전강식은 불교의 삼장을 터득한 후학에게 교맥(敎脈)을 전하는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입니다.
요산 지안 큰스님의 강맥은 설유 처명(1858~1903)과 한영 정호(1870~1948) 운허 용하(1892~1980) 월운 해룡(1928~)스님으로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맥입니다. 제방에 계신 대덕 큰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참석하시어 법석을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강제자 약력▐

청 원(靑願)
불국사에서 천호(千湖) 월서(月棲)스님을 은사로 득도.
해인사 강원, 중앙승가대학 졸업.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 · 박사 과정 이수.
조계종립 승가대학원 졸업.
현재 동국대 선학과 강사.
논문으로 「간화선 연구」와 역서로 「황벽어록」이 있다.

도 산(道山)
범어사에서 여산(如山) 정여(正如) 스님을 은사로 득도.
법주사 강원, 해인사 율원 졸업.
조계종립 승가대학원 졸업.
현재 송광사 강원 강사.
역저로는「대승기신론의기」가 있다.

인 해(仁海)
통도사에서 요산(樂山) 지안(志安) 스님을 은사로 득도.
해인사 강원 졸업.
동국대학교 선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동화사 강원 강사, 동국대학교 강사 역임.
조계종립 승가대학원 졸업.
현재 수덕사 강원 강사.
논문으로「남종의 선사상 연구」와 역서로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이 있다.

◆일시 : 불기 2552년(2008) 8월 29일(금) 오전 11시 ◆장소 : 영축총림 통도사 반야암 ◆문의 : 055)382-3211

傳講 弟子 一同 합장

고독한 직지 … 그리운 직지

해외불교칼럼



히말라야의 한 봉우리가 '직지' 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우리의 성보 '직지'는 남의 나라에 있다. 사진은 '직지' 홍보 행사 장면, 작은 사진은 '직지' 표지와 내지.

7월 16일 히말라야의 한 산봉우리에 처음으로 '직지(直旨)'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는 젊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선조가 발명한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심체요절>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자 특별기획한 행사다.

직지의 탄생지인 충북지역 산악구조대가 주력인 '직지원정대'는 당일 새벽 3시부터 13시간 동안 짙은 안개와 눈보라를 헤치고 파키스탄 북부 히말라야의 6235m 고지 정상에 '직지(JIKJI)'의 깃발을 꽂았다. 등정에 성공한 이들은 인근 파키스탄 오지마을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후 귀국한다.

파키스탄 정부 및 산악협회와 협의대로 이 정상은 직지봉(Jikji Peak), 또 등정코스는 직지루트(Jikji Route)로 세계등반지도에 새겨진다.

이상은 내외신의 보도축약이다. 실로 만감이 교차한다. 선조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직지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를 지켜내지 못한 못난 후손의 수치심, 그러나 이처럼 민족적 긍지를 굳게 지켜주신 그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눈물 속의 무지개처럼 헝클어진다. 고려 말인 1377년 청주목 흥덕사에서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로 간행된 이 책은 본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다. 그러나 흔히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로 줄여 부르다가 마침내 '직지'에 이른다. 그런데 197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개최한 서책전시회에 <직지심경>으로 잘못 소개된다. 불교에서 '경(經)'이란 경전을 뜻하는바, 이 책은 불경이 아니라 불서다. 따라서 <직지심경>은 틀린 표현이며, 이 책의 판심제(版心題)에 표기된 가장 간략한 '직지'가 바른 통칭이다. 직지의 주제는 직지심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은 마음을 곧바로 보는바가 곧 깨우침이란 뜻이다.

'직지'의 편저자 백운 화상은 법명 경한(景閑)이다. 그는 1298년 전라도 정읍 출생으로 54세에 원나라에 들어가 인도의 고승 지공 화상에게 배우고 중국의 석옥 선사로부터 <불조직지심체요절> 1권을 전해 받은 후 56세에 불도를 득한다. 이후 황해도 해주의 안국사 등에서 후진을 양성하던 그는 75세에 성불사에서 145가(家)의 법어를 상하 두 권의 직지로 편집 저술한다. 그는 이 불사를 끝으로 77세에 여주 취암사에서 입적한다.

직지는 1377년에 청주목(淸州牧) 인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다. 간행기록에 나오는 석찬(釋璨), 달잠(達湛)은 그의 제자로 석찬은 <백운화상어록> 상하권을 수집기록한 수행비서 겸 시자(侍者)다. 특히 '시주 비구니 묘덕(妙德)'은 직지의 흥덕사 금속 활자본은 물론 취암사 목판본의 간행에도 참여한 진취적 열정과 불심을 지닌 분으로 보인다.

현재 흥덕사의 금속 활자본 중 상권은 유실되고 하권 38장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동양문헌실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취암사 목판본의 경우, 상하권이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또 영광 불갑사에 소장되어 금속 활자본의 누락부분과 체계보완에 도움을 준다.

금속 활자본 직지는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 체결 후 초대 주한대리공사 꼴랭 드 쁠랑시가 각종 문화재와 함께 프랑스로 유출한다. 모리스 꾸랑이 1901년에 저술한 '조선서지' 보유 판에 직지의 일부가 게재된 것으로 보아 1900년경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직지는 1911년에 경매된 후 앙리 베베르가 보관하다 그의 유언에 따라 1950년대부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다. 그리고 1972년 '세계 도서의 해'를 맞아 서책전시회에 최초로 공개되어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다.

1985년 청주대학교박물관 발굴조사팀이 현 청주 흥덕구 운천동 866번지를 흥덕사 터로 확인한 후, 유적지 정비와 함께 청주고인쇄박물관도 개관된다. 그리고 2000년 직지의 국제 홍보를 위해 '2000청주인쇄출판박람회'를 개최, 직지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 공인을 받는다.

머나먼 타국에 백년이 넘도록 남겨진 직지가 어서 돌아오길 바란다. 그러나 직지가 머물기엔 아직은 그곳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찰을 불지르고 불교문화재를 부수고 땅속에 처박는 야만적 광신도들이 설치는 이 땅보다는 거기가 안전하지 않을까? 앞서 보도의 끝 부분이다. '또한 직지는 발음 상 파키스탄 카라코람 현지의 방언으로 '고독'을 뜻한다.' 마치 직지의 외로움을 뜻하는 듯하다.

편역 ; 성휴 스님

출처 :BCT, Arirang News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So what are you?" they asked. "I am awake."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나는 깨우쳤습니다."



When the Buddha start to wander around India shortly after his enlightenment, he came across some people who recognized him to be a very extraordinary being. They asked him, "Are you a god?" "No" he replied. "Are you a reincarnation of god?" "No" he replied. "Are you a wizard, then?" "No." "Well, are you a curer?" "No." "So what are you?" they asked, being very perplexed. "I am awake." He never claimed that he was a god, the child of a god or even the messenger from a god. He was a man who perfected himself and taught that if we follow his example, we could perfect ourselves also.

깨우침에 이른 붓다께서 인도를 돌아다니실 때다. 그분이 특별한 존재임을 알아차린 이들이 물었다. "당신은 신이시오?" 붓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람의 육신으로 나타난 신이요?" "아니요." "하면 혹시 기적을 행하는 마법사요?" "아니요." "그럼 병을 고쳐주는 의원이요?" "아니요." 은근히 짜증이 난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나는 깨우쳤습니다." 붓다는 자신이 신이나 신의 아들이라 우기지 않았고 신의 메신저로 나서지도 않았다. 붓다 세존은 스스로 깨우쳐 자아를 완성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를 본받으면 누구든 스스로 완성된 자아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친다.

번안:성휴 스님, 그림:이태수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앨리스 워커 ❺

흑인여성 애환을 소설로

소설로 남성·백인우월 근본오류 지적
1985년 영화·2005년 뮤지컬로 탄생

앨리스 워커는 1982년 발표한 <컬러 퍼플>로 소설부문에서 퓰리처상을 받는다. 금세기 미국흑인의 삶을 이해할 또 다른 계기가 된 이 작품은 그 사회의 하류층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짓눌린 흑인 여성의 애환을 그렸다. 그녀는 이 작품으로 일약 영예와 명성을 거머쥔 스타로 떠오른다. 그러나 지나친 편견과 왜곡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피할 수 없었다. 게다가 지나치게 노골적인 표현으로 인해 검열의 대상이 되고 전 미국도서관협회가 선정한 최고 도발적인 서적 100 권 중 18위에 오른다. 서간체 형식의 컬러 퍼플은 그 폭발적인 인기가 우리나라까지 미친 작품이다. 간단히 줄거리를 통해 그녀의 작품세계를 잠시 스쳐보기로 한다.

생김새나 하는 짓이나 죄다 순하고 어수룩한 흑인소녀 셀리는 열네 살 때 의붓아비에 당하여 아이를 둘이나 낳는다. 그러나 의붓아비는 그들을 어느 목사부부에게 줘버린다. 천성이 고운 그녀는 여동생 네티랑 내내 함께 살고 싶지만 의붓아비는 이제 네티마저 집적댄다. 그는 앨버트란 중늙은이가 동생 네티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너무 어리다며 그 대신 셀리를 보내버린다. 억지 결혼을 당한 셀리는 앨버트 전처 아이들의 구박에다 남편의 손찌검으로 만신창이가 된다. 그러나 티 없이 맑은 넋을 지닌 그녀는 늘 이웃들을 돌보고 감싸준다.

어느 날 목사의 딸이자 떠돌이 가수인 셕이 공연을 왔다가 몸이 아프자 앨버트는 그녀를 집에 데려와 돌봐주더니 냉큼 잠자리도 함께한다. 하지만 셀리는 셕을 증오하고 질투하기보다는 되레 따스하게 보살핀다. 그녀의 가없는 보살행에 감동한 셕은 셀리가 새 삶에 대한 눈을 뜨도록 돕는다. 어느덧 그녀들 사이엔 동지애와 비슷한 양성애(兩性愛)가 싹이 튼다. 그들은 앨버트가 없는 틈에 집안을 뒤져 그가 감춰둔 동생 네티의 오래된 편지를 찾아낸다. 그 편지에서 셀리는 자기 아이들이 다 살아남아 네티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소식을 수십 년 동안 숨겨온 앨버트에 대한 분노를 삭이며 그녀는 셕과 함께 새 삶을 찾아 떠난다. 셀리가 가정을 버리자 앨버트의 생활은 이내 엉망이 된다. 한편, 셕은 자신의 방탕을 혐오하던 목사인 아버지를 찾아가 묵은 앙금을 떨어낸다. 그리고 뒤늦게 자신의 죄업을 뉘우친 앨버트는 아프리카에 가 있는 셀리의 자식들이 미국에 돌아오도록 돕는다.

워너브라더즈가 35만 달러로 저작권을 사들여 1985년 스필버그 감독이 같은 제목으로 만든 영화에서 우피 골드버그는 주인공 셀리 역으로 열연을 펼친다. 이 영화는 그해 최고의 명화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고 아카데미상에서도 11개 부문에 걸쳐 시상후보에 오르나 단 하나도 수상하지 못해 논란이 된다. 게다가 흑인남성을 가혹하고 비열하게 묘사했다 하여 격분을 불러일으킨다.

그야 어떻든 무려 20년 뒤인 2005년 오프라 윈프리가 이 작품을 뮤지컬로 제작하여 브로드웨이에서 대성공을 거둔다. 그리고 2006년 외곽평론가상의 5개 부문의 수상후보로 지명되고 토니상의 최고여자주연상도 수상한다.

컬러 퍼플은 지배계급의 전통적 상징이다. 보랏빛 지배층이 피지배층에 가하는 무언의 위압을 암시하는 동시에 금기와 제약의 의미도 지닌다. 앨리스 워커는 소설 <컬러 퍼플>을 통해 남성우선, 백인우월이라는 가소로운 근본오류를 지적한다. 그녀는 컬러 퍼플이란 이름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온 구체계(ancien regime)에 일격을 가한 현대문학혁명의 전위다. '신마저 남성이고 백인이라니? 하하, 그건 또 누가 정한 거죠?'

성휴 스님

'수치 속에 스러진 붓다' 수상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개최된 미국의 제4회 트레버스시티 영화제에서 이란이 출품한 '수치 속에 스러진 붓다'가 창립자상을 수상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제작자 마이크 무어가 발기한 이 영화제는 비영리자선교육활동의 일환이다.

20세의 젊은 감독인 하나 마흐말바프는 처절한 전쟁 후유증과 빈곤에 허덕이는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바미안의 거대 석불들이 탈레반에 파괴되어 텅 빈 폐허만 남겨진 화면을 통해 붓다의 눈에 비친 인간의 비애와 무명을 투영했다.

출처: PTV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실전교육으로 책임 전수함
▷ 교육시간 : 화요일 – 일요일(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까지)
▷ 특별교육 : 시간,요일 조절가능 ▷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제 1기 단전호흡 · 명상 · 최면 수강생 모집
▷개강 : 2008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지장사 법당
매주(수) 오전 10시 – 11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9시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

"똥막대기를 마음껏 물어뜯어라"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운문 선사께서 해제를 하고 만행 온 납자에게 물었습니다.

"여름 결제 때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형주의 남쪽에서 금(金)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나누어 가졌느냐?"

납자가 양손을 펴보이자 말씀했습니다.

"기와조각이구나."

"스님께선 별 것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마른똥막대기(乾屎橛)를 마음대로 물어뜯어라"

이 납자는 결제동안 열심히 정진하여 공부 좀 한 것이 금덩어리인줄 알고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만행길에 운문산에 들러 자랑스럽게 운문 선사에게 내보였는데 그것이 기와조각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 방법을 물었더니 '마른똥막대기를 물어뜯어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운문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여하시불(如何是佛)이니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간시궐(乾屎橛)이니라. 마른똥막대기이니라."

똥은 하찮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찮은 것 인줄 모를 때는 그것이 금 인줄 압니다. 똥도 누렇고 금도 누렇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금인 줄 알았는데 똥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금이지만 법에 대한 집착은 똥입니다. 그러나 안목이 열리지 않는 범부승은 '법'과 '법에 대한 집착'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똥과 금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똥과 금은 둘이 아닙니다. 번뇌의 똥을 치우면 보리의 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림의 해제대중들은 만행길에 선지식을 만나거든 내가 지난 결제동안 공부한 것이 금인지 똥인지를 제대로 점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제길이 또 다른 결제길이 되는 것입니다.

撒屎撒尿渾閑事 똥 오줌 뿌리는 짓거리는 모두가 부질없는 일이로다.
浩浩誰分嗅與香 이는 끝이 없거늘 누가 향기와 악취를 구별해 내겠는가.

"'오매일여'는 선수행 기본, 논쟁 무의미"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전략) 요즈음 불교학자들 사이에 성철 스님의 오매일여(寤寐一如)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禪門正路)>란 책에서 오매일여(寤寐一如)와 동정일여(動靜一如)를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오매일여란 잠잘 때에도 깨어 있을 때처럼 수행의 자세를 유지해야하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고, 동정일여란 일상속에서도 화두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선수행의 기본자세를 제시한 말씀으로 이 말이 논쟁거리가 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이 만든 기호로 사물을 개념화하여 인식과 사고의 소자(素資)를 제공할 뿐 언어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략)

불교의 궁극적 존재가치는 인생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여 올바른 지견을 열고 모든 중생들의 불성(사무량심)을 현발케 하여 바르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욕만을 탐하여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세속의 현상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서곡(私曲)일뿐이지요.

이들의 그릇된 가치관을 교정하여 참으로 잘사는 길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수행자가 해야 할 몫입니다.

이제 납자여러분은 이 법회를 마치고 나면 발양(鉢囊)을 걸머지고 만행에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행을 하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처불택(住處不擇), 동정일여(動靜一如)의 수행자세를 잃지 않고 응자회려(應自誨勵), 법지진덕(法持進德)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세상(世上)속으로 들어가 발고여락(拔苦與樂)의 보살행을 실천하여 중생과 고통을 함께 하는 살아있는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불보살의 본회(本懷)요. 출가수행자가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부디 명심하여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見色聞聲是本心 빛을 보고 소리듣는 것 이것이 나의 본래 마음이거늘,
將金何必更求金 금을 갖고 있으면서 왜 또 금을 찾는가.
波無異水君知否 파도와 물이 다르지 않음을 그대는 아는가.
身是全心莫外尋 몸이 바로 마음이니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마시오.

"아만 끊고 남의 잘잘못 말하지 말라"



보성 스님 조계총림 방장

오늘은 하안거 해제(三夏安居解制) 날이다. 지난 90일(九十日)이 정중공부(靜中工夫)를 위주(爲主)로 한 기간(期間)이라면 앞으로 90일(九十日) 동안은 동중공부(動中工夫)를 위주(爲主)로 하는 기간(期間)일 뿐 공부(工夫)에 간단(間斷)이 있어서는 안된다.

學道先須絶我慢
處衆莫論他長短
我慢工夫養生死
處衆是非油入火
永斷我慢絶是非
成就人天大丈夫

도를 배우려거든 먼저 아만부터 끊고 대중에 살면서 남의 잘잘못을 말하지 말라.

아만을 가지고 공부하면 생사만 더하고 대중에 살면서 시비를 일삼으면 기름을 지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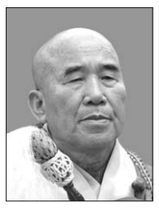
아만을 아주 끊고 시비를 하지 않으면 천상인간의 대장부를 꼭 이룰 것이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방해한다지만 우리는 상대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외도들이 욕하거나 때려도 묵빈 대치하라고 하시지 안했던가. 불법은 다른 종교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사자몸을 몸속에서 벌레가 생겨서 먹어버리듯 불법도 불법안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다.

魚行水濁
鳥飛毛落
고기가 움직이면 물이 흐려지고
새가 날면 털이 떨어지느니라.

주장(柱杖)을 한번 구르고 하좌(下坐)하다.

"오고 감이 없는 참 주인공 바로 알라"



원명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元來這箇非心色
空說色心惱後人
莫問此時心與色
好看家裡舊主人

원래 이것은 마음과 경계가 아닌데 부질없이 경계와 마음을 말해 뒷사람을 괴롭히네.
마음과 경계를 묻지 말고 자기집 옛 주인을 볼지니라.

4월 보름에 결제를 하여 7월 보름인 오늘 해제를 하는데 대중들이 모였다가 흩어짐에, 봄을 보내고 가을 문턱에 이르렀으니 신구(新舊)가 교차합니다.

그러나 삼세에 걸림 없고 시방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 이 한 물건은 묶인 것인가 풀린 것인가? 화두를 짊어진 납자가 모였다 헤어지는 것에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어찌 수행납자라 하겠습니까?

수행자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중략)

오고 감이 없는 참 주인공을 어찌 이 자리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시 문 밖을 나서는 것입니까?

나가는 걸음을 안으로 되돌려 한번 바라보세요.

萬里江山毘盧臥
百草頭上觀音舞
山山水水說無生
花花草草放自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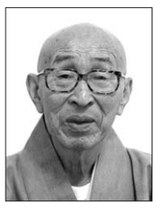
끝없이 펼쳐진 강산은 비로자나가 누워있는 것이요 바람에 흔들리는 온갖 풀 끝은 관세음의 춤사위로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무생의 도리를 성하고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광명을 놓고 있구나.

오늘 해제가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되었다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분사 깨닫기 위한 발심과 노력 해야"



지종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무더운 날씨에 삼하(三夏) 안거(安居)를 지내느라고 모두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모름지기 결제(決制)와 해제(解制)가 분명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결제와 해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자는 진정한 결제와 해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진정한 결제는 일체 모든 세간 잡사(雜事)로 향하는 마음을 끊고, 본분사(本分事)를 깨닫기 위한 발심과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제는 무엇입니까.

(중략)

수행자들은 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방편 수행을 닦을 수 있겠으나, 옛부터 조사스님들께서 오직 화두 정진을 가장 수승한 수행법으로 제시하셨으니, 일체시 일체처에서 오로지 화두 일념으로 몰입해 들어가야 합니다. 화두와 함께 살고 화두와 함께 죽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 선 수행자들은 화두를 드는 때가 결제요, 화두를 타파하여 확철대오하는 때가 진정한 해제입니다.

오늘 해제 했다고 해서, 마음 풀어 놓고 화두는 십만팔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린다면, 어느 때나 여러분들 자신을 삼계(三界)의 속박으로부터 해제시킬 기약이 있겠습니까.

요즘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이러한 때에 임해서도 정진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니, 잡스런 세간사(世間事)는 접어두고 오로지 향상일로(向上一路)하는 대장부가 되어 삼계(三界)에 독보(獨步)하시길 바랍니다.

千計萬思量 모든 계교와 사량분별이
紅爐一点雪 용광로에 한점 눈이요,
泥牛水上行 진흙 소 물 위로 달리고
大地虛空裂 하늘 땅이 갈라지도다.

봉 행

불기 2552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헌종법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종도수련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불기 2552년 9월 1일 ~ 9월 3일(음 8월 2일 - 8월 4일)
◆입 재 : 불기2552년 9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입소등록 당일 오후 3시까지 완료요망)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세면도구
◆장 소 : 다보수련원 043)833-7789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92-10)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02)443-5078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2)952-1074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 대한불교대승종 각지방종무원
대한불교대승종 중앙종의회 · 대한불교대승종 전국신도회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암 혜심 합장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8월 20일 수요일반 , 22일 금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박재완 기자의

사찰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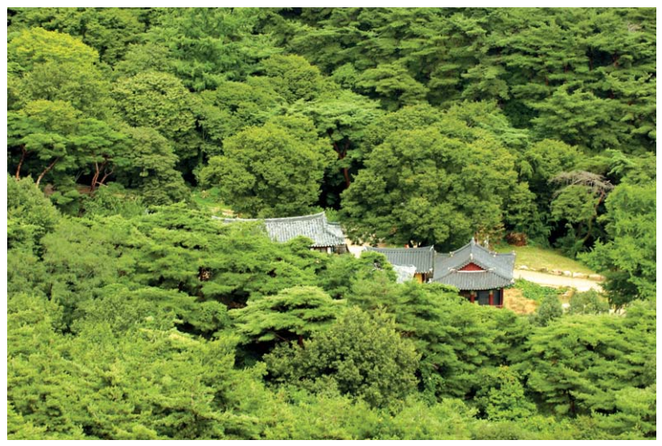
❽ 창녕 관룡사

숲속의 나루 관룡사(觀龍寺)

같은 자리서 날 기다리는 부처님









오늘도 용선(龍船)은 중생을 기다리고 뱃머리에 앉은 부처님의 눈에는 저 언덕이 보인다.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간 화왕산 숲 속에 관룡사가 촉촉이 젖어있다.
일주문 대신 서있는 작은 석문(石門)이 비를 털며 길을 열어준다. 이어지는 돌담길이 두고 온 길을 잊게 하고 도량엔 비에 씻긴 당우(堂宇)들이 단정하게 서있다.

도량 너머로 용선대(龍船臺)가 보인다.
그 곳에서 오랜 세월 부처님이 중생을 기다리고 있다. 오붓한 숲길을 지나 마지막 바위를 짚고 배에 오르듯 오르면 절벽 끝에 앉은 부처님이 손을 내민다.
부처님의 시선 끝에는 바람 한 점 머물다 가고, 바람 지나간 허공 끝엔 하얀 낮달이 나와 있다.

도량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온다. 저녁 공양이다. 촉촉했던 도량은 보송하게 다 말랐다.
저녁 공양을 마친 스님이 도량을 걷다 약사전 석탑 앞에 앉는다.
그리운 사람처럼 석탑이 스님 앞에 서고 그림자처럼 앉은 스님은 센 머리 고르듯 석탑 앞의 잡초를 고른다.

까치가 범종루 난간 위에 앉는다. 종소리가 숲에 번지고 까치는 용선대로 날아간다.
중생이 모두 모이는 날, 용선은 부처님의 시선을 따라 저 언덕으로 갈 것이다.
저녁 햇살을 받은 까치의 눈동자가 석탑을 바라보고, 잡초를 고르던 스님은 고개 들어 삼층석탑이 된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 상 불 소 영
장 량 장 가 천
의 식 사 용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선재동자들의 '깨어있는 휴식'

금산사·광주불교환경연대 여름생태학교 열어

방학을 맞은 선재동자들의 여름 잔치가 김제 금산사와 화순 쌍봉사에서 잇따라 열렸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8월 1~3일 '여름 어린이 캠프'를 개최했다. 광주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8월 8~10일 화순 쌍봉사에서 '별빛 따라 반딧불 따라'라는 제목의 제1회 어린이 여름생태학교를 열었다.

금산사 어린이 캠프에 동참한 42명의 선재동자들은 입재식 후 대법성 문화유산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요가를 배웠다. 선재동자들은 금산사 마당에 직접 텐트를 치고 별자리 탐험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은 새벽 도량석에 일어나 우주의 기운을 느끼는 명상으로 시작됐다.

선재동자들은 마당을 쓸며 마음속의 삿된 생각도 쓸어 냈다. 모악산 자생차밭 답사와 계곡탐험 후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고 대나무통, 나무토막, 양동이, 페트병 등을 두드리는 난타 공연도 체험했다. 간단한 불교교리를 배워보는 불교 골든벨을 울려라, '판소리 배우기' '목탁 치며 집중력테스트' '선체조 배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부모님께 마음에 담은 편지를 쓰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성규(13 · 전주서신초 6)군은 "작년부터 참여하고 싶었다. 올해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게 됐지만 꼭 참가하고 싶어 부모님을 설득해 동참했다. 절마당 텐트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 찾던 밤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캠프 지도법사 일감 스님은 "어린이들이 잠시라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공동체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사회 적응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화순 쌍봉사에서 열린 여름생태학교에는 35명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여했다. 사찰예절과 쌍봉사 보물찾기 발우공양의 의미를 생각하는 빈그릇 알기, 새벽 숲길 명상, 단청장과 함께한 기와에 그림그리기, 생태체험, 미니트레킹 등으로 진행됐다.

화순 이불재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불교소설가 정찬주씨의 인도명상 이야기는 참가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화순 쌍봉사에서 열린 여름 생태학교에서 '기와에 그림그리기' 중인 어린이들

행사를 준비한 임상숙 사무처장(광주불교환경연대)은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계기를 주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성준(9 · 광주송원초 2)군은 "평소 하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환경보호, 환경의 소중함, 그리고 빈 그릇 운동을 알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naver.com

전북 완주 송광사 백련정 현판식

8월 1일 사대부중 200여명 '축하'



8월 1일 연지 불사를 마치고 현판법회를 봉행한 완주 송광사 백련정 모습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는 8월 1일 경내 연지(蓮池) 불사를 마치고 백련정(白蓮亭) 현판법회를 봉행했다.

혜광 스님(수원 팔달사 회주)을 비롯해 김완주 도지사, 임정엽 완주군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도영 스님은 "불자들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해 백련정을 지었다. 일체중생이 백련처럼 청순한 영혼을 간직하고 일심으로 부처님 삶을 지향해 나가는 수행의 터, 깨침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자"고 법문했다. 현판식 후에는 조선 마지막 황손이자 가수인 이석씨 등이 공연해 흥을 더했다.

한편 송광사는 2009년부터 대규모 백련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식 맞춤 포교 방편 고민해야"

군산 동국사 김응철 교수 초청법회 봉행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주지 종상)는 8월 7일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를 초청해 '사찰 신도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김응철 교수는 "일제시대 일본 조동종의 포교소로 일본불교의 한국 진출을 위해 창건된 사찰임을 감안해 동국사는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학습장으로 활용해야한다"며, 일본 신도조직 기본인 단가제도 응용을 제시했다.

군산 포교의 문제점 진단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정법을 구현하는 조계종 소속 사찰 부족, 신도 교육, 조직화 미흡, 불교 교육기관 부재, 포교 전문가 및 스님 부족 등을 군산 포교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유능한 스님들의 배치 및 포교훈련 필요성과 일요법회 등 법회운영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김응철 교수는 "사찰의 신행활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사찰 신도 기본교육, 불교대학 설립 운영, 신도 교육 내용과 방법 개발, 단가 조직을 활용한 사찰 신도조직화 추진, 법등장, 법륜장, 법회장 등 조직 체계 구축, 교육과 훈련을 통한 핵심신도, 재가불자의 역량 강화 방안 모색 등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김응철 교수는 "효과적인 포교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종교 욕구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청룡사 재가불자 '포살법회'

조계종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법회가 차분히 마무리 되는 요즘, 김제 청룡사(주지 월정)에서 재가불자 대상의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8월 2일 열린 포살법회에는 가족단위로 동참한 40여명 불자들이 동참해 조계종에서 배포한 <범망경보살계본>을 갖고 포살법회에 동참했다.

한편 불자들은 포살법회 후 1080배를 시작으로 좌선 등 철야정진해 포살의 의미를 더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고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무공 스님

"보살의 손길로 보살필 터"



삼복 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복지관 이곳저곳을 살피느라 1인 5역으로 분주한 고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무공 스님을 만났다.

고창종합사회복지관은 불교복지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전북에서도 오지라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농촌 소읍에 위치한다. 전북에서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과 함께 불교계가 운영하는 단 두 곳밖에 없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개관 1년도 안돼 일평균 이용인원이 300명이 넘는 알찬 복지관이 될 수 있던 것은 무공 스님의 보이지 않는 원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불보살님들의 자애로운 손길로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가족, 아동과 청소년, 여성, 노인들의 벗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복지관의 운영 방침을 이야기하는 무공 스님의 목소리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스님은 서울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1978년 여고 졸업 후 바로 청도 운문사로 출가했다. 무공 스님은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유아교육학 석사를,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아동복지학 박사를 졸업한 엘리트 스님이다. 대구 불은사 주지와 경주 미소암 주지 소임을 맡았다. 강원에서 후학 지도를 바라는 은사스님을 설득해 사회복지사업을 택했다.

스님의 남다른 자비행과 원력으로 비구니스님으로는 처음 서울 삼전복지관 관장을 역임하고 6년간 대구불교방송(BBS) 신행상담을 진행했다. 경북 불교대학 상임법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아동학과 겸임교수도 지냈다.

아동학 전문가인 스님은 서울 삼전복지관에서 어린이 요가, 어린이 명상, 심리치료 상담, 치료놀이 수업, 놀이치료실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스님은 사찰음식의 대가이기도 하다. 운문사 출가 시절부터 체계적인 사찰음식을 익힌 스님은 대구에서는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원 원장을 맡아 사찰음식 전시회를 개최했다. 무공 스님이 사찰음식 전문가라는 소문에 고창복지관의 식당은 늘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앞아서 기다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찾아가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인구가 대부분인 지역 실정을 감안해 이동에 어려움 있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매듭, 자수, 멍석, 옹기 등 공예전을 기획해 수익을 얻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연계해 학교와 사찰, 지역사회가 함께 한 공동복지 서비스를 실현중이다.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진이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주기적으로 실천하고 불교문화를 지역 곳곳에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관 될 것입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모 불교문화원 범음·범패, 불화, 단청 신입생 집

제방의 사암에서 수행정진과 전법도생에 여념이 없으신 출가 수행승과 재가불자여러분들의 법체청안하옵기를 축수기원 합니다.
금번 본 불교문화원에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50호인 영산재 의식과 48호인 불화, 단청 부문의 강좌를 개설하여 뜻있는 스님들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을 모실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범음범패과≫ 1년과정 (4학기제)
- 초급반 : 사물, 도량석, 조석예불및 종성, 각종불공
- 중급반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중단권공, 관음시식

※ 공 통
소 리 : 종성, 거불, 복청게, 천수태징타법, 도량게, 헌좌게, 가영, 향수나열
바 라 : 요잡, 천수바라, 사다라니, 회의재바라
나비춤 : 도량게, 다게

- 개강일시 : 2008년 9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매주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수업)
- 수 업 료 : 입학금 10만원, 매학기(3개월) 30만원
- 특 전 : 매년 1~2차례 봉원사 영산재 보유자 초청특강, 장학생 수업료 면제, 수료후 각종 행사 지원알선
- 강 사 : 준범스님(봉원사 옥천범음대 출신)

≪불화,단청과≫
- 초 급 반 : 불교기초이론, 시왕초 등선긋기, 뎃생실기, 문양그리기, 채색법
- 중 급 반 : 시왕, 여래, 보살, 사천왕 그리기 완성
- 고 급 반 : 각종 소품 및 탱화제작
- 연 구 반 : 단청문양, 불상개금, 달마도연구
- 개강일시 : 연중 수시모집
- 수 업 료 : 입학금 5만원, 매월 5만원
- 특 전 : 신심돈독한 성적우수자는 전문가로 양성.
- 강 사 : 영범스님(30년 경력의 불화작가)
- 다음카페 : '불화교실' 운영

한국불교태고종대구교구 종무원 부설 불교문화원
문의처 053)622-3702 / H·P 011-814-0648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법사과정 학생 모집

불교지도자 양성 및 포교를 목적으로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교 과 목	불교학과(기본)	풍수학과(선택)	역리학과(선택)
내 용	교리, 의식, 한문	풍수학 이론 및 실제	역리학 이론 및 실제
교육기간	1-2년	6개월-1년	6개월-1년
교 수 진	자광 스님 서진아 스님	모성학 선생 외 2명	청봉선생 외 2명
비 고	기초교리 불교학개론 제반의식	도선국사 이후 풍수대가로서 실제 입증 직강 및 현지 답사	30년 경력 정통 비법 전수

◆지방인을 위한 통신반 운영
◆전 형 : 서류접수(주민등본 및 이력서) 및 면접
◆개 강 일 : 2008년 9월 8일 (월요일)
◆강의시간 : 월·목 오후 1시 ~ 6시까지 (학과별 2시간)
◆문 의 : 031)448-0888~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 사무소 옆(안양역과 명학역 중간)

安養 淨土寺 부설
大 宇 宙 佛 法 師 大 學

선재동자들의 '깨어있는 휴식'

금산사·광주불교환경연대 여름생태학교 열어

방학을 맞은 선재동자들의 여름 잔치가 김제 금산사와 화순 쌍봉사에서 잇따라 열렸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8월 1~3일 '여름 어린이 캠프'를 개최했다. 광주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8월 8~10일 화순 쌍봉사에서 '별빛 따라 반딧불 따라'라는 제목의 제1회 어린이 여름생태학교를 열었다.

금산사 어린이 캠프에 동참한 42명의 선재동자들은 입재식 후 대법성 문화유산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요가를 배웠다. 선재동자들은 금산사 마당에 직접 텐트를 치고 별자리 탐험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은 새벽 도량석에 일어나 우주의 기운을 느끼는 명상으로 시작됐다.

선재동자들은 마당을 쓸며 마음속의 삿된 생각도 쓸어 냈다. 모악산 자생차밭 답사와 계곡탐험 후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고 대나무통, 나무토막, 양동이, 페트병 등을 두드리는 난타 공연도 체험했다. 간단한 불교교리를 배워보는 불교 골든벨을 울려라, '판소리 배우기' '목탁 치며 집중력테스트' '선체조 배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부모님께 마음에 담은 편지를 쓰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성규(13 · 전주서신초 6)군은 "작년부터 참여하고 싶었다. 올해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게 됐지만 꼭 참가하고 싶어 부모님을 설득해 동참했다. 절마당 텐트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 찾던 밤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캠프 지도법사 일감 스님은 "어린이들이 잠시라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공동체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사회 적응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화순 쌍봉사에서 열린 여름생태학교에는 35명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여했다. 사찰예절과 쌍봉사 보물찾기 발우공양의 의미를 생각하는 빈그릇 알기, 새벽 숲길 명상, 단청장과 함께한 기와에 그림그리기, 생태체험, 미니트레킹 등으로 진행됐다.

화순 이불재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불교소설가 정찬주씨의 인도명상 이야기는 참가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화순 쌍봉사에서 열린 여름 생태학교에서 '기와에 그림그리기' 중인 어린이들

행사를 준비한 임상숙 사무처장(광주불교환경연대)은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계기를 주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성준(9 · 광주송원초 2)군은 "평소 하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환경보호, 환경의 소중함, 그리고 빈 그릇 운동을 알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naver.com

전북 완주 송광사 백련정 현판식

8월 1일 사대부중 200여명 '축하'



8월 1일 연지 불사를 마치고 현판법회를 봉행한 완주 송광사 백련정 모습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는 8월 1일 경내 연지(蓮池) 불사를 마치고 백련정(白蓮亭) 현판법회를 봉행했다.

혜광 스님(수원 팔달사 회주)을 비롯해 김완주 도지사, 임정엽 완주군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도영 스님은 "불자들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해 백련정을 지었다. 일체중생이 백련처럼 청순한 영혼을 간직하고 일심으로 부처님 삶을 지향해 나가는 수행의 터, 깨침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자"고 법문했다. 현판식 후에는 조선 마지막 황손이자 가수인 이석씨 등이 공연해 흥을 더했다.

한편 송광사는 2009년부터 대규모 백련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식 맞춤 포교 방편 고민해야"

군산 동국사 김응철 교수 초청법회 봉행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주지 종상)는 8월 7일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를 초청해 '사찰 신도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김응철 교수는 "일제시대 일본 조동종의 포교소로 일본불교의 한국 진출을 위해 창건된 사찰임을 감안해 동국사는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학습장으로 활용해야한다"며, 일본 신도조직 기본인 단가제도 응용을 제시했다.

군산 포교의 문제점 진단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정법을 구현하는 조계종 소속 사찰 부족, 신도 교육, 조직화 미흡, 불교 교육기관 부재, 포교 전문가 및 스님 부족 등을 군산 포교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유능한 스님들의 배치 및 포교훈련 필요성과 일요법회 등 법회운영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김응철 교수는 "사찰의 신행활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사찰 신도 기본교육, 불교대학 설립 운영, 신도 교육 내용과 방법 개발, 단가 조직을 활용한 사찰 신도조직화 추진, 법등장, 법륜장, 법회장 등 조직 체계 구축, 교육과 훈련을 통한 핵심신도, 재가불자의 역량 강화 방안 모색 등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김응철 교수는 "효과적인 포교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종교 욕구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청룡사 재가불자 '포살법회'

조계종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법회가 차분히 마무리 되는 요즘, 김제 청룡사(주지 월정)에서 재가불자 대상의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8월 2일 열린 포살법회에는 가족단위로 동참한 40여명 불자들이 동참해 조계종에서 배포한 <범망경보살계본>을 갖고 포살법회에 동참했다.

한편 불자들은 포살법회 후 1080배를 시작으로 좌선 등 철야정진해 포살의 의미를 더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고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무공 스님

"보살의 손길로 보살필 터"



삼복 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복지관 이곳저곳을 살피느라 1인 5역으로 분주한 고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무공 스님을 만났다.

고창종합사회복지관은 불교복지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전북에서도 오지라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농촌 소읍에 위치한다. 전북에서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과 함께 불교계가 운영하는 단 두 곳밖에 없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개관 1년도 안돼 일평균 이용인원이 300명이 넘는 알찬 복지관이 될 수 있던 것은 무공 스님의 보이지 않는 원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불보살님들의 자애로운 손길로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가족, 아동과 청소년, 여성, 노인들의 벗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복지관의 운영 방침을 이야기하는 무공 스님의 목소리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스님은 서울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1978년 여고 졸업 후 바로 청도 운문사로 출가했다. 무공 스님은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유아교육학 석사를,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아동복지학 박사를 졸업한 엘리트 스님이다. 대구 불은사 주지와 경주 미소암 주지 소임을 맡았다. 강원에서 후학 지도를 바라는 은사스님을 설득해 사회복지사업을 택했다.

스님의 남다른 자비행과 원력으로 비구니스님으로는 처음 서울 삼전복지관 관장을 역임하고 6년간 대구불교방송(BBS) 신행상담을 진행했다. 경북 불교대학 상임법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아동학과 겸임교수도 지냈다.

아동학 전문가인 스님은 서울 삼전복지관에서 어린이 요가, 어린이 명상, 심리치료 상담, 치료놀이 수업, 놀이치료실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스님은 사찰음식의 대가이기도 하다. 운문사 출가 시절부터 체계적인 사찰음식을 익힌 스님은 대구에서는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원 원장을 맡아 사찰음식 전시회를 개최했다. 무공 스님이 사찰음식 전문가라는 소문에 고창복지관의 식당은 늘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앞아서 기다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찾아가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인구가 대부분인 지역 실정을 감안해 이동에 어려움 있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매듭, 자수, 멍석, 옹기 등 공예전을 기획해 수익을 얻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연계해 학교와 사찰, 지역사회가 함께 한 공동복지 서비스를 실현중이다.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진이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주기적으로 실천하고 불교문화를 지역 곳곳에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관 될 것입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모 불교문화원 범음·범패, 불화, 단청 신입생 집

제방의 사암에서 수행정진과 전법도생에 여념이 없으신 출가 수행승과 재가불자여러분들의 법체청안하옵기를 축수기원 합니다.
금번 본 불교문화원에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50호인 영산재 의식과 48호인 불화, 단청 부문의 강좌를 개설하여 뜻있는 스님들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을 모실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범음범패과≫ 1년과정 (4학기제)
- 초급반 : 사물, 도량석, 조석예불및 종성, 각종불공
- 중급반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중단권공, 관음시식

※ 공 통
소 리 : 종성, 거불, 복청게, 천수태징타법, 도량게, 헌좌게, 가영, 향수나열
바 라 : 요잡, 천수바라, 사다라니, 회의재바라
나비춤 : 도량게, 다게

- 개강일시 : 2008년 9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매주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수업)
- 수 업 료 : 입학금 10만원, 매학기(3개월) 30만원
- 특 전 : 매년 1~2차례 봉원사 영산재 보유자 초청특강, 장학생 수업료 면제, 수료후 각종 행사 지원알선
- 강 사 : 준범스님(봉원사 옥천범음대 출신)

≪불화,단청과≫
- 초 급 반 : 불교기초이론, 시왕초 등선긋기, 뎃생실기, 문양그리기, 채색법
- 중 급 반 : 시왕, 여래, 보살, 사천왕 그리기 완성
- 고 급 반 : 각종 소품 및 탱화제작
- 연 구 반 : 단청문양, 불상개금, 달마도연구
- 개강일시 : 연중 수시모집
- 수 업 료 : 입학금 5만원, 매월 5만원
- 특 전 : 신심돈독한 성적우수자는 전문가로 양성.
- 강 사 : 영범스님(30년 경력의 불화작가)
- 다음카페 : '불화교실' 운영

한국불교태고종대구교구 종무원 부설 불교문화원
문의처 053)622-3702 / H·P 011-814-0648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법사과정 학생 모집

불교지도자 양성 및 포교를 목적으로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교 과 목	불교학과(기본)	풍수학과(선택)	역리학과(선택)
내 용	교리, 의식, 한문	풍수학 이론 및 실제	역리학 이론 및 실제
교육기간	1-2년	6개월-1년	6개월-1년
교 수 진	자광 스님 서진아 스님	모성학 선생 외 2명	청봉선생 외 2명
비 고	기초교리 불교학개론 제반의식	도선국사 이후 풍수대가로서 실제 입증 직강 및 현지 답사	30년 경력 정통 비법 전수

◆지방인을 위한 통신반 운영
◆전 형 : 서류접수(주민등본 및 이력서) 및 면접
◆개 강 일 : 2008년 9월 8일 (월요일)
◆강의시간 : 월·목 오후 1시 ~ 6시까지 (학과별 2시간)
◆문 의 : 031)448-0888~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 사무소 옆(안양역과 명학역 중간)

安養 淨土寺 부설
大 宇 宙 佛 法 師 大 學

군민에 납골당 무료 분양

금산 일불사, 무연고 영가 3만위도 봉안

충남 금산군 군민에게 납골당을 무료로 분양해 주고 있는 사찰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곳은 바로 일불사(주지 성진)다.

일불사에서 본격적으로 납골시설을 운영하게 된 것은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전부터 주지 성진 스님은 납골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설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스님은 납골시설을 혐오하는 지역이기주의가 장묘문화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선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해 왔다.

납골당을 운영하기까지 성진 스님은 금산군민과 하루가 멀다 하고 부딪쳐 왔다. 하지만 납골시설을 유치한 후 스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역 주민에게 납골시설을 무료로 분양해 주는 것이었다.

성진 스님은 "아무래도 납골당이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전까지 많은 금산군민들이 반대를 해 왔고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군민들이 있다"며 "하지 않아도 될 우려를 하게 만들어 너무 죄송해서 그 고통에 대한 미안함을 납골당 무료분양을 시작으로 조금씩 갚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금산군민이 신청한 납골 항아리는 약 200여 기. 일불사는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전국의 무연고 영가 납골 항아리 약 3만기를 봉안하고 있다. 앞으로 7만 여기를 더 받을 예정이다.


일불사 납골묘원 전경. 원내는 일불사 주지 성진 스님.

일불사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은 '일리지움'으로 불린다. 죽음에 대한 기존의 무겁고 어두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우리들의 인식을 바꿔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 줘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즉, 납골당은 현대의 트렌드인 '웰빙(어떻게 삶의 질을 높여 참다운 삶을 사는가)'이 '웰다잉(어떻게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고 품위있게 하느냐)'으로 변해가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 자연을 보호하면서 성묘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성진 스님은 "일불사 일리지움은 납골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는 지역단체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가족 등에게 조그만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사업이 정착이 되면 장학재단과 양로원 등을 설립할 예정이다"며 "납골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계속해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최종 목표는 금산군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효선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 공주 금강원

"모두 내 부모·스승같이"

'할머니 전문 요양원일까?'

공주 우성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공주 금강원(원장 정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다. 1993년 동학사 동문들에 의해 만들어진 금강원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이 있는 무의탁 어르신 50여명이 동고동락하고 있었다.

금강원 원장 정관 스님(연화사 주지 · 사진왼쪽)은 "노(老)스님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문들이 힘을 모아 이곳을 만들게 됐다"며 양원에 올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 쓸쓸함에 더 힘들어 한다"며 "그런 어르신들이 죽음을 편하게 맞이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함께 슬퍼할 사람, 넋을 기려줄 사람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간혹 찾아오는 할아버지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모시고 있기도 했다. 때문에 건물 내의 공간을 분리해 남녀 어르신들을 따로 모시게 돼 봉사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심리적 안정에 최선…후원자에 감사"

"스님들을 위한 전문 요양원을 이끌어갈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지 않아 현재는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원으로 꾸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강원의 소문은 자자하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찾아오는 어르신들로 인해 폐교를 개조해 사용하는 수용시설이 부족할 정도다. 법인 요양원도 아닌 이곳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정관 스님의 금강원 운영 방침 때문. 금강원 개원부터 지금까지 원장으로 지내며 '내 부모와 같이, 내 스승과 같이, 내 자식과 같이' 어르신들을 대해왔던 것이다. 매끼마다 반찬에는 고기가 들어가야 하고, 꼬박꼬박 간식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직접 염불을 도맡아 해왔다고 한다.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은 요다. 그럼에도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짜증대신 웃음이 묻어 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금강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사회단체의 후원이 없다면 어르신들이 당장 먹을 음식부터 막막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유는 어르신들이 먹는 음식의 기본 재료들을 일일이 후원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 그런데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조금씩 도움의 손길이 잦아들고 있어 운영 초기에 했던 걱정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한다.

정관 스님은 "꾸준히 금강원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할 따름이지만 여전히 봉사의 손길은 필요한 것 같다"며 "염치불구한 말이지만 금강원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 불교계의 손길이 시방세계 곳곳에 뻗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041)853-1068

손효선 기자

백련사랑 연꽃축제 개최

당진 정토사, 청소년 문화와 함께

당진 정토사(주지 선오)는 8월 2~3일 '제3회 백련사랑 연꽃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당진군과 백련영농조합법인, 당진지역아동센터, 면천면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해 '생명, 사랑, 나눔으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축제 기간 내 체험 행사를 열어 환경영화 감상을 비롯해 백련을 가공해 만든 냉면 · 밥 · 아이스크림 · 수육 · 선식 · 꽃주 · 두부 등 갖가지 음식들을 선보였다. 또한 백련발아 종묘 나눠주기, 화차, 잎차, 녹차 등의 백련 꽃차 시음과 백련 화장품 체험, 연자아트 체험 등이 많은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백련사랑 연꽃 축제와 함께 진행된 청소년 축제 '선재, 연꽃에 오르다-백련 b-boy&poppin battle vol.2'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청소년들의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 행사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비보잉, 댄스경연, UCC, 사생 및 비트박스 대회 등을 통해 불교문화와 청소년문화를 함께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오 스님은 "백련은 최상의 깨달음과 부귀, 자손창성, 영생 등의 의미를 담고 있고, 오탁의 연못을 향기로움으로 가득하게 하는 부처님의 화현이다"며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백련과 같은 자태와 향기로움을 갖게 될 것이기에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토사는 축제 개막식에서 자연친화적 환경도시를 기원하는 친환경 빈그릇 운동과 알엔비싱어, 라비아 밸리댄스 등의 초청공연도 가졌다.

손효선 기자

난계국악축제 속 불교음악 만나자

반야사 23일, 영국사 24일 불교·명상음악제


지난해 열린 영국사 산사음악제 모습.

영동지역에서 열릴 제41회 난계국악축제에서 불교음악과 명상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영동군청은 '산사에서 펼쳐지는 깨달음과 예술의 세계-산사음악제'라는 주제로 영동 반야사와 영국사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

8월 23일 오후 5시 반야사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불교 전통의식인 바라춤과 승무 등을 선보이는 '불교음악-산사음악제'다. 이날 음악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바라무와 나비무를 강의 중인 덕림 스님의 '바라춤'과 중요무형문화제 제97호 도살풀이춤의 전수자 조희열씨의 '승무' 등을 선보인다.

이어 24일 오후 5시에는 영국사에서 '명상음악-산사음악제'가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토대로 작품을 창작하는 음악극집단 '바람꽃'과 생황의 김태경, 해외에서 초청한 네팔의 민속음악 아티스트 Sur Sudha, 인도의 Mohammed Nizam & Mohammed Akram 등의 무대가 펼쳐진다.

손효선 기자

전국 교도소 수용자 효편지 공모

9월 1일~10월 1일 옥천 대성사서 접수

제3회 전국 교도소 수용자 효 편지, 수필, 신행수기 공모 및 제1회 수용자 가족들의 효 편지, 수필, 신행수기, 서예, 그림 공모전이 열린다.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 청주교도소 종교위원)는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의 '효'사상을 고취하고 가족의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 현대불교신문사를 비롯해, 한국불교신문사, BBS청주불교방송의 후원으로 9월 1일~10월 1일 작품을 공모한다.

수용자는 효 편지, 시, 신앙(불교)수기, 수필 등 갱생의 의욕이 담긴 내용을 담으면 되고, 가족은 효 편지 및 사랑의 편지, 시, 서예, 그림 등을 응모할 수 있다.

당선작 발표는 10월 15일 해당 교도(구치)소로 통보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가족들의 작품은 개별통지한다. 가작 이상의 작품은 가명을 사용하여 <길 누군가와 함께> 수필집 3권으로 출판된다. 작품은 (우)373-804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대성사로 보내면 된다. (043)732-5560

손효선 기자

대전교정련 신임회장 만청 스님 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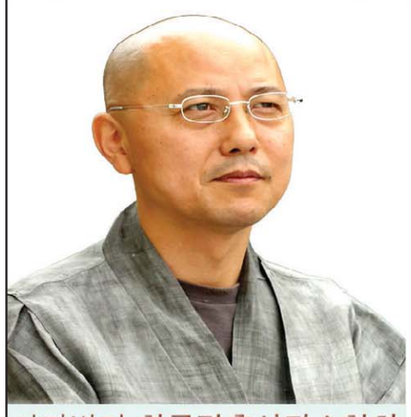
법무부산하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신임회장 만청 스님(미암사 주지) 취임식이 7월 30일 대전 국군휴양소 무궁화 홀에서 봉행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만오 스님(청송 직업훈련소), 이재윤 중앙연합회 회장, 박상도 대전사회복지연합회 회장, 이희준 원주교정연합회 회장, 고종석 대전교도소 소장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만청 스님은 취임사에서 교정 ·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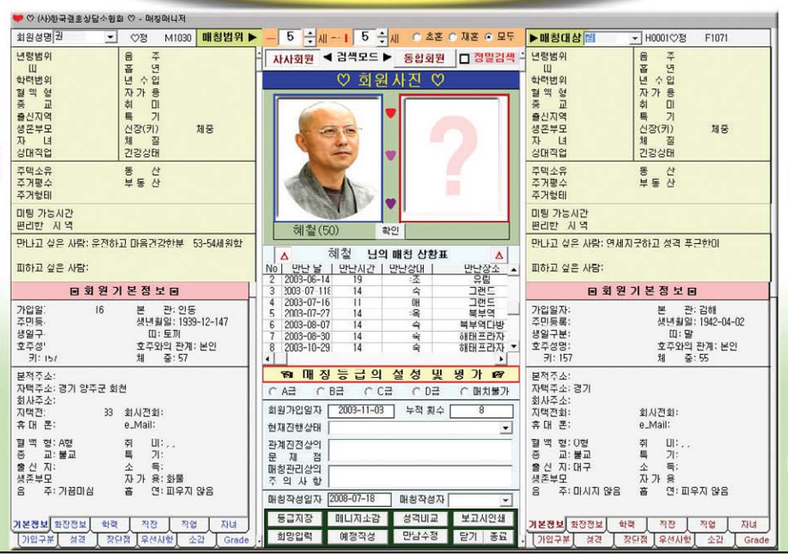
손효선 기자

(사) 한국결혼상담소협회에서 최첨단 맞선 프로그램 출시!


사단법인 한국결혼상담소협회
고문 혜철 대성사 주지스님

스님출연 ◆ TV프로그램
KBS 아침마당, VJ특공대, 무한지대Q
MBC 화제집중,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6mm 세상탐험, 손석희의 시선집중
SBS 그것이 알고싶다, 생방송 투데이
YTN 전국 네트워크
불교TV 아름다운 사람들
불교방송 BBS 초대석
충북방송 충북, 충청인

국내, 국제 결혼정보업체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WedManager 2008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프로그램의 기능
계약관리
회원관리
희망정보관리
회원매칭관리
성혼자관리
불량회원관리
주소록관리
매니저관리
홈페이지정보관리
전국결혼상담소
연결기능 등!

News !!!
매일 100개 이상의 공유 프로필이 전국에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단 한개만 입력해두셔도 맞선 요청 전화가 걸려 옵니다!!!

주문 및 전화문의
043-732-5560
010-9422-8453
뉴페이스결혼소프트웨어

불교의 역사적 이해③

8월 9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시리즈' 그 아홉 번째 강연이 열렸다. 이 날 조성택 교수(고려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중의 '자발성'에 감탄하며, 한국불교계와 인문학계의 밝은 미래를 희망했다. 실제로 매회 강연 현장에서 보여 지는 시민과 관련 전공자들의 참여 열기는 대단하다. 이번 강연은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붓다의 존재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모순어법으로 접근한 '무불시대에 붓다(Buddha in Buddhalesstime)'이다. 붓다를 찾음으로서 스스로 붓다의 서원을 세우는 시대를 논한다.



근대불교학에 대한 비판: 무불(無佛)시대의 붓다들

"붓다의 현현을 가능케 한 상제보살 눈물의 서원"

#보살이란 무엇인가?

가장 정확한 정의는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정각을 얻기 전 보살이었을 때입니다. 이 땅에 왕자로 태어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기 전 존재. 석가모니 붓다 다음의 부처인 미륵 또한 현재 보살로 불려야 옳습니다.

구원자로서 보살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생이 성불을 이룰 때까지 성불을 미룬 보살입니다. 이러한 보살들은 대승불교에서 등장하며 각각의 영역과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깨달음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즉각 얻어야 할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달라이 라마를 인터뷰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도 깨달음을 미룹니까?"라고 묻자 "깨달음을 목전에 둔 수행자가 깨달음을 미루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깨달음을 미루면 곤란하다는 의미입니다.

문화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 변화합니다. 문화의 주체적 수용이라고 하죠. 인도의 보살(아발로끼떼슈와라)과 중국의 보살 그리고 한국의 보살이 차이를 지니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한국만의 보살이 있습니다. 아직 한국불교학계에서 연구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보살의 용례가 한국에서는 절에 다니는 여성 재가신도를 의미하게 됐는지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살이라는 말이 붓다 살아생전부터 있던 말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기원전 6~4세기에 활동했던 붓다가 열반하고 기원전 1세기정도 되면 보살의 용어가 등장합니다. 부처님 생애를 그린 불교 경전인 '불전문학'으로부터 보살의 어원을 찾는 것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부처님의 출생 · 성도 · 전법 · 열반의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붓다의 전생을 전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왜 현생만 다루지 않고 전생을 다루는가? 위대한 붓다의 전생 이야기를 포섭한 불전으로 현재 547생의 전생기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르는 일련의 수행 과정에서 붓다의 전생담은 수행의 단계에 따라 재배치되고 윤색됩니다. 대표적인 일화로서 '연등불 수기(受記)'가 있습니다. 기원 년 전후에 성립된 '마하바스투(Manāvastu(大事))'에는 보살 이전의 예비 단계로 보통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시기인 자성행(自性行) · 서원의 시기인 원성행(願性行) · 열심히 정진하는 순성행(順性行)의 세 단계를 거쳐 연등불(Dīpankara Buddha)로부터 최종 수기를 받아 불퇴전행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의 용례는 훨씬 다채롭고 복잡합니다. 단순히 붓다의 과거 전생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중생구제를 위해 스스로 깨달음을 미룬 존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범부(凡夫)보살입니다. 재가자와 출가자를 동시에 함의하고 있죠. 보살의 기준은 다만 '붓다가 되기로 원을 세웠는가'입니다.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은 '붓다의 전생을 의미하던 보살 개념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 됐는가'입니다. 현생의 수행모델을 통칭하는 범부보살을 통해 붓다는 숭배와 존경의 대상일 뿐 아니라 수행의 이상적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헌 혹은 사상적 과정을 통해 붓다의 전생이 보통 사람들 현생의 수행 모델이 되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마하바스투'에서 확대된 보살 개념이 어느 정도 이론적 입지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연결 고리가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승과 보살시대

보살시대는 대승불교의 시작과 완성을 아우릅니다. 대승경전이 성립된 시기는 기원전 1세기이며 대승의 명칭이 나온 때는 2세기 무렵입니다. 저는 그 사이의 400~500년을 보살시대라고 통칭하고자 합니다. 길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봄에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보살시대 또한 후대의 재구성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폴 윌리엄스(영국 브리스톨대학 종교학)는 대승불교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결론내립니다. '대승은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결코 하나의 단일한 현상이 아니었다. 학파도 종파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의 정신적 운동으로 스스로를 규정한다.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다른 정신적 운동들과 구별하여 대승의 정체성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사상적 내용을 실천하는 주체가 범부보살이라는 점에서 대승은 보살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살시대란 대승을 지향하지만 대승이라는 용어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시기입니다. 정신적 운동의 다양한 주체들, 그러나 아직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 모색하던 다양한 실험 운동의 시기를 특별히 보살시대라 하며 일반적 의미의 대승 보살의 시대와 구분하고자 합니다. 보살시대에 태어나 보살시대의 정점인 대승을 완성한 시기까지 살아간 인물, 범부보살의 기원과 발전의 역사 '상제보살(常啼菩薩 · Sadāpararudita)'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보살시대를 살아간 상제(상비(常悲))보살

상제보살은 무불시대에 붓다를 찾아서 '늘 울고 다니는' 보살입니다. 울음의 은유 이상으로 의미심장한 캐릭터입니다. 이 인물은 기원 전후로부터 약 4~5세기에 걸쳐 여러 다른 문헌에 등장하면서 계속 진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종류의 문헌 자료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육도집경>에 제81번째 일화로 소개되었고, 다른 하나는 '팔천송반야' 계통의 <소품반야경>에 등장합니다. 지루가참이 2세기에 번역한 <도행반야경> · 3세기 지겸 번역의 <대명도경> · 5세기 구마라집역의 <소품반야바라밀경>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이본들이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다른 까닭입니다.

<육도집경>에서 상비보살은 무불시대에 정법을 찾아 헤매는 대승의 보살이 아니라 석가모니붓다의 한 전생 삶입니다. 붓다의 전생이었던 상비보살이 대승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반야경>에서 범부보살로 전환되는 것은 붓다의 전생보살이 범부보살의 원형이었다는 가설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곧 수행의 주체가 계속 변화되는 종교 환경에서 스스로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 모티브는 무불시대의 좌절 가운데서 붓다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모순은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붓다를 살려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육신의 소멸과 함께 영원히 사라진 붓다를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것은 아라한의 수명 연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아라한의 수명연장이 법의 쇠퇴 관념과 관련한 소극적인 대응이라면 붓다의 수명연장은 적극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붓다의 현현(顯現)은 대승불교의 점진적인 전개 과정에서 '붓다의 수명연장'이 중요한 문제의식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이면에는 아쇼카왕 이후 당시 불교인들이 직면했던 위기적 시대상황을 대변합니다. 상비보살은 울면서 질문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신령스런 빛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간 것인가?" 이 질문은 바로 무불시대의 고난에 대해 불교인들이 던진 한 목소리입니다. 상비보살의 질문에 오랫동안 대답이 없었고 대승불교의 <법화경>에 이르러 붓다의 영원한 수명으로, <반주삼매경>에서 붓다에 대한 끊임없는 회상을 통해 붓다를 대면함으로써 그 답을 찾습니다. <화엄경>에 이르면 붓다의 영원한 우주적인 몸, 법신을 통해 해답을 찾지요.

무불시대의 붓다를 만나고저 끊임없이 울었던 보살은 아마도 대승불교가 시작된 시기의 전형적인 불교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타락한 사회와 정신의 시대적 혼란을 극복하고자 한 구도자. 서사적인 상제보살의 진화 과정은 붓다의 전생이 나의 현생이 되는 과정이며 대승불교의 연장선이 됩니다.



정리=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내몸내가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多注氣) 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작,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 우주의 기운
-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 5행으로 본 인체
-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 신비한 비장따주기
- ◆ 병 예방 비법
-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 수치의 비밀
- ◆ 궁합 비법
-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 수상 및 관상 보감
- ◆ 작명 비법
-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8. 23(토) 오전 9시 ~ 8. 24(일) 오후 1시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선착순 12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경전강좌 학인 모집

과 목	강 의 시 간	강의일자 변경
법 화 경	1교시 : 2시 – 3시 10분 (매주 월요일 오후)	법회일인 경우 화요일
화 엄 경	2교시 : 3시 30분 – 4시 40분	

◆ 모집대상 : 스님, 일반인 ◆ 통신생 : E-mail 통신 가능
◆ 모집인원 : 약간명 ◆ 학 기 : 2학기
◆ 개강일시 : 2008년 9월 22일 오후 2시
◆ 장 소 : 서울 중랑구 망우 3동 120-7(면목역, 상봉역)
◆ 전 화 : 02)496-3952~3

필요한 분에게
여래선, 금강경, 대승기신론
통신강의 가능

불교전문강원 임 제 선 학 원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불교와 탱화-탱화를 알면 불교를 안다 정규진 편저|중도 펴냄 | 3만원

화장세계 비밀장엄 한 눈에

부처님의 상호를 통해 불국토를 구현한다.

50여년의 시간을 화필작업으로, 탱화불모로 살아온 서강 정규진 선생의 불사를 한 눈에 가늠하는 불화집이 나왔다. '탱화를 알면 불교를 안다'는 부제처럼 화장세계의 불보살과 성중의 사실적인 표현은 경전을 그림으로 보는 듯 장엄하고 신비롭다. 더욱이 불교미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탱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설명을 첨부하고 탱화의 탄생 배경을 상세히 수록했다. 불교 초심자들이 불화를 쉽게 이해하고 불교 기초 교리도 배우는 것은 물론 불자의 신심 고취에 주안점을 둬 돋보인다.

<불교와 탱화>는 한국불교문화의 계승과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편저자는 "확고한 신심의 발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청정심으로 전통의 맥을 사자상승해야하며 불퇴전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바로 탱화"라고 말한다. 탱화 속의 나와 나 속의 탱화라는 일심이 있어야만 확고부동의 오묘한 진리를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탱화를 조성하는 마음가짐은 마음을 흐르는 곳에 머물게 하는 사마타(止)에서 비롯됩니다. 망념을 쉬고 적정 속에 머물면서 불교가 지닌 경전 속의 도상화를 빛과 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화엄사상이 지닌 불보살과 아라한의 무한함을 형상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경전의 확실한 이해가 없다면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기존의 탱화는 종교가 지닌 신비의 신성함으로 인해 금기시 되는 성향이 있었다. 그러나 근래 불교 포교의 활성화와 개방화로 일반인들의 관심과 접근을 적극 수용하는 추세다. 민족의 유산으로 이어져 내려온 탱화의 정신과 기법을 배우려는 문하생도 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불교와 탱화>는 훌륭한 안내서가 된다. 도설(圖說)을 통해 파악된 교리는 불교미술을 배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무언의 메시지로 전달되는 표상들의 비밀장엄은 위빠사나(觀)와 다르지 않다. 부처님을 칭하는 일월등명여래(日月燈明如來) · 응공(應供) · 정등각자(正等覺者) · 명행족(明行足) · 선서(善逝) · 세간해(世間解) · 무상사(無上士) · 조어장부(調御丈夫) · 천인사(天人師) · 불세존(佛世尊) 등의 함의를 헤아리는 확고한 통찰력이 모두 탱화에 스며있는 것이다.



정규진 불모는 근대불교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보응당 문성 스님의 제자인 회응당 상균 스님 문하에서 전수받았다. 뿐만 아니라 당대 산수화의 대가인 소정 변관식 선생과 연정 안상철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1970년 한국불교미술원을 설립해 전국 사찰에 탱화를 조성했고 현재도 탱화 불사와 후학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삶의 폭풍을 잠재우는 기술



폭풍속에서 마음 다스리기
에크낫 이스워런 지음 • 박웅희 옮김
바움 펴냄 | 9800원

'스트레스와 불안의 폭풍 속을 헤매는 자여.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

일상에 대면하는 도전과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저자는 스스로의 선심(善心)에 대한 신념에 해답이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 세계의 영적 전통들은 철학이나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생명수와 같고 나날의 삶을 위한 실제적 자원이다. 1961년 말에 설립한 블루마운틴명상센터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수련과 명상법을 강연했다. <폭풍속에서 마음 다스리기>는 아직은 당신이 명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도전에 대처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이스워런에 따르면 도전에 대처하는 열쇠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동요를 가라앉히는 문제다.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발상으로 전환된 고요한 마음은 어떤 폭풍도 잠재울 수 있다.

각 강연의 주요 내용은 현재에 사는 것이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고 안정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 핵심을 담고 있다. 강연의 보충 란에는 저자의 가르침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들의 성취담을 사례로 실으면서 자가 수련 요령을 제안한다.

초시대적인 지혜와 실제적 사례의 결합은 인생의 다양한 폭풍을 잠재우는데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인생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인생의 도전에 대응하는 방법은 통제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힘, 고요에 머무는 마음의 힘으로 폭풍 속에서 담대한 평형을 유지한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4	인연	정찬주	작가정신
5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	정명	불교정신문화원
6	신심	혜인	클리어마인드
7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8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9	원력	혜인	클리어마인드
10	백련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선오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신념으로 목숨 바친 티베트인 위한 헌정서



티베트 말하지 못한 진실
톨 인그램 지음 • 홍성녕 옮김
알마 펴냄 | 1만9800원

'우리는 빠르게 잃었으되 그들은 여전히 지니고 있는 넉넉한 심성의 뿌리는 무엇인가.'

자유세계의 양심을 자극하고 중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의분을 일으킨다. 티베트에 일어난 중국의 대량학살 범죄에 대한 기록이자 신념으로 목숨 바친 티베트 인을 위한 헌정서이다.

1979년 설립된 영국 런던 소재의 과학적불자협회(SBA)는 티베트의 현안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중국이 저지른 티베트 내 인권범죄와 중국의 티베트 여성 학대를 비롯해 무분별한 티베트 자원 황폐화를 국제 사회에 알려온 비정치 단체다. 국제연합 인권 관련소위원회를 위해 편집한 <티베트 말하지 못한 진실> 초판은 미국 상원과 의회에 회람됐고 개정 3판에 이르렀다.

티베트 전사들은 말한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지금 젊은 날이 돌아온다 해도 나는 다시 총을 들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 성하는 비폭력을 말씀하시지만 부모형제를 잃은 뒤 울면서 법복을 벗은 제가 택한 길은 저항입니다." 60세가 넘은 늙은 전사는 오늘도 그가 죽일 수밖에 없었던 중국인 병사를 위해 기도한다.

20세기 사상 최악의 공포가 되어버린 티베트. 이 보고서는 티베트 독립에 관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정부 관계자, 티베트 지식인, 각국의 활동가들이 협력해 중국이 저지른 티베트 종교 · 문화 · 국가 정체성 말살 책동과 만행에 관한 진실을 균형 잡은 표준 자료다.

가연숙 기자

본래부처 일깨우는 삶의 지침서



이와같이 살았으면-무비 스님의 보현행원품 해설
여천무비 술|염화실 펴냄 | 7000원

한번 뿐인 인생, 다시 살 수도 연습도 없는 일생이다.

종교와 철학의 문제만은 아닌 인간 본연의 문제를 <화엄경> '보현행원품' 속에서 해답을 찾는다.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있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열 가지 덕목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사람은 본래 부처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처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무비 스님이 경전 원문에 해설을 더한 <이와같이 살았으면>은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이들은 물론 이거니와 불교적 가치관으로 살고자하는 이들에게 삶의 지침서로 다가간다.

가연숙 기자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대웅전 건립불사
천선사
2010년 완공예정
차질없는 건립을 위하여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 행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 진 기 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 에서는 매월 둘째, 네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에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 선 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株)天星建設
석 · 납골당
석 · 굴법당
전문
석 · 납골당 조성공사
석 · 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 · 축대 및 보수공사
석 · 저장실, 보관실(과일)
석 · 까다로운 석 · 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중국과 인도가 주도하는 미래에 대비하라

譯者, 책을 말하다

마오를 이긴 중국 간디를 넘은 인도

로빈 메레디스 지음|오혜경 주영아 옮김|이솔 펴냄|1만7000원





 # 용의 급부상 코끼리의 끈기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로부터 고립된 채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던 중국과 인도, 그 두 나라가 경제개혁에 나서면서 각각 마오쩌둥과 간디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의 운명을 열어가기 시작한다.

용처럼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코끼리처럼 느리지만 끈기 있게 한걸음씩 전진하는 인도! 책의 제목이 시사하듯 중국과 인도는 마오쩌둥과 간디만큼이나 뚜렷하게 대비된다. 중국과 인도가 가장 대비되는 부분은 각자가 경제개혁에 나서는 과정이다.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자본주의 경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공산당이다. 1978년 중국이 경제개혁에 착수한 이후 외국인들이 중국 전역에 수 만개의 공장을 짓고 수천만 명을 고용하면서 1억이 넘는 중국인들이 빈곤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중국 노동자들은 경제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비해 평균 다섯 배나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외국 기업과 제휴라는 중국 공산당의 도박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셈이다.

 #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하지만 경제적 자유는 주되 정치적 자유는 제한하는 싱가포르식 접근방식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모른다. 단순한 경제적 수치를 뛰어넘어 일상생활 전반에서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인들이 언제까지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고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책에는 이런 농담이 나온다. "덩샤오핑이 차를 타고 가면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그에게 물었다. '동무,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호등에 공산주의로 가려면 좌회전을, 자본주의로 가려면 우회전을 하라고 쓰여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그러자 덩샤오핑이 기사에게 말했다. '아무 문제없네. 그냥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하면 돼.'" 정치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는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유머이다.

 # 앞으로 한걸음 옆으로 두 걸음

반면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에서는 발달된 지방정치나 언론의 자유가 되레 경제개혁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인도의 경제개혁은 멈췄다 가기를 되풀이하기 일쑤이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인도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한다. 앞으로 한걸음 갔다가는 다시 옆으로 두 걸음 가지만 결국 집에는 돌아간다는 것이다. 인도는 중국처럼 정부 주도로 개혁을 일사천리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단거리 경주에서는 중국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도인들은 마라톤에서는 인도가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인도인들의 그 같은 장담이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되는 동안 인도는 전 세계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의 실리콘 밸리로 알려져 있는 방갈로르에는 인포시스와 위프로 등의 인도 회사뿐 아니라, GE, 필립스, 인텔, 노키아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이 사무실을 두고 있다. 100만이 넘는 사무직과 서비스 산업 일자리가 이미 인도로 옮겨갔고 지금도 계속 이동 중이다. 인도인들은 외국 회사 대신 소비자 상담전화를 응대하고, 정교한 컴퓨터 코드를 작성하며, 회계에서 투자은행 일까지도 맡아 하고 있다.

반짝이는 새 핸드폰과 오토바이로 상징되는 인도의 경제적 번영으로 이제 인도는 무한한 가능성의 땅으로 부활했다. 하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다수의 인도인들은 여전히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비켜 서 있다. 인도가 진정한 경제대국으로 거듭나려면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수출상품을 제조할 공장을 지어 공장 노동자들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

 # 우리에게 위협인가 기회인가

베테랑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뉴욕타임스와 포브스의 해외 특파원으로 중국과 인도를 긴밀히 취재해 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 인도 경제발전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두 나라의 급부상이 세계경제 및 주변국가에 끼칠 영향까지도 전망하고 있다. 이 책은 특히 오프쇼어링, 공급사슬 관리, 분해라인 등의 새로운 사업방식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제 기업의 사례를 들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전한다. 피라미드의 바닥을 공략하는 마케팅이나 인도의 인프라 구축 필요성,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정화 산업의 전망 등은 중국과 인도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장기 사업전략을 짜는 데 꼭 참고할만한 내용들이다.

책은 또한 중국과 인도의 정치, 군사, 환경 및 문화적 변화까지 다채롭게 그려내면서 우리가 국가로서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일깨워준다. 일례로 지금 인도와 중국은 고속성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원외교에 나서고 있으며, 두 나라의 군사적 확장은 잠재된 군사적 갈등을 예고한다. 중국과 인도의 환경오염 역시 결코 두 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익히 체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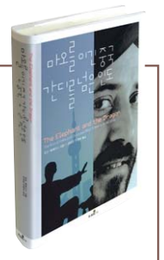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우리에게 위협인가, 기회인가. 중국과 인도가 역사적으로 차지했던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가면서 정치, 경제, 군사, 환경, 자원 면에서 세계 질서를 재편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두 나라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 없이 미국·중국·인도 삼국 체제로의 변환에 어떻게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인가.

저자는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거센 경쟁의 파도에 대항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교육과 경제의 기초를 강화하면서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발명과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세계화가 가져오는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미국인의 관점에 치우친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서 중국과 인도의 변화에 결코 초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저자의 제언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고 다가온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기업인, 국제관계나 정치경제를 공부하는 학생, 동북아의 정치적 지각변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정치인, 중국과 인도가 주도할 시대에 글로벌 리더로 자식을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 모두 이 책에서 중국과 인도가 주도할 미래에 대비할 지혜를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글=주영아

■ 역자 약력



• 오혜경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심리학과 대학원을 거쳐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바른 번역'의 회원이며 옮긴 책으로 〈아름다움의 발명〉 〈죽음과 함께 춤을〉 〈오딧세우스〉 〈도그 휘스퍼러〉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 등이 있다.

• 주영아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옮긴 책으로 〈애크로이드 살인사건〉 〈더 큰 사랑은 없다〉 〈이집트 십자가의 비밀〉 〈축복의 조건〉 〈안녕, 내사랑〉 등이 있다.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3>

부처님가르침 원음 담아 경전 엮어

아난 존자 평생 부처님 곁에서 가르침 갈무리
불멸후 5개월 만에 결집…분량과 순수성 월등

이상으로 경(經)이란 성자(聖者)들의 말씀을 적은 책이라는 정도의 가닥은 잡혔으니, 오늘은 그러한 경전(經典)들이 어떠한 과정(過程)으로 이루어졌을까를 생각해 본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매우 위대(偉大)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사전(事前)에 골방에 처박혀서 소설가(小說家)가 소설(小說) 쓰듯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써 놓고,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듯이 한다면 모두가 따를까. 물론 아니다.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正反對)일 것이다. 성자는 말을 하러 나온 분들이 아니다. 자신만이 터득한 인생살이의 방식을 실천(實踐)으로 민초들이 유익(有益)하도록 돕고 인도하고 가르쳐서, 눈앞의 이익뿐이 아니라 먼 훗날에 흐뭇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건 없이 뛰어다니면서 때로는 우주의 진리를, 때로는 인생의 참 모습을, 때로는 인생이 싫어도 메고 가야 할 짐을, 때로는 오늘보다는 밝은 미래의 진정한 행복을, 끝없이 떠들고 다녔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당대(當代)에 호응(呼應)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다행히 우리 부처님 말씀은 초기에는 물론 고생하셨지만 생존시(生存時)에 이미 상당한 동조자를 얻었다. 사위성(舍衛城) 60만호(萬戶)에 삼분의 일은 불법을 알고 삼분의 일은 불교가 있다고 듣기는 했으나 접하지는 못했고, 나머지 삼분의 일은 부처가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했다.

부처님 성도(成道)하시던 날에 태어난 아난(阿難) 존자(尊者)는 기억력이 좋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가 20세의 나이로 출가할 때엔 이미 호지법장자(護持法藏者;次世帶에 經典을 傳할 內定者)로 지목(指目)받고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른 시봉하기를 꺼렸던지 대중(大衆)에서 신출(新出), 아난에게 "너는 호지법장자이니 부처님 곁에 늘 모시고 있는 시봉을 겸(兼)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아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걸었다는 것이다.

첫째 부처님께서 공양청장[招請]을 받고 가시는 데 따라가지 않겠다.

둘째 부처님 입으시던 옷을 물려받아 입지 않겠다.

셋째 자신이 출가하기 전, 20년간 이미 설하신 법문은 따로 설해 주셔야겠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수락하시고, 그의 시봉을 받으시다가 그에게 법장(法藏)을 전하시고 열반(涅槃)에 드시니, 그 덕에 우리는 다른 어느 종교단체(宗教團體)보다 순박한 경전을 모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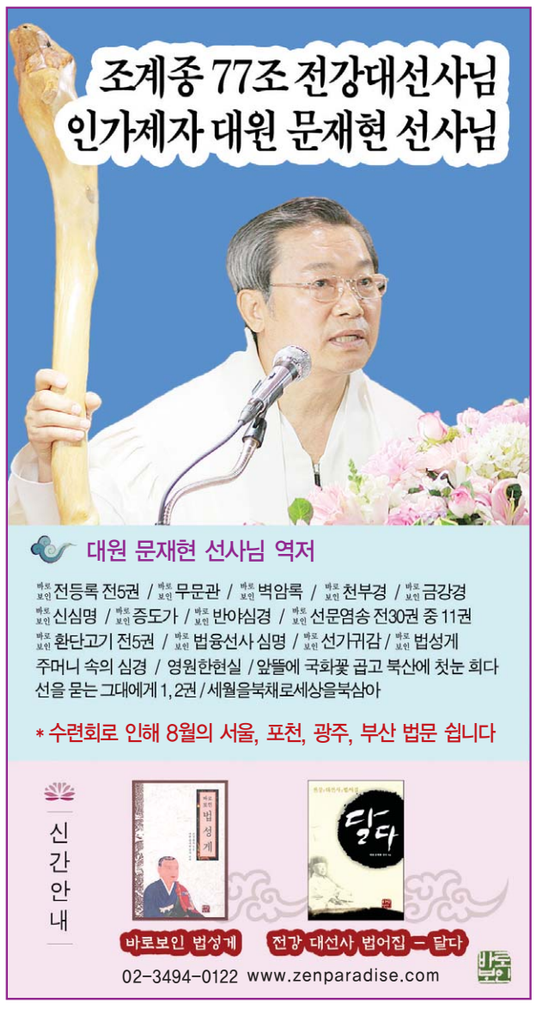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자(孔子)님의 경전은 논어(論語)인데 이 논어는 공자님 사후, 그의 손자인 자사(子思)에 의해 손질되어 빛을 보았고, 기독교(基督敎)의 교주인 예수님의 경전인 바이블 역시 그의 사후 400여년이 지난 뒤에야 어록(語錄)을 추심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불교경전은 부처님 입멸 후, 불과 5개월 만에 결집(結集)을 시작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 분량(分量)도 순수성(純粹性)도 뛰어나다는 점이 자랑스럽다.

봉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집착·선입견 두지 말아라



㉛ 방하착

'방하(放下)'는 '내려놓다' 또는 '놓아 버리다'는 뜻이고, '착(着)'은 명령형인 '방하'를 강조하기 위한 어조사입니다. '방하착(放下着)'은 '집착하지 말라' 또는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 버리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선어인 동시에 화두입니다.

착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물건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생각(관념)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여전히 놓아 버리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조주 화상이 그를 향하여 '방하착(放下着)하라'고 한 것은 바로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그 의식마저 놓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까지 버린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무집착이고 무념 무일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남아 있는 한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만일 어떤 훌륭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자신이 훌륭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것입니다.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본래무일물이라는 그 생각마저 버려라"

9세기경 중국에 엄양(嚴陽)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인품이 매우 훌륭해서 '엄양 존자'라고 불렀습니다. 엄양 존자가 어느 날 선승 조주 선사(778~897)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사,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一物不將來時 如何)?"

당시 선원에서는 '집착을 버리라'는 법문이 유행한 듯합니다. 집착을 버려야 부처가 된다고. 그의 질문에 조주 화상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놓아 버려라(放下着)."

애당초 한 물건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무엇을 놓아 버리라고 하는 것인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엄양 존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미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짊어지고 가거라(擔取去)."

조주 화상은 그를 완전히 코너로 몰아 붙였습니다.

엄양 존자의 질문과 조주 선사의 대답을 보면 두 스님 사이의 선문답은 거의 막다른 골목까지 와 있는 느낌입니다. 내려놓을 것이 없다는데 도로 짊어지고 가라고 했으니, 엄양 존자는 진퇴양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는 큰 절을 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이 선문답에서 핵심은 '방하착'이지만, 흥미진진한 대목은 "이미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또 내려놓으라는 것이냐?"는 엄양 존자의 신경질적인 반문이고, 다음은 "그렇다면 다시 짊어지고 가라"는 조주의 악담 같은 답어입니다.

한번 조근조근 풀어 봅시다. 내려놓을 것이 없다는데 조주 선사는 무엇을 다시 짊어지고 가라고 한 것일까? 엄양 존자는 모두 방하착했다고 생각했지만 백전노장인 조주 선사가 보기엔 여전히 집

이 선문답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또 다른 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엄양 존자가 조주 화상을 찾아가서 물을 때에는 이미 자기 자신은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났으므로 이 정도면 수행이 상당히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짜고짜로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습니까(一物不將來時 如何)?"하고 물은 것입니다. 여기서 '여하(如何)'는 수행의 정도에 대하여 평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만하면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조주 선사가 보기에는 여전히 무일물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조실은 이런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습니까(一物不將來時 如何)"의 원형은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본래 한 물건도 없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물건(一物)'이란 번뇌 망상을 가리킵니다. 번뇌 망상 속에는 집착심 · 근심 · 걱정 · 불안 등 모든 중생적인 생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선승들의 선문답(법거량)은 아주 박진감이 넘쳐흐릅니다. 순간순간이 일격의 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다가는 언제 쏜살 같은 언어의 주먹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사건 25시입니다.

방하착은 무소유를 상징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어떤 고정관념이나 집착 · 선입견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여유가 있어 좋기는 하지만 상실에 대한 불안감은 마음의 평온을 해칩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계속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서있는 상태입니다.

행복한 수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무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혹 사랑하는 사람만은 남겨 두어야 할까?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7각지, 8정도 탐·진·치 파괴 위한 것"

㉛ 위자야 장로니

케마 장로니 법문 듣고 수상해 7일만에 아라한 돼
칠각지는 사념처에서 시작해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

위자야(vijayā) 장로니는 이전의 부처님들 아래서 공덕을 지었다. 그리고 해탈을 위한 토대로 이런 저런 존재에 공덕을 쌓으면서 차례대로 선근(善根)을 증장했다. 그리하여 천신과 인간들 중에 윤회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시에는 라자가하(王舍城)의 한 좋은 가정에 태어나 성장하여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다. 그때 그녀는 왕비 출신인 케마 장로니의 재가 시절 친구였는데, 그녀가 출가한 소식을 듣고 자기도 출가하고자 하여 케마 장로니에게 다가갔다.

케마 장로니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법을 가르쳤다. 위자야는 '마음으로 윤회를 혐오하고 가르침에 대해 확신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법을 듣고 진리에 대한 믿음을 얻었고, 드디어 출가를 요청했다.

케마 장로니는 그녀를 출가시켰고, 그녀는 출가하여 승려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위자야는 위빠사나를 확립하여 수행의 필요조건을 갖추었기에, 머지 않아 분석적인 통찰과 더불어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다음은 그의 깨침의 노래이다.

"네 번, 다섯 번 정사에서 나는 나왔다.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마음의 자재를 얻지 못하여. 나는 (케마) 비구니에게 다가가 존경하며 물었다. 그녀는 내게 법, 요소와 영역을 가르쳤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다섯 가지 감각능력(根)들, 다섯 가지 힘(力)들, 일곱 가지 깨달음의 부분(七覺支), 여덟 가지 도(八正道), 최상의 목적(열반의 증득)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르쳤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실천했으며, 밤 가운데 초야(初夜)에 전생을 기억했다. 밤 가운데 중야(中夜)에 천안(天眼)을 청정히 했고, 밤 가운데, 말야(末夜)에 어둠덩이(無明)를 부수었다. 그때 나는 몸에 환희와 행복이 가득했으며, 칠일째 어둠덩이를 부수었기 때문에 다리를 폈다."

칠일째 다리를 폈다는 것은 위빠사나를 시작한 날로부터 칠일 째에 결가부좌를 풀고 다리를 폈다는 뜻이다. 이전에 부수지 못한 무명을 제일의 도인 지혜로써 부수었다는 뜻이다. 위자야 장로니는 케마 장로니의 법문을 깊이 믿고 받아들여 불과 7일만에 아라한이 된 것이다.

<장로니게>에 따르면, 위자야 장로니는 팔정도를 비롯한 다양한 법문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여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가운데 실제적인 위빠사나 수행법은 칠각지로 설명된다.

칠각지(七覺支)는 사념처(四念處)에서 수행을 시작하여 멸진정(滅盡定)에 이르는 과정에서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수행방법이다. 먼저 택법각지(擇法覺支)는 지혜의 힘으로 모든 법의 선악(善惡) 정사(正邪)를 잘 가려내어 선과 정은 취하고 악과 사는 버리는 것을 말한다. 정진각지(精進覺支)는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수행의 바른 길을 따라 일심으로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희각지(喜覺支)는 일심으로 끊임없이 정진한 결과 참된 도의 기쁨을 얻는 것을 말한다. 제각지(除覺支)는 참된 도의 기쁨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그릇된 소견이나 번뇌를 끊어 버리고 바른 선법을 계속 길러 나가는 것을 말한다. 사각지(捨覺支)는 마음이 모든 경계에 평등하여 즐겁고 기쁜 모든 감수(感受) 작용이 없고 지내는 일을 추억하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정각지(定覺支)는 고요히 정(定)에 들어 있어서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념각지(念覺支)는 정과 혜(慧)가 평등하여 일심이 늘 명료한 경지를 말한다. 이상의 것 중에서 만일 마음이 혼침하면 택법 · 정진 · 희각지로써 마음을 일깨우고, 만일 마음이 들뜨면 제 · 사 · 정각지로 그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러나 이러한 7각지, 8정도 등 모든 가르침과 수행법은 탐 · 진 · 치의 불을 끄고 그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데 있음을 깊이 명상해야 한다. 부처님은 "수행승들이 선정을 하는 것은 보다 높고 상쾌한 일들, 말하자면 탐 · 진 · 치의 파괴를 위한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수행의 목적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소멸을 통해 그로부터 해탈하는 것이며, 선정은 해탈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깨달은 사람은 탐 · 진 · 치에 물들지 않아서 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말한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정토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정토불교대학이 불교 복지 평화 환경운동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담은 2008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8월 26일 개강하는 서울(02-587-8993)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25일 개강하는 대전(042-253-8990)과 대구(053-753-8993)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27일 개강하는 해운대(051-747-9997)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강의가 진행된다. 근본불교, 불교의 변천사 등 정규수업과 함께 환경 복지 통일특강, 사찰순례, 초심자 입문교육, 기도정진 및 나누기 등의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애니로 다시 보는 부산이야기**=양정청소년수련관은 '애니로 다시 보는 부산이야기-우리의 꿈은~' 프로그램을 8월 19~22일 진행한다. 20~22일 오후 2시 애니메이션작업 및 시사회가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의 역사유적지 견학을 통해 청소년들이 부산의 역사를 바로 알고 모둠활동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부산지역 10~15세 청소년. 만화관련 전문지도자와 청소년지도사, 전문상담가가 강사진으로 포진해있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051)868-0750

●**능인선원 임사체험 수련**=서울 능인선원이 8월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24일 새벽 3시까지 임사체험 수련을 개최한다. 원장 지광 스님 법문, 회상명상, 죽음명상, 유서 쓰고 읽기, 입관체험, 바르도 명상, 회향 및 서원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임사체험 수련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에 열린다. 수련동참금은 3만원 (019)387-5060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2008년 대불련 전국 총동문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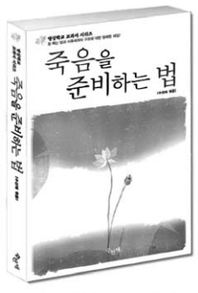
한국 지식인 불자들의 산실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국 총동문대회를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개최합니다.
보살의 원력과 수행을 통해 함께하는 자비세상을 열어가고자 하는 뜻 깊은 행사로 마련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며 개인의 수행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2008 대불련 전국 총동문대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일 시 : 불기2552(2008)년 8월23일(토) ~ 24일(일)
2.장 소 : 대구 팔공산 동화사
3.주요일정

8월 23일 • 13:30 ~ 14:30 : 접수 • 14:30~17:30 : 갓바위 순례
• 19:00 ~ 20:00 : 입재식(법문:동화사 주지 허운스님)
• 20:30 ~ 22:30 : 축제한마당(야외공연장)
8월 24일 • 07:00 ~ 08:00 : 특강 1(동화사 승가대학장 지운스님)
• 08:30 ~ 09:30 : 특강 2-불교적 심리치료
(장현갑 서울 불교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11:00 ~ 12:00 : 회향식 및 결의문 채택

대 불 련 총 동 문 회
행사문의 : 011-503-2060 (은장권 사무국장)

도서출판 수선재 WWW.SOOSUNJAE.ORG



수선재 엮음 / 문화영 원저 / 328쪽 / 값 12,000원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수선재 엮음 / 356쪽 / 값 12,000원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9 번지 2층 Tel.(02)737-9454 Fax.(02) 737-9456

선지식을 찾아서 혜남

"五戒만 잘 지키면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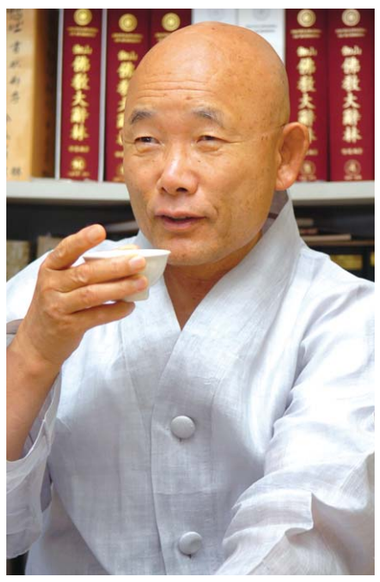
혜남 스님(통도사 영축율원 율주)

1943년 창녕에서 태어나 1963년 창녕 관룡사서 입산했다. 1967년 월하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1970년 석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하고 범어사 강원을 졸업했다. 묘관음사, 극락암 선원 등 5하안거를 성만한 스님은 1977년 대흥사 강원에서 운기 스님에게 전강했다. 일본 다이쇼대(大正大)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와 은해사종립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불보종찰 통도사 율주로 후학 양성과 <유행경> 등 불전 번역에 정진중이다.

늦더위를 피해 양산 통도사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로 통도사 경내 도로는 번잡했다. 일주문지나 영축율원이 위치한 취운암까지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거리다. 뙤약볕에 화탕지옥처럼 전국이 들끓는 때, 일요일을 맞아 법회 찾은 불자는 부처님 법으로 더위를 잊고, 계곡 찾은 대중은 더위를 식혀 부처님 가피를 느끼는 통도사 도량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영산회상이었다.

율사였던 신라시대 자장 스님은 영축산에 통도사를 창건했다. 자장 스님이 통도사라 이름한 것은 만법을 통달해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과 산형이 인도 영축산과 통한다는 뜻 외에 전국의 모든 스님이 금강계단(金剛戒壇)에서 계를 받아 득도(得度)한다는 뜻이었다. 지계 근본도량 영축총림 통도사 율주로 한국불교 정통 계맥 부흥을 위해 정진중인 혜남 스님을 찾았다.





자조·자주·자립 바탕한 교육돼야

"서울의 4대문에도 5계 담겨있어"

출가 전 <맹자> 등을 읽으며 사람 사는 도리에 고민이 많았던 스님은 인(仁), 의(義)를 실천한 성군(聖君)도 죄 없는 이만 죽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생각,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은 남을 짓밟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풀 벨 때 잘린 마디에서 액이 솟는 것이 피로 보였습니다. 생명을 죽이며 사는 것이 아닌 살리며 사는 방법을 고민하다 출가했지요."

20세 가출하듯이 찾은 관룡사에서 잡일하며 밤이면 주지 현극(玄極) 스님에게 시 한수씩을 배웠다. 제대 후 현극 스님을 다시 만나지 못한 스님은 군대 시절 부산 대각사에서 법문 들은 것을 인연으로 경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이 통도사 강원과 남양주 흥국사 강원 등을 거쳐 결제중인 묘관음사를 찾았을 때다. 향곡 스님이 "결제 중에 방부 붙이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고 묻자, 혜남 스님은 "발심하는 순간이 결제"라고 대답했다. "말은 그럴 듯해도 안 된다"는 향곡 스님에게 혜남 스님은 9번 절을 올렸다. 향곡 스님은 "절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거절했다. 하는 수 없이 묘관음사 입방을 포기하려다 입승스님의 배려로 우여곡절 끝에 결제 중에 묘관음사에서 안거할 수 있었다.

3대 관음도량인 남해 보리암 · 양양 낙산사 홍련암 · 강화 보문사와 통도사를 제외한 4대 보궁을 두루 다니며 기도 정진한 스님이 인천 용화사에서 안거하던 때다. 1970년 세계불교도대회때 전강 스님과 경봉 스님이 나눈 법거량을 보고 경봉 스님이 주석한 통도사 극락암을 찾았다.

"몇 철 선방살이를 했지만 혼침(昏沈: 몽롱함)과 도거(掉擧: 산란함)에 공부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차라리 경전이나 제대로 봐야겠다는 생각에 해남 대흥사를 찾아 공부했지요."

혜남 스님은 1977년 운기(雲起) 스님에게 전강 받았고,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일본 대정대(大正大)에서 학부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일본 유학 후 해인사 강주를 시작으로 혜남 스님은 중앙승가대 등에서 후학양성에 힘써왔다.

올해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교수를 정년퇴임한 스님은 "불전 번역을 위해서는 언어 구사뿐 아니라 작가의 마음에 계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언 · 다라니 등도 우리말로 풀이하려는 세태에 대해 스님은 '다라니(陀羅尼)'처럼 비밀한 뜻이 있는 것, '바가범(薄伽梵)' 같이 한 단어가 여러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염부제수(閻浮提洲)'처럼 중국에 없는 단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와 같이 고래로 번역하지 않는 말, '반야'처럼 존중의 의미에서 번역하지 않은 것 등 현장의 '오종불번(五種不翻)'을 인용해 우려했다.

"한 일본인이 스님에게서 '오무기고무기 니쇼한(大脈小麥二升半, 보리나 밀이나 두되 반)'이라는 말을 듣고, 화두삼아 궁리하다 신통을 얻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신통이 사라졌어요. 때로는 모르는 것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머리로 알려고 할수록 수행과는 멀어집니다."

혜남 스님의 교육은 '자조(自助) · 자주(自主) · 자립(自立)'에 바탕한 교육으로 덕망 높다. '스스로(自)'를 강조한 교육 이념은 계율에 대한 스님의 설명에서 드러난다.

"'sīla'를 번역한 '계'는 스스로에 대한 맹세(自誓)로 좋은 습관을 스스로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 재세 시에는 불자들이 '(오계를 지키며 살기를)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맹세하고 부처님이 잠자코 승인하시는 것으로 계가 성립됐지요. 자기 뜻에 의한 것이기에 계는 강제성이 없어요."

반면 율(vinaya)은 출가 수행자들이 승단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칙으로 타율적이다. "출가자가 율을 어기면 오편칠취(五篇七聚)라 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율을 비구 250계와 비구니 348계라 한 것은 타인의 제재(制裁)가 무서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닌, 주인공 된 삶으로 '스스로' 계의 정신으로 율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계라 번역한 것입니다."

혜남 스님은 "계(戒)에 8만4000법문이 모두 담겨있다"고 말했다. "부처란 자비 · 복덕 · 청정 · 진실 · 지혜롭게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불살생(不殺生)계는 자비를 키우고, 불투도(不偸盜)계는 복덕을 기르며, 불사음(不邪淫)계는 청정한 삶을 유지하며, 불망어(不妄語)계는 진실된 삶을, 불음주(不飮酒)계는 지혜롭게 사는 길을 뜻합니다. 오계만 잘 지키면 그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서울의 사대문도 오계를 말합니다. 흥인지문(동대문)은 측은지심으로 길러지는 인(仁)으로 불살생을, 서쪽의 돈의문(서대문)은 불투도를, 남쪽의 숭례문은 불사음을, 북쪽의 홍지문은 지(智)를 뜻해 불음주를, 중앙의 보신각의 신(信)은 불망어를 뜻하지요."

스님은 불살생계를 예로 삼취정계(三聚淨戒, 섭율의계 · 섭선법계 · 섭중생계)를 강조했다. "살생은 목숨 가진 것뿐 아니라 남의 아이디어를 사장시키는 것도 살생이에요. 살생 않는 수준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자비심을 지니는 것이 진정한 불살생계지요. 머리는 좋으나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사람을 위해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나, 병든 사람 등을 위한 복지사업 등도 모두 불살생계를 지키는 것으로 섭선법계로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혜남 스님은 "불투도계는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 불사음계는 심신청정을 넘어 사회와 국토를 청정하게 해 불국토를 이루는 것, 불망어계는 바르고 진실된 말 등을 통해 믿음(信)이 가득한 사회를 만드는 것, 불음주계는 지혜롭게 사는 것을 뜻한다"며,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겸한 지계를 강조했다.

"술 먹고 낮잠 자던 사람이 있었어요.(불음주계) 잠자는데 시끄럽다며 닭을 죽였지요.(불살생계) 죽인 닭을 몰래 먹고는(불투도계) 닭 찾으러 온 여주인을 겁탈까지 했어요.(불사음계) 관아에 끌려가서는 아무 짓도 안했다고 거짓말했고요.(불망어계) 부처님 연기법처럼 하나의 계에도 나머지 계가 모두 담겨있습니다.

불자라면 삼보에 귀의하고, 사홍서원과 오계는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혜남 스님은 '스스로'를 통해 부처님 삶을 증명해 나가는 선지식이었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51 우뭇가사리 요리<4>-냉 콩국우무

우뭇가사리는 실처럼 생긴 헛뿌리를 내어 바위 위에 붙어 자란다. 겨울철 포자가 발아해 서서히 자라다가 봄과 초여름이 되면 빠른 속도로 자란다. 한국에는 11종(種)이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천(寒天) 재료로 쓰인다.

한천은 우뭇가사리를 삶아 녹인 후 굳힌 우무를 일단 얼린 다음 말린 것으로 천연한천과 공업한천이 있다.

한천 재료로 한국에선 11종이 자라나

세균 저항력이 커 한천배양기로 쓰여

천연한천과 공업한천은 우무의 탈수방법에 차이가 있다. 천연한천은 겨울철 바깥에서 천연동결 · 자연해동 · 천일(千日)건조를 통해 만든다. 건조한 우뭇가사리를 물에 삶아 나무상자에 넣어 굳힌 다음 바깥에 내놓아 1주일 동안 영하 10~5℃ 찬 공기로 얼렸다가 5~10℃ 저온으로 건조시키는 것을 되풀이한다.

우뭇가사리 삶는 물은 철분이 적을수록 좋다. 젤리 모양 우무는 동결에 의해 한천질과 얼음결정으로 나뉘고 이것이 녹을 때 한천질과 물이 분리된다. 이 탈수공정을 기계화해 만든 것이 공업한천이다. 인공적으로 동결→해동→건조시킨 것이 플레이크 형태의 한천이다. 동결시키지 않고 즉시 탈수→농축→건조시킨 것이 파우더 형태의 한천이다. 천연한천은 순도는 낮으나 점성이 강하고, 공업한천은 순도는 높으나 점성이 약하다. 파우더 형태의 한천은 딱딱하고 깨지기 쉽다.

플레이크 형태의 한천은 씻어서 물에 담가 가열한다. 파우더 형태의 한천은 물에 풀어 가열하고 한천이 녹으면 설탕 · 과일 · 과즙 · 우유 등을 섞어 젤리 형태로 굳힌다. 한천농도가 1%일 때 약 30℃에서 응고한다. 농도가 진할수록 응고가 빠르고, 설탕을 첨가하면 쉽게 응고한다. 길게 썰어 콩국에 말아 먹기도 하고, 우무채나 우무장아찌 등의 반찬에도 쓰인다. 양갱 등 과자원료나 약품원료,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커 미생물 배양의 한천배양기로 사용하는 등 이용범위가 다양하다. 산촌 (02)735-0312



냉 콩국우무 만들기

재료 : 우무, 콩, 오이, 토마토, 소금

만드는 법

① 우무는 체에 곱게 내린다.
② 오이는 껍질을 까고 곱게 채친다.
③ 토마토는 뜨거운 물에 살짝 담군 후 껍질을 벗기고 채 썬다.
④ 콩은 8시간쯤 푹 담가 비린내가 없을 정도로 삶은 후 곱게 갈아 놓는다.
⑤ 그릇에 우무를 담고 콩물을 적당히 부은 다음 오이와 토마토 채를 얹어낸다.



금강선원 초중 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❺

기다릴줄 아는 여유로 건강차 만들어

10여년 선방을 다니던 중 해제기간 동안만 금강선원에서 지낸 이후, 처음으로 3년간 4계절을 이곳에서 보냈다. 언제나 선방을 오가며 공부하던 내가 3년 수행기간을 가진 데는 불사를 위한 원과 함께 건강문제도 있었다.

지리산 쌍계사 선원에서 공부하던 중 지리산 종주를 했었다. 몸과 정신의 한계를 보고 싶었기에 법계사에서 시작된 종주는 천왕봉과 노고단으로 이어졌다. 지리산 종주 후 병원을 가니 정진하느라 무리한 것 같다며 휴식을 권했다. 그 후 불사의 원과 건강문제로 통도사 극락암선원에서 동안거 해제를 마친 그해 4월 15일 하안거 입제일부터 금강선원터에서 3년 수행정진에 들어갔다.

뽕잎차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도 시작했다. 우연히 인연 닿았던 뽕잎차를 직접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다. 그간 선방을 다니며 몸이 안 좋아지고 속이 냉하고 당뇨가 있던 내게 뽕잎차는 최고의 차였다.

3년을 수행하며 뽕잎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중 구증구포라는 방법을 알았다. 뽕잎을 쪄서 말리고 또 찌고 말리고를 아홉 번. 비린 맛을 없애고 약성분을 살리는 이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선방을 다닐 때에도 혼자 뽕잎차를 만들어 마셨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자 배울 것이 너무 많았다. 구증구포라는 방법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지금 금강선원에서 제다한 뽕잎차가 됐다. 비리고 강하던 맛도 구증구포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맛이 순화되고 흡수가 잘 되는 성분으로 바뀌어 하나의 건강차로 탄생한다.

뽕잎을 따서 씻고 썰어서 찌고 말리는 아홉 번의 과정 이후 전통 방법인 덖음으로 차를 마무리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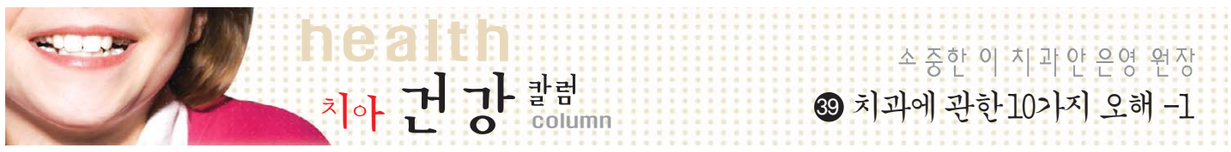


을 통해 기다림을 배웠다. 한번 만드는데 한달 여 시간이 걸리는 이 차는 '기다림의 미덕'을 알게 한다. 기다릴 줄 아는 여유만 있다면 훨씬 좋은 차를 만날 수 있으니 조급하게만 살아가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이 차 한잔을 선물하고 싶은 것도 이런 기다림의 미덕을 알리고 싶어서 아니었을까.

처음 뽕잎차를 만들었을 때는 그저 즐겨마실 차를 손수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다. 사서 마신 뽕잎차들이 비리거나 그 맛이 강한 경우가 많아 내 입에 맞는 차를 만들기 위해 만들다 보니 오늘의 뽕잎차가 만들어진 것이다.

만든 차를 신도들에게 내어 놓고 함께 마시다 보니 찾는 이들이 하나 둘 늘었다. 다른 절 스님들 부탁으로 여러 통 만들어 주고 남은 것은 금강선원 카페에 올렸다.

카페에 올린 뽕잎차가 금방 팔리고 더 만들어 달라는 이들이 늘었다. 그렇게 한통, 한통 만들다 보니 "스님, 뽕잎차 마시고 살 빠졌어요" "당뇨가 많이 좋아졌어요"라는 말이 들려왔다. (055)931-9590



소중한 이 치과안은영 원장

39 치과에 관한 10가지 오해 -1



스켈링하면 치아가 약해진다?

병원의 모든 진료과가 마찬가지겠지만, 치과도 일반인들에게 문턱이 높다. 사람들은 그 이유로 비쌀까봐, 아플까봐, 안 아프면 괜찮아 보여서, 소리가 싫어서, 놔두면 나을까봐, 치료할 것이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나서 등 여러가지를 말한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시간과 비용은 물론 건강을 회복하기도 수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가 불편하면 병원에 가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증상을 상담한다.

용기를 내어 치과를 찾아 치료계획을 상담 받은 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치료 내용이나 권해받은 치료에 대해 이야기 하면, 주변의 반응이 싸늘한 것도 예사다. "그런 치료를 왜 받았냐." "000 등의 약을 먹으면 낫는다." "스켈링하면 치아가 약해진다."

잘못 알려진 진실(?) 때문에 이미 치료시기를 놓친 치아를 치료해 달라고 병원을 찾는 이들이 꽤 많다.

다음은 치과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 10가지와 그에 대한 진실이다.

1. "스켈링하면 이가 더 망가지니 치과에서 권하는 대로 1년에 한 번하면 절대 안된다!"

– 진실 : 잇몸이 붓고 피나는 잇몸질환의 원인은 치태와 치석이다. 스켈링은 이러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다.

스켈링 후에 이가 더 시리고 피가 나는 이유는 치아를 병풍처럼 덮던 치석을 제거해 치아 표면이 노출돼 그동안 못느꼈던 감각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치석이나 치태로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출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곧 회복된다.

2. "스켈링을 하면 이 사이가 벌어진다?"

– 진실 : 치석을 떼내는 스켈링을 받으면 그 자리가 빈공간으로 남는다. 치석 때문에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그렇게 보일 뿐 실질적으로 치아가 이동해서 치아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래 있던 공간이 치석이나 부은 잇몸 때문에 가려져 있다가 스켈링 후 나타나는 것으로, 하루라도 빨리 스켈링 해서 그런 공간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스켈링은 한번 하면 계속해야 한다?"

– 진실 : 스켈링은 치아에 붙은, 일반적인 칫솔질로는 제거되지 않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좋고, 한번 스켈링 하게 되면 조금만 치석이 생겨도 많이 낀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깨끗한 구강위생 상태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스켈링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 주기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치과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4. 잇몸약을 먹으면 잇몸질환이 낫는다?

– 진실 :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치아에 치태나 치석이 끼었기 때문이다.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선의 안쪽에 치태나 치석이 끼었을 때 계속 그대로 방치한다면 염증이 생겨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결국에는 잇몸뼈까지 약해져 이가 흔들리고 빠질 수도 있다.

잇몸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고통을 없앨 수는 있으나, 잇몸질환은 치아에 붙은 치석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치석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만 먹어서 잇몸질환은 나아질 수 없다.

치과에서 잇몸치료 받는 것과 병행해 잇몸약을 함께 복용해 잇몸이 빨리 치유될 수 있게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 (02)776-2882

(다음 호에 계속)

[법보시 PR]

대중법문

행복만이 있는 불국토

〈아미타경〉
만일 아미타불의 명호를 받들어 지니기를 하루, 이틀, 칠일, 혹은
그 이상 일심불란하게 염하면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이란, 인간 자체의 숙명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이다.

무량수경을 대경(大經)이라 하는데 대해 아미타경을 소경(小經)이라 일컫는다.

또 사지경(四紙經)이라고도 한는데 이것은 경문이 넉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미타경은 이 경을 설법한 장소와 이 경을 청법하는 그 열좌(列座)의 대중들을 열거한 서설에 이어서 극락국토의 성중(聖衆)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염불함으로써 정토에 왕생한다고 설시(說示)하였으며, 또 석존과 제불의 증명을 들어서 믿음을 전하는 것으로써 결론을 삼고 있다.

이러한 아미타경의 극락의 국토와 성중(聖衆)을 설하는 일부를 설명하는 글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사리불아, 여기서 서쪽으로 십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의 이름이 극락세계이니라.

그곳에도 부처님이 계시니 명호를 아미타불이라 하며 이제 그곳에 계시어 지금도 설법하느니라. 그곳에 계시어 부처님은 한 없는 생명과 광명의 체현자(?現者)이시니라. 사리불이여, 그 세계를 왜 행복한 극락세계라고 하느냐하면 그 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무 괴로운 마음이 없고 그곳에는 다만 행복만이 가득할 뿐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 불국토를 행복만이 있는 곳이란 뜻으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남해 미륵암 주지 청운

아미타경은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정토의 장엄에 대해 여러가지로 기술한다. 그러므로 그 장엄의 모습을 듣는 자는 저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는 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선근(善根)이 작고 복덕을 닦지 않는 박복중생 곧 소선근복덕(小善根福德)의 인연의 범부들은 정토의 왕생을 바라보기 힘들다고 하여 그 다음으로 실은 것이 바로 예문으로 보인 앞의 게문(偈文)이다. 곧 범부들이 쌓은 공덕이 적어서 왕생정토(往生淨土)는바라볼 수 없다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반드시 불타 성취의 많은 선근 복덕의 명호를 받들어 지니기를 하루 내지 칠일 그 이상 일심불란하게 하면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내용이다.

믿음이란 인간 자체의 숙명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륵암 청운 011-870-0021]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세이브티베트는 인간존엄의 실현

페스티벌에서 울려 퍼진 하나의 꿈



4th세이브티베트페스티벌에서 열창의 무대를 선보인 가수 강산에.

"우리의 꿈은 히말라야보다 높고 영원합니다."

제4회 세이브티베트페스티벌(Save Tibet Festival)이 8월 8 · 9일 양일간 '롤링홀'에서 열렸다. 가수 강산에와 그룹 체리필터를 비롯한 인디밴드들이 모두 출연료 없이 참여해 티베트의 평화를 외쳤다.

세이브티베트는 인간존엄(Human Right)의 실현이다. 이번 축제에서 만난 자원 활동가 김미나(30 · 회사원)씨는 인도 다람살라에 위치한 난민지원 NGO '록빠(Rogpa)' 산하 무료탁아소에서 2년간 무료로 봉사한 열혈 활동가다. "2005년 9월 처음 문을 연 록빠 탁아소는 티베트 본토의 문화를 이어가지 못하게 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루 일당 천 원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 부부가 500km 거리를 출퇴근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올곧게 키우기란 참 버거워요"라고 말했다.

가수 강산에(44)씨는 공연을 마치고 "우리는 자유롭게 깨어 나고 살아있음의 권리가 있다.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할지 신중해야 하며 나의 음악이 티베트의 평화를 위한 바른 명분이 되길 바란다. 세이브티베트야말로 우리의 삶이자 권리다"라고 말했다.

총감독을 맡은 티베트인 잠양(32)도 티베트 국기를 펼쳐 보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행사를 통해 모아진 후원금은 100% 전액 다람살라로 향합니다. 티베트 난민의 고통은 이 사회가 당면한 현실임을 체감해 주길 바랍니다. 한국인에게 감사합니다." 제4회 세이브티베트페스티벌은 끝났지만 티베트의 인권을 되찾는 그 날까지 록빠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www.rogpa.com

가연숙 기자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가둔다

조각展 '바람을 잡다' 진천종박물관서 24일까지

'바람을 타고 무수히 많은 꽃잎이 난무한다. 그것이 바로 꽃의 흔적이다.'

자연의 조화를 바람과 꽃으로 각인해 온 작가 이점원(동국대 인문과학대학 미술학부 교수)의 '風花印-바람을 잡다'展이 충북 진천에 자리한 진천종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8월 24일까지 열린다. 고정된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고 한자리에 머무름 없이 늘 움직이는 바람처럼 변화의 작업을 시도해 온 작가의 서른 번째 개인전이다. '무제'의 이름을 단 60여점의 조각 작품 속에는 세월의 인고를 아로새긴 산화락(散花落)의 풍경이 메아리친다.

아울러 작가의 경주 작업장을 방문하는 놀자학교 1박2일 문화탐방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나도 작가-지점토로 만드는 꽃 도장' '누름꽃 액세서리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린다. (043)539-3847 가연숙 기자

11th서울프린지페스티벌 8월 30일까지 홍대 주변서

젊음의 거리서 '무상'과 '마음지도' 그리기



'현대인이여 쇼를 하자. 앞서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쇼를 하자.'

마임이스트 김봉석(극단 마네뜨 대표)은 제11회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서 공연 '무명세상1 · 2'를 통해 좌표를 잃은 인간 세상에 화두를 던진다. "불교의 정신세계를 다시 한 번 되새길 기회입니다. 탄생과 함께 지니는 번뇌의 뿌리를 자아의 소우주와 화합해 길을 열어 보이고 싶습니다." 몸의 언어 '마임'을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번뇌의 근원인 무명(無明)으로부터 변형과 왜곡으로 진화하는 현대인의 '쇼'를 테마로 욕망과 이익을 앞세운 인간을 표현한다. 삶의 단편과 근원적 번뇌에 대한 고민은 인간의 이해와 고찰을 재조명한다. 탐하고 화내며 욕심으로 얻은 굴레의 짐을 되돌려 관객과 교감을 나눈다. "어느 날 스스로 옭아맨 그물 속에서 발버둥 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구하려고만 애쓰다보니 시련의 끝이 없더군요." 마임 '무명세상'은 관객 스스로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대화한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서는 불교 색채에 흠뻑 취한 공연이 눈에 많이 띈다. 극단 작은신화의 연극 '진흙'은 마리아 아이린 포네스의 <진흙>을 원작으로 사회라는 구렁텅이 속 인생들의 자화상을 그린다. 극을 통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묻는다.

거리전시로 펼쳐지는 바쁜벌공작소의 '마음의 지도'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하다. 사람마다 다르게 지닌 공간의 기억을 공감대로 환기한다. 지도 중간에 '지금 여기'를 그리고 관객은 자신이 온 길을 마음속으로 더듬으며 출발지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길을 그려본다. 그 길은 실제의 여정일 수도 있고 의식적인 변화나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 서로 다른 길을 통해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며 자기 자신의 여정에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새로운 예술을 발견하고 실험하며 자유롭게 상상하는 '프린지(Fringe)' 축제는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홍대 젊음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독립예술축제다. 관객은 소극장뿐만 아니라 야외거리 · 로터리 · 공원 · 지하보도 그리고 카페 · 클럽 · 갤러리에서도 작품을 볼 수 있다. 230여개 공연자와 팀이 참여해 연극 · 무용 · 마임 · 인형극 · 음악 · 미술 · 퍼포먼스와 이를 혼합한 복합장르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축제 내내 40여개의 장소에서 300여회의 공연과 전시가 발길이 닿는 곳곳에서 신선한 예술을 가득 채운다. 프린지축제에서 독립예술은 현재진행형이다.

www.seoulfringefestival.net (02)325-8150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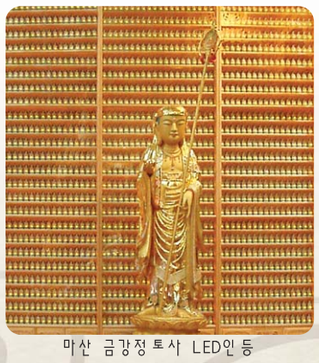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웃음보살 불등거사 <11>

구성 : 김흥인



입이 찢어진 사람 [백유경(百喩經)]



어느 사람이 쌀 찧는 것을 보고 한 입 훔쳐 넣었다. 그때 아내가 그에게 말 걸었지만 입에 쌀이 가득 찬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 못하는 남편을 이상하게 여긴 아내는 입안에 종기가 났다고 생각하고는 의사를 불렀다.
남편을 진찰한 의사는 "매우 중한 병입니다. 칼로 입을 째야합니다"라고 말하고는 바로 칼로 입을 쨌다.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쌀이 쏟아져 나왔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 온갖 악행을 짓고 계율을 범하고도, 허물을 숨겨 드러내기를 꺼리다가 끝내 지옥이나 아귀에 떨어진다.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조그만 부끄러움 때문에 쌀을 뱉지 않아 칼로 입을 째 쌀이 드러나는 것 같다.

옛 판화의 세계

목련존자의 효심
목련구모(目蓮救母)



석씨원류(釋氏源流)중 목련구모(目蓮救母)편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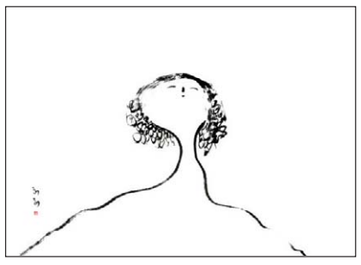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우란분절이 유래된 목련존자 이야기다. 부처님 십대제자중 신통제일인 목련존자가 생전에 악행을 저지른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신통력으로 어머니 계신 곳을 찾다 아귀지옥에 떨어져 고통 받는 어머님을 발견하고, 구제하고자 노력했으나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는 불가능하자 부처님께 어머니를 구해줄 것을 간청하는 장면으로 이뤄졌다.

<우란분경>에 따르면 목련존자가 처음 6신통을 얻고, 부모를 제도해 젖먹인 은혜를 갚고자 도의 눈으로 세간을 비춰 보니, 죽은 어머니가 아귀 세계에 태어나 음식을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다. 목련존자는 발우에 밥을 담아 어머니를 찾아 공양 올렸다. 어머니는 밥을 뭉쳐 입에 넣었으나, 불붙은 숯으로 변해 끝내 먹지 못했다. 이에 목건련은 슬프게 울부짖으며 돌아와 부처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깊이 맺혀 네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신과 지신도 역시 어찌할 수 없다. 마땅히 시방세계 대중 스님들의 위력과 신통력을 빌려야만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마땅히 7월 15일에 7대의 조상과 현재 부모를 위해 밥과 온갖 맛있는 음식과 다섯 가지 과일을 담고 고일 쟁반과 그릇을 갖춰 온 세상의 달고 맛있는 음식을 쟁반에 담아 시방세계의 대덕 스님과 대중 스님에게 공양드리거라. 그리하면 현재 부모의 수명이 100년 동안 병이 없을 것이며, 일체 고뇌하는 근심이 없어질 것이고, 나아가 7대 부모에 이르기까지도 삼악도와 아귀의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과 하늘 세계 가운데 태어나 복락이 다함이 없을 것이다."

목련존자 효심으로 우란분절이 생긴 이래 우란분절은 조상들을 천도하는 불교의 5대 명절이 됐다. 이 때가 되면 잊었던 조상의 존재를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된다. 백중날이면 한 번씩 생각나는 조상은 우리에게 이제는 잊혀져야만 하는 존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상은 바로 우리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발원지이며 존재의 근원인 뿌리다. 이번 백중날은 온가족이 함께 절에 가서 조상에게 공덕을 쌓고 자손들이 번창하는 지혜로운 날이 되길 바란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천년의 세월을 씻고/慈棲

내 살아 있는 동안

괜찮다 울어도 울어도 괜찮다.
세상에 울지 않는 자 아무도 없다.

괜찮다 슬퍼도 슬퍼도 괜찮다.
세상에 슬픔 없는 자 아무도 없다.

괜찮다
울어도 슬퍼도 외로워도 고독해도

살아서 울지 않는 자 아무런 사랑없고
살아서 슬픔 없는 자 아무런 기쁨 없다

살아서 외로움 없는 자 · 아무런 삶의 의미 없고
살아서 고독 하지 않는 자 인생이랄 것도 없다.

괜찮다
조금 불행해도 조금 행복해도
내 살아 있는 동안

"지상낙원 · 이상향 · 최고의 파라다이스
바로 일리지움 입니다"
– 웰빙에서 웰다잉까지 일불사 일리지움이 함께 합니다.

일불사에서 기존의 장묘문화를 밝고 아름답게 개선시키고자 진보된 마인드와 남다른 경영방침을 앞세워 "일리지움"에 담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ELYSIUM의 의미
축복받은 사람들이 사후에 모여사는 지상낙원에서 어원을 빌려 일불사의 어미에 맞추었습니다.
우리모두의 이상향 최고의 파라다이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불사 주지인 성진스님입니다.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국토강산을 물려주기 위해 자연친화적이고 편리하며 성묘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수 있는 현대적이면서 미래를 보는 해안으로 우리나라의 장묘문화에 큰발전을 이루고자합니다.



"일불사 일리지움"
충청의 명산이 서대산자락에 위치
▷교통편리 및 넓은주차공간, 셔틀버스운행
규모있고 품격있는 봉안 시스템
▷자연친화적이고 합리적 안식처 및 아름다운 조경의 원기충만의 최적공간
철저한 관리와 영가천도의 제례의식 시행
▷사찰에서 운영함으로 철저한 관리및 제례의식 시행
찾아오시는 길
대전에서 30분거리.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에서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 추부 I.C.에서 5분거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일불사 일리지움 041)754-6108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호스피스 요양원
엄마같은 정성으로 함께 할 주방장 1명, 주방보조 1명을 모집합니다
043)298-2258 (청주)
011-9732-8562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분
전화 주십시오
02)584-8844
011-354-8484

불교전통 불공의식(범음,범패)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
각종불공
(바라춤,충무,호접)
010-2200-8176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 1, 주방, 거실, 욕실 / 방 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 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초혼 · 재혼 · 국내 · 국제
대졸 초 · 재혼,신원확실
직장인,공무원,사업가
국제,필리핀,베트남,한족
재혼 70세까지 전화상담환영
02)312-5004
017-766-6888

사주학 · 매화역수 강좌
개인지도, 책임지도
평생운,연운,월운,일운,건강운, 빙의까지 정확히 적중시키는 수리학의 비법을 전수합니다.
(1개월 완성)
02)747-9136
011-307-2975

역학 비밀 출장 개인지도
초보자도 30일이면 사주를 통달할 수 있는 옛스님들의 비법을 시원히 전수해 드림
(비구, 비구니, 일반인)
010-5668-5775

氣
★ 그대는 이미 천지를 얻었다 ★
흥망성쇠 성질감정 조절지도 훈련
풍수명당, 시험합격 기도터 성지
운의흐름 개운시기 전생 우울증세
장단기 수행지도 단체 개인훈련
마음.영혼.출가희망자 선발 공양주
안성백마사 031)674-7188
백마사불교대학 017-203-9400

神과 물질 그리고 권력
명예따위에 노예가 괴어
世世生生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망상을 生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第一戒殺生계의
심오한 뜻을 다시금 받아
지녀 了解토록 널리
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11-9752-1080

入山61년 雲水33년
이제야 비로소 入息 出息
自覺케 되었더이다
實參과 活句로써
전법 교화할
포교도량을 찾습니다
(대소불문)
011-9752-1080

사람은 누구나
다 如來藏佛임을 自覺하고
入息 出息 修行하면
無位眞人이 되어
이 오탁악세에 오히려
영원한 숨을 얻을 수 있으련만
011-9752-1080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042)282-9270

행 자 모 집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재암자
031)774-476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 – 65세)
▷보시금 월 100만원
010-7160-273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 – 60대)
▷위치 : 경주
054)748-35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경북안동
054)858-2630

불법에 귀의하며 충 · 효 · 예 정신을 갖춘 전통문화 옛것을 취미로 사랑하는 진솔한 불자 처사님께서 봉사 정신으로 여 사업자를 도와주실 신심돈독한 도반이 되실분 연락바랍니다
(퇴직한 공직자 출신 환영)
010-8426-3434

조계종 고려고찰 산사수려한 곳에서 신심있는 40-50대의 공양주와 또한 스님될 뜻이 있는 보살을 구하며 그리고 사원관리 운영할 비구니스님을 구합니다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차량보시 원합니다
저는 서울 도심에서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미승 입니다
9,12,15 인승 승합차를 저렴한 가격이나 무상보시로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011-9927-6023
02)2699-6023

공양주보살님 법당보살님 모십니다
55세 이상 (천년고찰)
041)836-5066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02)359-7317
011-216-7317

공양주보살 (50대후반) 모십니다
▷충남 예산
조계종 비구니스님 사찰
041)335-3091

50세 비구스님
(법랍 20년차)
사찰운영이 어려운곳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0-9390-3879

청정한 수행도량에서 가족같이 지내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010-6440-5255

기도스님 (비구스님) 모십니다
055)375-0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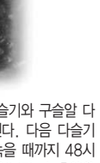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맹리)
▷수정사
031)333-5014

어르신을 모십니다
(편리한 교통,수려한 자연환경)
031)333-5014

수 중 촛 대
2008년 9.5 ~ 9.8
한국불교 박람회 출품 예정



특 징
1.물속에서 양초가 타므로 화재위험이 없습니다.
2.촛불이 50시간-56시간 타므로 초 절약 됩니다.
3.촛농과 그름이 없고 공기정화 및 가습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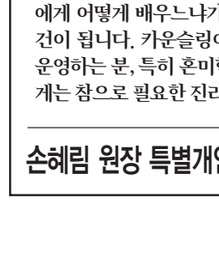
만 행 화 011-9000-5715 / 02)733-5715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중급 (월요일) 18:30
• 관상 · 풍수 : 매주 수요일 18:30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암침술 즉효요법
● 개강 : 9월 5일(매주 금요일반)14:00 ~ 주 1회
9월 6일(매주 토요일 주간반)14:00 ~ 주1회 / (야간반)19:00 ~ 주 1회
9월 7일(매주 일요일반)14:00 ~ 주 1회
● 과정 : 1. 기본과정(경락진단,정확한 취혈,사암침 즉효요법100)
2. 전문가 과정(카이로 푸락틱, 맥진법, 사암침 즉효요법150)
● 특전 : 1. 개인 및 책임지도로 비법전수 2. 100% 실습위주 교육 3. 교재 무료
4. 재수강무료 5. 중복 수강환영 6. 회원 무료치료
7. 저자 직강(사암침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즉효요법)
● 공개강좌 : 매주 수요일14:00 ~ 주간(일반 회원 대상) / 20:00 ~ 야간(직장인, 의사님 대상)
● 추천 : 충남 청양 신 충수 의학박사께서 회원님께 적극 추천합니다.
● 상담 : 02)747-9136, 011-307-2975(종로3가 국민은행빌딩 401호)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신병(신을 받아야 된다는)이 28숙 기도로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회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 도 건 축 대표 강 충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 202호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 TVbuddha.co.kr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응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기문명리학강의안내
www.gimun.net
(사주, 작명, 택일, 관상, 풍수, 단시, 병방)
교육장소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 문의 02)961-0871~2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기문명리학 (해단, 작명 과정)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사주명리학 (기초, 원리 과정)
개강일시 2008년 9월 첫주부터 (8월 말까지 선착순 마감)
원서접수 경희대학교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



◎ 담당 교수 : 손 혜 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6기)
손혜림 기문넷 대표
02)3476-3433

기문명리학이란?
일반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학문입니다. 수 천년동안 전맥에 의해 내려오는 학문인만큼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가 기문을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관건이 됩니다. 카운슬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 분,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분,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진리의 학문입니다.
손혜림 원장 특별개인지도 문의 010-2376-3433

패철 보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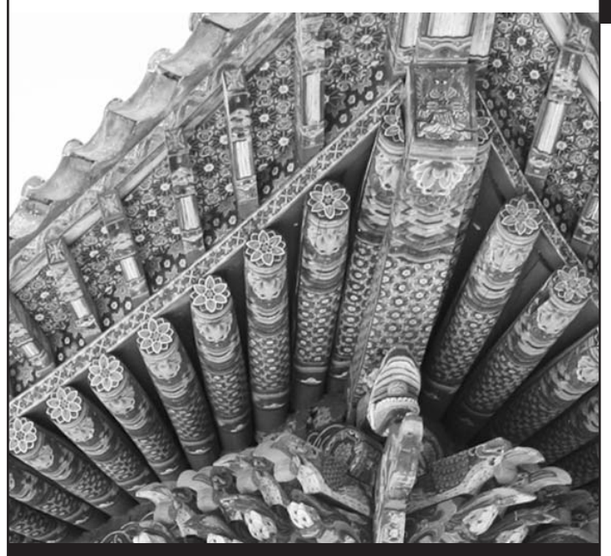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 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 저. 표지본문 전체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이 책 구입한 분 www.kbs.cc에서 나경 사용법 강의 무료시청. 주문전화: 1688-1137.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02)826-5067
031)774-5067 (토요일 10시 ~ 일요일 4시까지)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기도도량(울산)
● 대지 2000평, 주차장 300평
● 법당 40평(기와지붕)
● 요사채 30평+20평
● 지장전 및 산신각
● 산좋고 물좋고(계곡접)
● 전망좋은 기도도량 최고
● 양도가 : 9억
● 위치 : 양산(마당 넓은 절)
● 부지 600평 법당 30평
● 요사채 40평+20평 산신각 5평(목조)
● 5층 탑, 뒷산 아름다운 절
버스진입 가능,주차장 완비
● 양명현 탁트인 전망
● 가격 : 8억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상담 서비스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 법당 : 15평
● 요사 : 60평
● 부지 : 3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경북
● 법당 및 요사 : 70평
● 부지 : 22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서울
● 법당 : 28평
● 요사 : 38평
● 부지 : 170평
● 가액 : 1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 지정면 소재
● 땅 21000평, 싯가 평당 35,000원
● 한옥 2채 법당 삼존불 용왕당, 산신당 스님 요사채
● 요사채 20평 대형방 20평, 공부방 11개 주방20평
033)732-7919 / 010-7101-085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 대지 391평(사용가능 땅 600평)
대웅전 : 35평
요사채 방5개,부대시설 일절
● 영광불갑사까지 이어지는 산세
● 2억2천만원(절충가능)
010-6654-16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4층건물중 2층(42평)
● 법당 35평, 비품일절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 가능함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양도함
● 보증금 500만원 / 월 45만원
시설비별도 답사후결정
010-7496-331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3층건물중 3층(불교대학운영중)
● 평수 : 108평
● 법당,종무소,대중방4,
화장실 2개,욕실완비,
옥상사용가능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4802-5288
011-9538-445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최고 중심지
● 4층건물중 4층(60평)
● 법당(40평)
아미타불 삼존불(동불)
● 방2개, 거실,욕실,
대형에어컨,엠프시설완비
● 가액:보증금 500만원,월 30만원
시설비 3천8백만원(절충가)
010-4583-6950

사 찰 안 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 대지 :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3천만원
011-9928-0005
061)544-048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중구부락 210번지 금병암
● 평수 : 대지 총69평(일반주택)
● 법당 15평,삼성각2평,방4
● 가액:1억 3천만원
055)744-6188
010-4871-27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북부 2개의 신도시 부근
노송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부지 630평(실사용 1000평이상)
법당 20평 요사채2동(100평,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시청에서 차로 5분거리,
전철 개통 예정
포교수행의 최적지
● 가액 : 시세절반 상담후 절충가
주변 주택가 평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선)
010-5290-3709

지리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 요사,산신각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대출가능)
011-9393-49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대흥동
● 평수 50평 3층중 2층
● 법당 방3 해우소2
공양간 등 아파트식구조
모든시설 최상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300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54)281-1147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석포면석포리
● 밭 3,200평. 백두대간 자락
● 포장 진입로, 약수 있음
● 가액 : 6천만원
* 토굴이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4920-3108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동구 일산동
바닷가 인접
● 평수 : 60평
● 포교 최적지, 시설완벽
● 보증금 3천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527-7001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석공리
● 대지 280평, 건평 40평
● 구옥 깨끗히 수리함
건축물 대장 있음
도지 1년 쌀 한가마니
● 영동 고속 톨게이트 공사예정지역
전철 독선하 2009년 개통, 도시가스
● 총가액 : 3천 500만원
● 불필요한 장난 전화 사절
017-379-2201
010-7231-2019

사찰(급) 안내
● 위치 : 안동 암산 유원지 테마 마을
● 대지 200여평 법당 28평
● 큰방3개, 비품 일절 양도
● 삼존불, 소불(240불),각단탱화
● 관광단지조성계획지로
주변경관이 수려함
● 삼성각,지장보살(6m),
텃밭(80평) 시내 10분거리
주변땅으로 잔디조성
● 가액 : 1억 7천만원
054)858-9628~9
019-377-8967

임 법 당
● 위치 : 양산시 통도사부근
● 대지 320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5평
방3, 거실, 공양간
2층 법당 20평 친견실
● 아미타삼존불, 후불탱화
아미타 지장관음신중
● 텃밭있음
절앞 버스정류장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집기일체 양도
시설비 2200만원
010-4640-4747

도심속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봉천동
서울대 전철역 10분거리
● 1층 법당, 거실, 주방 /
지하 식당 활용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8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4640-95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IC부근
● 대지 : 220평 ● 가액: 5억원
● 건물 1층 요사채 47평
● 2층 법당 23평, 산신당 4평
● 차고15평 심야전기
011-9114-993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현산읍
면소재지 바로옆동네
● 100여가구 사는 마을 맨
뒷집(산자락)
● 대지 : 350평 임법당 32평
(살기좋은곳)
※직접 방문해 보시면 첫눈에 ok
● 가액: 7000만원
011-621-9549

사 찰 안 내
● 강원도 원주 지정면 소재
● 땅 21,000평
● 싯가 평당 35,000원
● 한옥2채,법당,삼존불,용왕당
산신당, 스님 요사채
● 요사채 20평, 대형방20평
공부방11개. 주방 20평
033)732-7919
010-7101-08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감악산(柑岳山)내
● 풍광 수려 대작불사 대가람 최적지
● 입야 4380평 유실수-감, 밤, 주목, 다수
관리지역"종교부지" 허가 500평-현재대작불사중
● 법당 25평(예정) -다글라스 목재 구비
화엄성중전 10평 법당완축(알마시카목재)
지장전 15평, 관음전 15평, 요사 25평
(3채증축예정)
● 토목공사 완비 지주석-자연석 완비
● 요사 15평조립식(방4) 창고개조-5평(방사2)
전원주택 1동-건평 15평(방사2)대지100평
8평 조립식(방사2, 창고1)
● 원력 높은 스님 분께는 절충가능합니다
장난전화 사절 ● 가액 : 4억 2천만원
010-5547-1518
010-4001-341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모종동
(온양 온천 터미널인근)
● 평수 : 빌라 2층건물중(2층 23평형)
● 방3,거실,욕실(대지지분 17평)
● 법당 : 관세음 보살봉안, 인등, 탱화
● 가액 : 4천만원(시설비 포함)
● 특징 : 년말 수도권 전철 개통예정
(투자요망)
041)533-0853
010-3011-085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1동
● 법당1, 방1, 세면장, 주방
● 후불탱화,신중탱화,
관세음보살님1분
● 보증금 1300만원, 월32만원
시설비500만원
018-385-1234
02)598-5339

사찰 부지 안내
●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로 쓰는 매우 양호한
명당조건을 갖추었음
● 부지 : 15,000여평
● 위치 : 지리산 악양면
해발 약 500m(옛 사찰터 임)
011-9637-387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 지하철역 5분거리)
● 평수 : 약 42평(2층)
● 구조 : 법당 약20평
(삼존불 모셔있음)
● 방2,주방겸거실,
단독 남 · 녀화장실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월30만원
(시설비 2천3백만원별도)
010-6835-7370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양읍 소재 중심가
● 입지 : 정류장, 재래시장, 주차장
보건소, 병원, 약국, 슈퍼
사찰주변에 위치한 명당
● 규모 : 대지 130평 대웅전 42평
상가 30평 현재 임대중
● 가액 : 3억 5천
(일부후불가능. 스님직)
011-538-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5분거리
● 대지 120평, 1층 요사채,
2층 20평(조립식)
● 별도 요사채 기와집,산신각 1채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8천 5백만원
010-6288-9777

사 찰 안 내
● 위치 : 문경시 마성면
정리1리 마을 끝에집
● 평수 : 147평.방2칸 부엌1개.
욕실 뒤에 매실나무7년생
6그루오죽(대)나무숲
● 가액 : 1,200만원 (가격조절가능)
※ 조계종스님이 계시는 토굴로서
오래 거주하며 살수있음
054)571-82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 법당 신축 건물 28평
밭 약 50평
용왕각 4평, 산신각
전체 부지 약 1,000평
● 가액 : 3억
010-2536-8774

포교원안내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약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영가단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31)405-4181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경동시장
● 평수 : 25평, 시설완벽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600만원
● 유동인구 엄청많음
● 명리,역학 완벽한자 환영
02)966-6687

포교원 안내
● 위치 : 천안 신부동(도로접)
2층 건물중 2층 독채
● 평수 : 25평. 삼존불
● 보증금 1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7676-2477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칠곡 아이씨 근교
● 평수 : 46평, 3층 건물 중 2층
법당, 방 3개, 인등, 원불 평생입회 봉안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주차장 완비
아파트 밀집지역, 시설비 가격절충
● 즉시 법회 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011-9424-477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전철역 옆
● 평수 약 40평
● 포교 최적지,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절충
011-526-0967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표충사 입구
● 대지 : 93평 임법당(20평)
● 가액 : 8800만원
055)352-5998
010-6247-5656

사 찰 중 개
● 위치 : 대구
● 부지 : 108평
● 법당 : 70평
● 요사 : 14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 부지 : 오천여평
● 시설 : 대웅전,자장전,관음전,삼성각,설송당,
자양당,요사채(건출 총 170여평) 잘 지은 집
● 환경 : 좌청룡 우백호 노적봉이 휘감은
수려한 산속, 지장기도도량의 명당자리
● 계획 : 실버복지원 납골당-토목공사 완료
● 가액 : 시세 50% 직거래, 답사 후 절충 결정
055)356-6083

토굴 수행터 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지리산 부근
● 조용산야 대지 203평, 건물 15평, 까대기 창고 외
대웅전 지을 터 있음, 좋음, 남향,
보일러 입식 부엌, 불때는 구들방 겸용
● 특징 : 뒤는 산이고 대밭 호안대 식수 풍부 교통편리
시내5분거리 명승지 고을로 독립 가옥 한적한 수좌
● 토굴로 최상
● 가액 : 8,000만원
* 귀농 하실 분 과실 수 전답 약2,000평 관리 지역
비닐하우스 구둘 토굴 남향 호안대 인적드문 산중
솔밭 가운데, 전기 식수 유, 큰 차 진입 가능, 평당6만원
011-9668-7890

사찰(터)안내
● 위치: 양산시 하북면 백복리
● 평수 : 700평
● 통도사 내원사에서 10분거리
● 가액 : 평당 50만원(절충가능)
011-558-6130/055)867-161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국악문화회관 후문 건너편)
● 평수 : 90평(7층 건물중 7층 전체사용)
● 법당 : 40평(미타삼존불, 원불 200불, 인등 600개, 신중단, 영단, 연등)
● 주지실, 사무실, 상담실, 주방겸 공양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완비
● 보증금 4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천만원(최상급, 절충가)
스님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
042)252-5450/055)944-5450
011-649-0108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49>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⑬

육근 중 안근만 의지해도 수행 가능

云何名眼見色時修觀 應作是念 隨有所見 卽相空寂 所以者何 於彼根塵空明之中 各無所見 亦無分別 和合因緣 出生眼識

다음으로는 색을 볼 때에 수행하는 관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수행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해야만 한다. 내 감정에 위배되거나 순종하거나 위배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이 세 종류의 색은 보는 데 따라 허공 꽃, 물속에 어린 달,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 등과 같아서 본래 스스로 공적하여 끝내 털끝만큼도 얻을 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근(根) 진(塵) 공(空) 명(明) 등은 각자 보는 바가 없고 또한 분별도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정물로서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분별이 없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안식을 이끌어내는 보조의 역할을 한다. 이 문제를 눈의 측면에서 논해본다면 눈은 볼 수 있는 안근이 있고 보이는 색진이 있다. 외부를 볼 때 보이는 색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떠나서 색진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범부의 육안으로는 환하게 본다해도 한 푼, 한 치의 간격을 통과하지 못하며 또한 껌껌하게 어두워도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반드시 여러 가지 외부 인연이 화합해야만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안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식은 사물을 명료하게 식별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일체 제법을 관조하고 명료하게 분별하기 때문이다.

안식은 안근과 색진이 인연이 되어 일어난다. 눈은 안근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안근은 안식으로 인해서 볼 수 있다. 이것을 안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경전과 논서에서는 "안식은 아홉 가지 인연이 일시에 화합해야만 일어나고 이식은 여덟 가지 인연이 화합해야만 일어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광명 공간 근 진 등 네 가지 조건만을 말하고 있겠는가. 이는 자세함과 간략함의 차이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아홉 가지 인연이 화합해야 안식이 일어난다는 의미에 대해 대략 살펴보기로 한다.

아홉 가지 인연이 화합해야 안식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연(緣)은 보조해서 성취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말해본다면 광명 공간 근경 등의 보조조건이 화합하여 안 이 비 설 등 여덟 종류의 식을 일으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안 등 전오식은 제팔식 상분을 의지해서 건립되고, 제팔식 종자를 따라서 일어나며, 광명 공간 등 모든 경계를 자체 모습으로 삼기 때문이다.

육식은 팔식상분과의 인연으로 일어나고, 오진경계를 취하여 분별하며, 칠식을 의지해서 집취한다. 제칠식은 제팔식 견분과의 인연으로 일어나며 제육식의 염정법을 전환하여 그를 의지한다. 제팔식은 모든 식의 근본이다. 세간과 출세간 등의 일체법 종자를 함장하며 제칠식을 의지해서 전오근 오식을 의탁하고 전환하는 것으로서 자체 모습을 삼는다.

식과 인연은 상호 관계성으로 일어나
안식은 모든 인연 화합해야 볼수 있어

이를 따라 알 수 있는 것은 식은 조건을 깔고 일어나며, 그 보조인연은 다시 식을 깔고 있어 이 두 가지는 서로 서로 의지관계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식이 일어나는 조건은 많고 적음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안식은 아홉 가지 인연이 일시에 화합해야만 일어나고, 이식은 여덟 가지 인연이 화합해야 일어난다고 말을 하였다.

안식을 일으키는 구연(九緣)에 대해 설명해 보자.

첫 번째는 명연(明緣)이다. 광명은 해와 달을 말한다. 광명은 모든 색상을 환하게 나타낼 수 있다. 눈은 광명으로 인해서 사물을 보며 광명이 없다면 안식이 발생하지 못한다. 따라서 광명은 안식을 이끌어내는 보조조건이다.

두 번째는 공연(空緣)이다. 공간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모든 색상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다. 눈은 공간이 있어야만 볼 수 있고 귀도 공간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다. 만일 공간이 없다면 눈과 귀 등 두개의 식은 발생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공간은 안식과 이식을 이끌어내는 보조조건이다.

세 번째는 근연(根緣)이다. 근이란 안 이 등 오근을 말한다. 안식은 안근을 의지해서 볼 수 있으며 신식은 신근을 의지해서 촉감을 느낄 수 있다. 가령 오근이 없다면 전오식은 의지할 대상이 없게 된다. 따라서 오근은 오식이 의지하는 보조조건이다.

네 번째는 경연(境緣)이다. 경은 오진경계를 말한다. 안 등 오근이 비록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는 오식을 갖추기는 했으나 이 오식에 상대되는 색 등 오진이 마주하지 않으면 오식이 독자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때문에 경은 오식을 이끌어내는 보조조건이다.

다섯 번째는 작의연(作意緣)이다. 수 상 행 등 심소가 발현하면 대상경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살피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눈이 처음 색경을 마주했을 때 바로 지각하고 살피라는 마음이 일어나 그 마음을 이끌고 인식대상경계로 나아가 제육식으로 하여금 그 대상경계는 선이다, 악이다 하는 분별을 일으키게 한다. 나머지 이 비 설 신 등 네 가지 근도 역시 이와 같다. 이 때문에 일체 시간과 모든 경계에서 지각하고 살피는 마음이 두루 보편하게 활동하는 것은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책하는 작의(作意)심소의 작용이다. 따라서 작의심소는 안 등 육식을 일으키는 보조조건이다.

여섯 번째는 근본의연(根本依緣)이다. 근본은 제팔아뢰야식이며 의(依)는 의탁한다는 의미이다. 제팔식은 모든 식의 근본이다. 안 등 육식은 제팔식 상분경계를 의지하여 일어나고 제팔식 상분은 안 등 육식을 의탁하여 일어난다. 따라서 근본의는 육식을 일으키는 보조조건이다.

일곱 번째는 염정의연(染淨依緣)이다. 염정의는 제칠말라식을 말한다. 일체 염정제법이 모두 말라식을 의지하여 염법으로도 정법으로도 전환한다. 안 등 육식이 색 성 등 육진경계에서 모든 번뇌와 혹업을 일으키면 이 번뇌 염법이 전환하여 제팔식으로 들어가 유루생사법이 된다. 만일 육식이 모든 청정한 도품을 수행한다면 이 청정한 도품을 전환하여 제팔식으로 귀결되어 무루열반법을 성취한다. 그 때문에 제칠식을 염법과 정법이 번갈아 의지한다하여 염정의라고 한다. 하지만 칠식은 팔식을 의지하여 일어나고 팔식은 칠식을 의지하여 인연을 따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다. 때문에 염정의는 안 등 팔식을 일으키는 보조조건이다.

여덟 번째 분별의연(分別依緣)이다. 분별은 제육의식을 말한다. 이 식은 선 악 유루 무루 색신 등 제법을 분별한다. 안 등 오근이 비록 오진경계를 취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모두가 제육의식을 의지하여 분별을 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오근이 오진경계의 좋고 나쁨을 마주하게 되면 육식분별을 따라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제칠식의 염정도 육식분별을 따라서 알며 제팔식의 상분도 육식분별을 따라서 나타난다. 때문에 분별의는 안 등 팔식을 일으키는 보조조건이다.

아홉 번째는 종자연(種子緣)이다. 종자는 안 등 팔식의 종자를 말한다. 안식은 안근종자를 의지해서 색을 볼 수 있다. 나머지 육식도 여기에 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칠식은 염정종자를 의지해서 간단없이 상속할 수 있고 제팔식은 제법종자를 함장함으로써 일체제법을 출생할 수 있어 모든 식은 각자 자체종자를 의지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종자는 안근 등 모든 식을 일으키는 보조조건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홉 가지 인연이 일시에 갖추어져야만 안식을 출생할 수 있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육종무위법(六種無爲法)

'무위법(無爲法)'은 세간과 출세간 등 일체 제법의 자체 진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는 상주하여 인연에 따른 생멸이 없으며 일체 인위적인 업력의 조작이 없기 때문에 자성은 항상 고요 적정하여 시끄럽게 요동하는 유의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체의 조작[爲]이 없다는 의미인 '무위'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허공 택멸 비택멸 부동 상수멸 진여 등 여섯 종류의 무위법(六種無爲法)에 대해 개략적인 의미만을 서술해보겠습니다.

허공은 모든 색법의 조작행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체 성질은 공적하여 생멸이 없기 때문에 '허공무위'라고 합니다.

'비택멸무위'는 유위법 가운데서도 유위법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즉 인연이 일시적으로 결손되었을 경우 그 자체는 일시적이나마 공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무위법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괴로움이 떠난 적정한 상태는 번뇌가 영원히 끊겨 잡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택멸무위'라고 합니다. 이는 수행을 통해 증득된 깨달음의 경지를 말합니다.

'부동무위'는 괴로움과 즐거움 등 모든 감정을 떠나 그 어느 쪽으로도 요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인천유루선정(人天有漏禪定)에 해당됩니다.

부동무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감각의 상태인 사수(捨受)마저 버린 상태에서 삼고(三苦)를 모두 떠난 고요 적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상수멸무위'라고 합니다. 이는 불법내의 소승이 닦는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天)의 선정에 해당되며 유루와 무루에 두루 통합니다.

'진여무위'는 일체법 구경의 진리입니다. 진여의 이치는 무아(無我) 실성(實性) 무상(無相) 실제(實際) 중도법계(中道法界)로서 항구하게 상주합니다. 따라서 이는 일체법에 보편하기 때문에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유식론'에서는 육종무위가 모두 진여를 의지해서 건립된다고 합니다. 유위법은 일체사상(一切事相)에, 무위법은 일체사상의 이성(理性)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事]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이치[理]가 있게 되어 유위법을 떠난 밖에 따로의 무위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부즉불리(不卽不異)하고 비일비이(非一非異)의 관계이기 때문에 유위법 밖에 따로 무위법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공 없어야 근본 성취되고 행 다해야 근원 이룬다”

<16>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의 저자 이통현(李通玄) 거사



그림 · 김홍인

어려서 ‘주역’ 심취, 중년에 스승 없이 불교 몰입
‘화엄경’ 연구 몰두 … 저술에 중국적 요소 내포

당조(唐朝)에는 도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당 황실과 같은 종성(種姓; ‘李’)이라는 이유로 중시한 까닭도 있지만, 위진 · 남북조시기 ‘불도지쟁(佛道之爭)’을 거치면서 불교 교의가 도교에 소화돼 종교와 철학적 체계를 갖추게 된 것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특히 남북조 시대 육수정(陸修靜), 도홍경(陶弘景) 등 걸출한 도사들에 의해 도장(道藏)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다시 성현영(成玄英)에 의해 불교의 반야학(般若學)을 완벽에 가깝게 흡수해 도교에 고도의 철학적인 세계가 열린 것도 이유였다. 그러나 중국불교 역시 천태종, 삼론종과 화엄종 등 종파가 출현하면서 교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유 · 도 양가의 도전에 의연히 대치할 역량을 갖췄다. 이러한 중국불교의 발전에 있어서 거사들의 공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가운데 당대 화엄 교의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사가 있었으니, 이통현(李通玄; 635~730) 거사이다.

이통현 거사는 흔히 ‘이통현 장자(長子)’ 혹은 ‘이장자’로 알려져 있다. <거사전>과 <송고승전> 등에 그의 전기가 있다. 거사는 당 황가(皇家)의 자제로 어려서 <주역(周易)>에 심취해 매우 정통했다. 중년에 들어 점차 불교에 몰입했지만, 특별히 스승은 정해두지 않았다. 거사는 <화엄경>에 매료됐었다. 당시 중국에는 두 종류의 <화엄경>이 있었다. 동진(東晋)시기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가 번역한 60권본과 당 성력(聖曆) 2년 실차난타(實叉難陀)가 주역(主譯)하고, 보리유지(菩提流志) · 의정(義淨) · 법장(法藏)이 조역(助譯)을 담당해 80권본을 새로이 완성한 <신화엄경>이다.

개원(開元) 7년(719) 이통현 거사는 기존의 60권본 <화엄경>을 “제가(諸家)들의 소의(疏義)가 지나치게 번잡해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몇 년을 공부해도 얻어짐이 없다”고 비판하고, 태원(太原)의 우현(盂縣; 현재 산서성(山西省)에 속함) 고선노가(高仙奴家; 자료에 따라 ‘高山奴家’라고도 함)에서 <신화엄경>을 3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이때 거사는 3년동안 단 한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매일 아침 10알의 대추와 잣나무 잎으로 만든 전병 1장만을 먹었다. 이 때문에 세상은 거사를 ‘조백대사(棗柏大士)’라고도 칭했다.

그 후 마씨(馬氏)의 고불당(古佛堂)으로 옮겨 연구를 계속하던 거사는 신복산(神福山) 아래 토감(土龕; 현재의 태원(太原) 수양방산(壽陽方山)의 토감)으로 이주해 <신화엄경>에 대한 논서를 찬술하기 시작했다. 5년이 걸려 완성한 것이 바로 <신화엄경론> 40권이다. 논을 완성한 후 계속 <약석신화엄경수행차제결의론(略釋新華嚴經修行次第決疑論)>을 찬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원 18년(730; 일설에는 개원 28년) 3월 28일 토감에서 96세로 좌화(坐化)했다. 이후 거사는 송(宋) 휘종(徽宗)시기에 ‘현교묘엄장자(顯敎妙嚴長子)’라는 시호를 받았다.

거사의 저술은 이외에 <회석(會釋)> 7권, <약석(略釋)> 1권, <해미현지성비십명론(解迷顯智成悲十明論)> 1권이 현존한다. 또한 <십현육상(十玄六相)> <백문의해(百門義海)> <보현행문(普賢行門)> <화엄관(華嚴觀)> <십문현의배과석략(十門玄義排科釋略)> 1권, <안목론(眼目論)> 1권과 다수의 시부(詩賦)가 있다고 하나 모두 소실됐다.

<신화엄경론>은 거사 입적 후 4~5년 후에 광초(廣超) 스님 등에 의해 필사돼 널리 유통됐다. 선종(宣宗) 대중(大中) 연간(847~859)에 복주(福州) 개원사(開元寺) 지녕(志寧) 스님이 80권 <화엄경> 경문 사이에 거사의 40권 <신화엄경론>을 삽입해 120권으로 만들었고, 후에 다시 이를 정리해 <화엄경합론(華嚴經合論)>으로 칭했다. 송대 계환(戒環)의 <대방광불화엄경요해(大方廣佛華嚴經要解)> 1권은 이통현 거사의 학설을 중심으로 징관(澄觀)의 학설을 보충해 만든 것이다. 또한 이 <화엄경합론>과 관계된 것으로 명대(明代) 이지(李贄)가 <화엄경합론간요(華嚴經合論簡要)> 4권과 방택(方澤)의 <화엄경합론찬요(華嚴經合論纂要)> 3권이 있으니, 모두 <화엄경합론>의 요약본이다. 이로부터 거사의 화엄론이 후대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음이 충분히 짐작되며, 거사의 화엄론이 미친 영향을 상세히 논하자면 상당한 분량의 저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녕 스님이 편집한 <화엄경합론> 서문에서 “논에서 밝히는 바는 제가(諸家)의 소의(疏義)와 조금 차별이 있다”라는 것처럼 거사의 <신화엄경론>은 기존 화엄사상과는 차별을 보인다. 그러나 사상 문제에서 “조금의 차별”은 실제 ‘본질적인 차별’일 수 있다. 이 문제는 전문적 논고로 미루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화엄학설과 가장 커다란 차별점은 바로 화엄을 통해 ‘지혜(智慧)’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화엄사상이 ‘법계원융(法界圓融)’에 집중해 ‘이사무애(理事無碍)’ ‘사사무애(事事無碍)’로 귀결하는 것과 다르게 거사의 화엄론은 ‘범성불이(凡聖不二)’와 ‘동일지혜의 원리’를 강조했다. 범부가 발심(發心)할 때 이미 시방의 제불(諸佛)과 ‘둘이 아님(不二)’을 강조한 것이다.

<신화엄경론>의 종지를 밝힌 첫 구절에서 거사는 “유정(有情)의 근본은 지혜 바다를 의지하는 것으로 근원을 삼고 있으며, 식(識)을 내포한 부류들은 모두 법신(法身)을 체(體)로 삼는다. 다만 정(情)이 생기기 때문에 지혜와 멀어지고 생각이 변해 체가 달라지니, 근본에 요달(了達)하면 정이 없어지고 마음을 알면 체와 합일한다. <대방광불화엄경>은 중생의 본제(本際)를 밝힌 것으로, 모든 불과(佛果)의 원천을 보였다. 그 근본이 됨은 공(功)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행(行)을 통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공이 없어야 근본이 성취되고, 행이 다해야 근원을 이룬다. 본원(本源)은 공이 없어도 능히 연(緣)에 따라 자재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비로자나(毘盧遮那)이다. 본성(本性)이 빛남으로써 지혜가 근기에 따라 응하고, 대비(大悲)로 사물을 제도함으로써 비로자나의 이름이 됐다”고 했다.

여기서 거사의 기본적인 입장이 엿보이는데, 중생들은 ‘지혜의 바다’에 의지하고 ‘법신’을 본체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불의 본질적인 관건은 “공부와 수행(功)”에 있는 것이 아닌 “마음을 알고(知心)” “근본을 요달함(達本)”에 있다는 것이다. 중생과 제불은 본래 같은 근원이고 같은 본체를 지녀 차별이 없어도, 중생과 제불이 따로 있는 까닭은 “정(情)이 생겨 지혜와 멀어지고 생각이 변하여 체가 달라진 것”으로 설정했다.

거사의 입장에 대해 팽제청의 <거사전>에는 “<신화엄경론>의 대요(大要)는 중생의 성품[性]이 바로 제불의 성품임을 밝혔다. 어리석으면(迷) 중생이요, 깨달으면(悟) 부처다. 다만 능히 믿음(信)으로 들어가 발심한다면 문수보살의 이치(理)와 보현보살의 행(行)이 한 순간 전체적으로 증득함(頓印)”이라 평가했다. 이것은 <육조단경>의 “한 생각(一念)이 어리석으면 중생이요, 한 생각에 깨달으면 부처”라는 구절을 연상시킨다. ‘돈오(頓悟)’를 강조하는 것까지 완전히 일치한다. 거사의 화엄론은 직접적으로 선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수선(修禪)과 관련된 거사들의 계보를 확정한 <거사분등록>에 이통현 거사 전기가 실려 있음으로 반증된다.

거사의 화엄론은 한국 불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려 선종의 중흥조인 보조국사 지눌(知訥) 선사 선사상에 영향을 미쳐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제창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했다.

이통현 거사의 <신화엄경론>은 단순히 불교적인 요소만이 존재하지 않았다. 어려서 달통했던 <주역>에 기인한 전통적인 음양설(陰陽說) 등 다양한 중국적 요소들이 내포됐다. 이러한 중국전통적 요소들이 오히려 거사의 화엄론이 각광을 받게 한 중요한 작용을 했으며, 중국불교를 참다운 중국불교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중국 기라성 같은 거사들에 있어서 이통현 거사는 단연 특별한 업적을 지닌 거사로 손꼽힌다. 위진 · 남북조와 수대(隋代)를 통해 나타난 거사들은 주로 호법(護法)과 교의의 선양에 힘을 기울인 인물로 평가된다.

당대에 들어 드디어 거사로서 새로운 교의를 제시하는 종장(宗匠)이 출현한 것이다. 이는 물론 전체적인 중국불교의 축적된 역량으로부터 발현됐지만, 거사불교에 있어 하나의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 영 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 무 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 영 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 사 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 사 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 사 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 무 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 사 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 영 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 사 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 융 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 무 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 사 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 사 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 영 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 지 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 무 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 무 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 무 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 영 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 영 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 육 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 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 사 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 사 원	대 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학	회 사 원	인 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학	농 업	경 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자 영 업	대 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 졸	학원강사	충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 사 원	전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졸	교 육 직	서 울
장천석	1967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 졸	공 무 원	충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졸	회 사 원	충 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회 사 원	경 기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 사 원	대 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 사 원	서 울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buddhanews.com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차원과 삶과 모습이 주어집니다

☞25면에서 계속

치기 위해서 '손 좀 잡아 다오' 하는 겁니다. 둘 아닌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도저히 무(無)의 세계의 법도를 모르고, 무의 세계의 공법을 모르고, 무의 세계의 가고 옴이 없는 도리를 모른단 얘깁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벌써 싹이 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싹이 트여서 그 싹은,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그 나무까지 목신하고 둘 아니게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은 다 합일이 됐다는 얘기죠. 조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의 도리로, 이것을 손 없는 도리로, 손이 있든 없든 그대로 둘 아니게 건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배우는 도리입니다. 그게 두 번째 보림할 수 있는 도리를 배우고 가는, 즉 말하자면 무의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너 귀신 방귀씨 얻었느냐? 얻었다면 내놔 봐라." 이렇게 말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살아 있을 때, 생전에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바쁩니다, 지금. '지금 살아 있을 때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닙니다. 이어 갑니다. 그래 자꾸 그것을, 은산철벽을 정으로 쪼는 것처럼 자문자답하면서 자꾸 놔야 하겠죠. 그리고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잖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라도 15분이고 20분이고 그렇게 앉아서 단련을 하게끔 하는 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울지 않는 어린애 젖 주는 법 없죠. 여러 애들 중에도 그냥 막 악을 쓰고 우는 어린애를 얼른 안아서 젖을 주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은 걱정하고 이러는데, 뱃속에 어린애가 들었을 때에 태가 있고 젖줄이 있습니다. 그 애는 자랄 때 젖줄을 잡고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 주장자가 바로 젖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젖줄을 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도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이 없이 그냥 공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수할 때, 마음이 가니까 손도 그냥 불쑥 가더라, 이러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손이 심부름하듯이, 몸은 물질세계에서는 표현하는 것이죠. 표현을 할 때 쓰는 도구예요, 이 몸뚱이가. 진짜 마음은 좋고 나쁜 걸 가려서 딱 악수를 하는데, 그 좋고 나쁜 거를 먼저 가려 놓으면 그 다음에 손이 가죠. 그러나 죽기보다도 싫은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우린 일상생활에서, 내 몸속에서, 내 몸으로 움죽거리는 데서 모두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는 상대를 모르는데 상대를 모르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육안으로 살던 사람들은 심안이 밝아져야 하고, 심안이 밝아서 사는 사람들은 법안을 알아야 하고, 법안을 알아서 사는 사람들은 또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하고, 그 뒤에는 부처님과 더불어 같이 불안으로서의 눈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올라가서 꼭대기에 가서 보면은 심안이다 불안이다 육안이다, 이런 게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유권으로서 자유스럽게, 육안으로 보려면 보고, 심안으로 보려면 보고 뭐, 맘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때에 따라선 질문을 할 때에, 즉 정신세계의 무의 법이 닥쳤을 때, 이 심안의 스승이 자기를 인도할 때…, 왜냐하면 '부(父)와 자(子)가 상봉을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즉 말하자면 부는 자기 조상입니다, 즉 자기입니다. 자기와 지금 현재의 자기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했다 할 때, 그것이 상봉을 해 가지고 고정되게 만나고만 있으면 공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에 생각을 하면 아비가, 즉 주인공이 내 지금 마음으로 그냥 하나가 돼 줘요. 그리고 마음이 가만 있으면 이 자(子)가 그냥 거기에 한 합쳐져 버리고요. 아버지로 하나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부르는 건 이름입니다. 가만 있으면 그냥 아비 부처가 돼 버리고, 생각을 했다 하면 그 아비가 자식한테로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 하면 자식으로 돼 가지고…, 그러면 또 보현보살이 되죠. 그게 이름이죠. '아, 내가 뭘 해야겠다, 이걸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일어나게 되면 보현이 돼 줘요. 그냥 일시적으로 보현이 돼 준단 말입니다. 부처다 법신이다 보현이다 따로 없이 그냥 부처, 문수가 보현이 돼 줘요, 그냥. 하나가 돼 버려요. 하나가 되면 그대로 움죽거리게 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에, 즉 '움죽거리지 않고 움죽거리는 것과 움죽거리면서 움죽거리는 것과 이게 둘이 아니다' 하는 소리는, 악수하는 걸 봐도 이게 동시에 떨어지는 거지, 마음이 가면 손도 그냥 동시에 가는 거니까 이게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無)의 법이 따로 있고 유(有)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있다는 것을 여여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가 모든 거를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만법을 자유스럽게 들이고 내는 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들이고 내는 자유로운, 그 자재로운 생각이 그대로 법인 줄 알아야 한다. '법이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법으로 판단이 나지만, '공법이다' 이런다면 판단이 나면서도 공해서 지혜롭게 돌아가죠. 너도 나도 다 편리하게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모두 이렇게 발현이 돼서 내가 그 소리를 듣게끔 되고, 바깥에서 하는 소리를 듣게끔 되고, '손을 잡아 다오' 하는 소리를 듣게끔 되고, 내가 손을 잡아 줄 수 있고 이런다면 손을 잡는 순간에 둘이 아니게 되고, 나를 거쳐서 내 그릇에 들어갔다가 금방 거쳐서 그냥 화현이 되고….

천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난리가 나고 그랬을 때, 만약에 길을 가다 오다 천도재를 지내 달라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지내 줘야 옳겠습니까? 뭘 차려 놓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 도리를 알면은 그 자리에서 바닷물이라도 만들 수 있고, 또, 배가 고파하면 전부 배부르게 먹인다 이겁니다, 법공양으로. 그래서 천도를, '나'를 거쳐서 하게 되면 그냥 이런 잔소리가 필요없는 거죠.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스쳐 가기만 해도 그건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도재가 따로 없죠. 그래서 물건을 쭉 차려 놓고 천도를 하면 점점 덧대기가 붙어서, 그 습이 그냥 떨어지질 않아서 조상들을 영 천도를 할 수가 없어요. 불종자로 만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두 불종자는 불종자인데 불성의 자리에서 싹이 나게 할 수 없단 얘기죠.

찾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어라!
진짜 믿는다면 한군데서 그 선장이 중생들을 이끌고 다 조복을 받는다

질문자2(남) 심인회 총무입니다. 이 자리에 앉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생활 속의 불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스님이 이미 좀 얘길 하셨는데요, 그래도 또 하겠습니다.

생활과 불법이 따로 있지 않고 또 마음공부와 생활이 따로 있지 않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가정일이나 일상적인 일은 마음공부 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먹고 자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와서 직업이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 경제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가 있습니다. 첫번째, 경제의 논리는 조금 노력하고 많이 받아 가는 것이고요, 두번째, 경쟁의 논리는 남을 내가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잘해야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잘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하는 일도 잘한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와 네가 없고 너와 내가 없는 그 본래의 마음자리에다, 자신의 집착과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놓는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같은 직종에 있는 다른 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선원에 다니면서 직업에 대해서 좀 나태해졌다' 또는 '자기 하는 일에 열심이 아니다' 이런 결과가 간혹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스님 그건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죠. 그게 바깥으로 보입니까, 나태한 게? 하하하….

질문자2(남) 그게 아니고요, 모든 직장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등 이등 삼등,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일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반드시 기존에 일등 하는 사람을 누르고 자기가 일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치하고….

스님 그래요. 그런데요, 일등을 하든 일등을 못하든 그 소관이 주인한테 있어요.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가니까 손이 갔지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손이 갈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댁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악수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사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되 함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즉 말하자면 마음이 한 일이지 그 펜대를 쥔 손이 한 게 아니란 얘기죠.

질문자2(남) 그러면요, 차후에 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선원 식구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위대한 어떤 인물도 나올 수 있어서, 물론 저는 우리 선원이 안양에 있고 우리 지원들이 좀 허름한 데 있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원이 때에 따라서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또 나라의 대통령도 공부도 같이 시키고, 이럴 수 있는 날이 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허허허…,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 근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학으로, 경을 배우는 학승들이나 그 제자들은 많지만 선 제자들은 드뭅니다. 선방에 가서도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고 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뭣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딴 화두를 잡고 간화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선이다' 하는 것도 이름일 뿐이니, '자기 자신을 알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自神)을! '자신을 믿어라' 이런 겁니다. 없어서 '찾으라'는 게 아니라 '믿어라' 이런 겁니다, 본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체가 없습니다. 공정하게 합니다. 남을 해롭지 않게 공정하게, 자기도 밥줄 떨어지지 않게 공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주인한테다 맡겨 놔라 이겁니다. 공정하게 할 것을 믿고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하나로 인해서 그 회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요량 있게 잘하면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적자만 나던 회사가 그 사람 하나가 거기 들어가고 나서 흑자가 돼 버리니까 또 적자 나는 회사로 보내고, 또 거기서 흑자가 나니까 또 적자 나는 다른 회사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물단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공법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지혜롭게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 공부를 그냥 열심히, 젖줄을 믿고 그것만 쥐고 '너만이 먹여 살릴 수가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하고 거기다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다 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악수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손 하나가 마음에 따라서 움죽거린다는 거를 알게 되면 보는 거, 듣는 거, 몸 움죽거리는 거 다 마음에 따라서 움죽거리는 것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되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로는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실천을 보여 줄 수가 없어서 속은 다 빼놓고 이렇게 겉더껑이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돼 있는 거니까 난 지금 겉더껑이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손짓 발짓 해 가면서. 허허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산산조각 내서 따지지 말고, 1, 2등을 따지지 말고 그냥, '1, 2등을 하는 것도, 모두 포함해서 살리는 것도, 나의 밥줄을 떨어뜨리는 것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도 너한테 달려 있어. 이게 흑자가 나야 살 테니까….' 하고선 그냥 몰입을 해 들어가면 그건 누구든지, 생활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뭐 틀고 앉아서 누가 하라나요? 일할 때나, 변소에 갈 때나, 또는 길을 걸을 때나,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그대로 하기 때문에 와선이다, 입선이다, 행선이다, 또는 좌선이다 하는 게 따로 없다는 얘기죠. 그게 전부 참선이 되는 거니까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8년 8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상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미국현지영어연수안내

미국 현지에서 영어연수를 희망하시는 불제자께서는 미국 전문 영어연수 학원인 "Spider smart"(미국전역 9개학원개설)의 Sugar Land, Texas 소재 "Learning Center" 학원장으로 있는 불자 김영주(미국 MIT,MBA석사)에게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현지 영어연수에 유익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락 처
◆ TEL : 1-281-491-8896, 1-281-253-2798
H.P : 1-832-264-1045
E-mail : Spidersmartyk@yahoo.com

참고사항
위 학원에서 배포한 Teaching Success Cat, Spidersmart year round program, How to teach at Spidersmart, 등 자료를 원하시는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019-367-4307, 019-322-4308

중앙불교대학원
학인(승려 · 행자) 모집
▪ 모집학과 : 사미과 6개월 과정
▪ 원수접수 : 2008년 8월 29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9월 1일(월요일)
▪ 자격요건 :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초본, 사진, 자기소개서
▪ 특 전 :
◇ 1차 3개월간 숙식하며 습의 등 기본교육 실시
◇ 2차 3개월간 통신강의와 월 1회 특강실시 단, 본인의 사정 때문에 통신강좌만 이수하는 자를 위해 월1회 입방교육 실시
◇ 6개월 과정 이수 후 심사를 거쳐 사미(니)계 수계
◇ 사미(니)계 수계후 6개월간 통신교육 및 특강 이수하여 자격심사를 거친자 비구(니)계 수계토록하며, 사찰(포교원) 창건시 여법히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통신강좌를 이수한 재가자의 경우 포교사(법사)자격 수여
◇ 전과정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지속됨
▪ 문 의 처 : 본대학 사무국 031)676-0908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중앙불교대학원

한국불교여래종
입 종 안 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 · 문도를 환영합니다.
◆ 사찰등록 및 입종 준비서류
1.주민등록등본
2.사진(여권용)4매
3.사찰전경 및 법당내부 촬영사진 각1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


대행스님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모든 것을 벗어나야 한다!

이번부터는 질문과 토론에 역점을 두자고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가 없고 서로 이렇게 악수가 없으면, 그 둘이 아닌 도리를 영 캄캄하게, 이론으로만 듣지 자기가 실천으로 옮겨 보지 못하기 때문에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나도 질문을 할 것이지만 여러분도 질문을 하시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질문자1(남) 스님, 항상 한량없는 자비심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촌에 사는 신도입니다. 제가 한마음선원과 인연을 맺은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러서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수원지역의 여러 도반들과 법사 스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 마음공부의 도리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꼭 알고 가야 하고, 깊게 맛보고 더 나아가서는 깨닫고 가야 할 유일한 보물로 생각하고, 크든 작든 간에 생활 속에서 이 법의 도리에 따라 정진하고 노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작은 체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함께 공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합창단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하고는 싶었어도 바쁘다는 생각에 갇혀 가지고 도저히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규사업 일로 한 달에도 서너 번씩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항상 퇴근이 늦는 편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엄두를 낼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마음을 진짜로 한번 내어 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 보자.' 하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에 덥석 가입을 해 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합창 연습이 있는 날은 다른 약속이나 회사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관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출장을 가게 되더라도 그 날은 쏙 빼고 가게 되고, 또 저녁에 생기던 그 많은 약속들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묘하게도 연습에는 빠지지 않도록 주인공이 전체를 다 조절해 주는 듯 했습니다. 저를 잘 아는 도반들은 '회사에서 그렇게 나와도 안 잘립니까?' 이렇게 농담을 자주 던지곤 합니다. 지금 저는 회사에서도 안 잘리고 있고, 합창단에서도 안 잘리고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합창단에 가입을 하기 이전에도 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은 간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 지금은 꼭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진정으로 있었기에 여건은 쉽지 않았지만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한생각을 얼마만큼 간절하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이 합창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작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생각으로 헤아리기보다는 근본 자리인 참주인에게 몰락 맡겨 놓고 저는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 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속을 때가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살아 보니까 마음도 편하고 여간 든든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월급이 깎인다든지, 구조조정이다, 정리해고다 해서 다들 불안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것을 해결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주인공 너 아니냐. 네가 잘 인도해!' 하고 주인공에 굳게 맡기고 당당하게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리를 가르쳐 주신 스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넘긴 7월의 달력에 '이 생에서 한 차원을 더 올려라' 하시는 스님의 법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마음을 다잡아서 더 최선을 다해서 정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돼서 인간까지 왔으니만큼, 이 인간 중에서도 진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모든 것을 벗어나야 한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주장자의 자리를 완벽하게 해 놔야 된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보림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수억겁을 통해서 겪어온 관습이나 욕심이나 아상, 아만 이런 모든 거, 딴 사람은 죽어도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잡아먹는 거, 딴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 하고 정신을 뺏어 먹는 것, 이런 행위를 함이 없이, 둘 아니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둘 아닌 도리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이제 어지간히 좀 알았다고 할 때…, 내가 여러분한테 여직껏 질문 한 번도 해 본 예가 없죠, 네? 그게 여러분이 완숙되도록 노력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싹이 나서 너풀거려야 바람이 부는 소리도 듣고, 흙냄새도 맡고, 거름 주는 것도 알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람이 분다 하면 뿌리를 좀 널따랗게 잡는다거나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알고 이런 식물이라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만큼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둘 아닌 도리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됩니다. 나부터 알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의식과 그 모두가 내 주인공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어라, 진짜 믿는다면 한군데서 그 선장이 중생들을 이끌고 다 조복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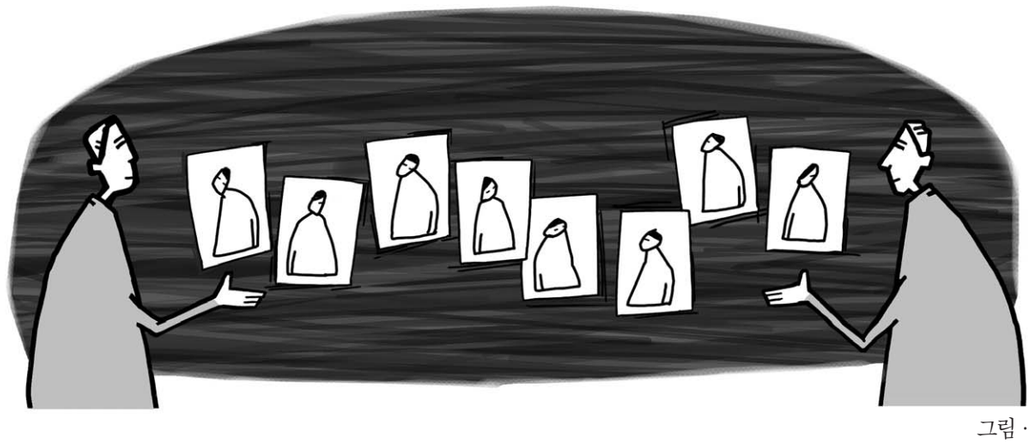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둘 아니게 조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두가 항상 그렇게 한군데서 들고 나는 거지 여러 군데서 들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아니고 내 이 한마음에서 들고 나죠.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반가워서 악수를 할 때 마음이 먼저 갑니까, 손이 먼저 갑니까? 마음이 먼저 가고 안 가고 간에 마음이 일어나니까 손이 가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운 사람이라면 반갑게 마음이 내어지고, 또 그냥 인사를 해야겠다 하더라도 인사하기 위해서 손이 갑니다. 그거 뭐 정확합니다. 또 마음이 안 가는 사람한테는 손이 안 내밀어지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모습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많이 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또는 차원이 주어집니다. 차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습과 삶도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토론하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지금 텔레비전을 많이들 보시죠. 거기에서 연기하는 것을 보면 아주 진짜처럼 하죠. 진짜로 잘하죠. 역을 맡아 가지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짜처럼 잘하는데, 우리도 진짜처럼 살고 있단 얘깁니다. 탤런트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차원에 따라서 삶도 주어졌고 모습도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살아야지 거기서 빼고 끼우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팔자 운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자유자재권을 갖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왕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계단 없는 계단을 밟아서 차원의 급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오는 갑자기 어린애를 낳아서 "으앙" 하고 우는 거를 말하는 것이고, 자라기 위해서 바깥에 나와서 세상을 살면서 배우는 것을 바로 점수라고 이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탤런트처럼 사는데, 가만히 생각들 해 보십시오. 우리가 탤런트라면 그냥 아무 역이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로 맡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진짜로 죽는 역, 또는 아주 하(下)의 사람의 역, 강도 역, 사기 역, 그런 역을 맡아서 나가라면 아마 안 나갈 겁니다, 죽는 역은 더군다나. 그렇죠? 진짜로 죽는다면요. 그런데 그 탤런트들이 진짜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역을 맡아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사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거기 놔라. 선장이 있는데 선장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 선장한테 맡기고 놔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는 것을 다 거기 놨을 때 그것이 일차적인 보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보림이 돼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륙도 같은 데 뭐, 깊은 산속 같은 데, 걸어가다가 큰 돌이 서 있으면 '아 참, 저 돌 잘생겼다' 하고 쳐다볼 수도 있죠? 또 그런 곳이 아니라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든지, 작든지 크든지 말입니다. 비실비실하고 비틀어지고 뿌리를 박지 못한 나무 한 그루도 그렇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나무들이나 돌이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잡아 달라고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이것도 공부의 단계니까. 또 없어요? 나무들이나 돌이나 어떠한 거든지 손을 잡아 달라고 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들은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엄연히 손 없는 손이 내민 겁니다. 손 없는 손이 나에게 손 없는 손으로 '잡아다오' 한 겁니다. 그러면 잡아 주는 순간 둘이 아니게 그냥 하나가 돼 버리고, 하나가 되었다가 또 둘이 되고, 이렇게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없는 손을 건져 줄 때는 없는 손에다 넣으면 손이 둘이 아니게 되고 형체가 없으니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둘 아닌 공부의 실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를,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시키고 형성시킨 자기 자신과 통했단 얘깁니다. 통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 나무로 통해 가지고, 돌로 통하든지 해 가지고 자기를 가르

☞26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교범패작법전수원 2008학년도 후기
수강생 모집
귀의삼보 하옵고, 사중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오며 아래와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새벽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천도재, 49재, 사물(태징, 북, 목탁, 요령)다루는법 등을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불교의식을 모르시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기초재의식반
▷ 수 업 일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3시
▷ 수업내용 :
기초반 – 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청, 아침송주 등
재의식반 –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구명시식
작법 – 바라춤:요잡바라,화의재바라,관욕바라,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 나비춤:사방요신,도량게,다게,옴남,운심게
▷ 수업기간 : 1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목탁, 요령, 바라
▷ 개 강 일 : 8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재의식전문반
▷ 수업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 수업내용 :
범패 – 겉채비, 안채비, 짓소리(소리와 태징치는법 위주로 강의)
작법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명바라,관욕게바라,화의재바라,
법고무,도량게,다게,운심게,옴남,모란찬,기경이,구원겁중,
오공양,육법공양,향화게
▷ 수업기간 : 6개월(기초의식을 필한자)
▷ 준비물 : 필기도구, 녹음기, 태징, 바라
▷ 개강일 : 8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 문의전화 : 033)731-7759 / 011-269-4168
송원사 불교범패작법전수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50-1(문막 I.C~문막방향 3분거리)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입 종 안 내
대한불교해동조계종
종 정 청암 / 부 종 정 화주
총무원장 지공 / 원로의장 청해
감사원장 만봉 / 종회의장 보광
교육원장 지원 / 종회부의장 관불
사정원장 일현 / 종회의원 진광
호법원장 거송 / 포교원장 원각
문화원장 덕호 / 복지원장 법성
총무부장 석문 / 재무부장 지호
감찰부장 지인 / 홍보부장 도일심
문화부장 용기 / 의전부장 혜오
섭외부장 성화
● 각 지역구 종무원장을 모집합니다
● 스님 입종을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실 행자님을 모집합니다
대한불교해동조계종 총무원장 지공
◇총무원 : 울산 북구 정자동 175-1번지
전화 052)293-7328 핸드폰 011-556-5507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베이징 올림픽과 문화 경쟁력

중국에서 부는 한류상품이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상품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우리 민족의 심성과 가치관 그리고 문화를 이끌어내는 정책까지도 포함된 사회의 성숙함도 함께 평가되기 때문이다.

오랜 전통의 유교적 예의를 갖춘 국가에서 세계경제대국의 반열에 있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넘어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잠재력을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매력적인 국가의 문화는 독창적이면서도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텔레비전 드라마로 인한 일시적인 반향을 그저 요란스럽게 포장을 하고 있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업화로 이끌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외 유명기업에서도 소프트산업 내지 전통산업의 소프트화에 주목하는 이유를 알아야한다. 감성과 창조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소프트만이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北京)올림픽을 기회로 중국문화산업을 세계로 전파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제조업 일변도의 산업에서 점차 영상과 공연예술 등 다양한 문화 분야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문화산업의 기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올림픽은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문화의 측면에서 그렇다. 세계는 이미 자국의 문화를 산업의 키워드로 삼고 있다. 그 위용의 하나가 주경기장인 국가체육장, 즉 새의 둥지를 연상하는 냐오차오 그리고 톈안먼(天安門)광장의 서쪽, 인민대회당 북쪽 옆에 우뚝 선 마치 거대한 우주선이 내려앉은 모습의 국립극장 성격인 '국가대극원(國家大劇院)'이다.

이 극장은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대국에서 문화대국으로 우뚝 서려는 중국이 세계에 자랑하려고 내놓은 건축물이다. 유리와 티타늄으로 장식된 외관은 6250가지 서로 다른 2만2000장의 패널로 일일이 손으로 붙여졌다고 한다. 주설계자는 파리 드골공항과 상하이 푸둥(浦東)공항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프랑스인 폴 앙드레이다.

또한 중국판 '피사의 사탑'으로 불리는 중국국영방송(CC-TV)의 신축건물은 네덜란드 출신의 건축가 렘 쿨하스의 작품으로 영국의 '더 타임스'가 뽑은 세계10대 건축기적으로 꼽힐 정도로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뿐만 아니다. 중국의 전통을 재건하려는 노력 또한 눈길을 끈다. 570년의 역사를 지닌 '첸먼다제(前門大街)'는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복원한 명나라 때부터 유명한 상업거리이다. 베이징의 유명한 오리구이집 '취안쉬더(全聚德)' 등 100년이 넘는 유명상점의 라오쯔하오(老字號)들이 옛 모습 그대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도시설계사인 루이스 멈포드는 '도시는 문화의 그릇'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문화기호는 이처럼 무서울 정도로 세계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대극원은 분명 오늘날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문화와 경제력을 갖춘 웅비의 상징으로 섰다.

이들의 놀라운 발상과 현실에서의 도전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탁월한 상상력과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의 결과물이다.

상상력은 한마디로 말해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능력이다. 상상력이 빈곤한 사람에게서는 세계를 재구성할 수 없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예술, 즉 공연예술과 사람을 느낄 수 있는 정치 그리고 경제가 상상력과 맞물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상상력이 없으면 모든 게 피폐해진다.

우리가 막 오른 베이징 올림픽에서 수동적으로 몇몇 공연예술단체가 참여하여 공연한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남부터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77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행복은 바로 내 안에

법사님, 사람들은 흔히 화가 바뀌어 복이 되었다는 '전화위복'의 고사를 자주들 인용합니다만 저만큼 이 말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는지요. 저는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하루하루 제 안의 저를 볼 수 있음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제 안에 행복이 넘쳐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의 구름에 가려 그 행복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사님, 약속드릴게요. 이 못나고 부족한 수인의 이 마음 다 바쳐 맹세할게요. 실수는 단 한번으로 족하리라고. 사회에 복귀하여서도 건전한 직장에서 자리 잡아 안정된 모습으로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바뀌면 주변이 바뀜을 압니다. 제가 밝아지면 주변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짐을 압니다.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고 마음을 낮추어 진정으로 낮은 곳으로 임한다면 그것이 바로 밝음이겠지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면 그 곳에서 행복의 씨앗이 자라남을 믿습니다. 지혜의 마음이 자라남을 믿습니다. 무엇이 밝음이고 무엇이 어두움임을 알기에 저의 앞길엔 이젠 두 번 다시 어두움은 없을 것입니다. 지혜를 추앙하고 밝음을 좇아 행하는 저의 마음이 본래 자리요 주인자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되고 싶어요

법사님, 저는 제 나름대로 이곳에서 앞으로 제가 가야할 길을 조금씩 정립해 나가고 있는데 저의 자그마한 소망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검정고시 대입자격에 합격하여 못다 이룬 학업의 꿈을 이루고 싶고요.

법사님, 저도 출소 후엔 아내와 함께 세상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가장 간절한 소망과 뜻은 이곳에서 이발사,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여 출소 후에 양로원이나 보육원 등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비록 물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그 분들의 머리를 잘라주면서 그 다듬고 자르는 시간 동안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아름답고 재미있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랍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몇 번은 시간 내어 버려지고 소외되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분들께 저도 법사님처럼 그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의 이러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서원을 세워 발원을 하면서 언젠가 모두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밝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 지혜의 마음을 밝히고자 하는 이 마음에 퇴굴심만 일지 않고 용맹 정진해 나간다면 기어이 소망은 현실이 될 수 있겠지요.

법사님께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 맞으시죠? 예? 맞다구요? 그래요, 법사님께선 항상 우리 같은 이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시고 축원해 주시니까 얼굴 가득 행복이 충만한 기운이 넘쳐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인가 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또다시 감사해하고 기뻐한 그 마음들이 시방 우주법계에 울려 퍼져 되돌려지니 이것을 두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이요 나와 남이 모두 하나 되어 부처를 이룬다는 자타일시성불도가 되겠지요.

살아있는 선

오늘 법회에서 법사님께서 '선(禪)'의 즐거움을 일깨워주시고 그것을 계속 실천해 나가라고 당부한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선의 기쁨과 환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되길 진심으로 발원하여 봅니다.

저도 불교공부하며 그동안 묵조선, 간화선 수많은 선의 형태를 행해보았어요. 그러나 이제야 이 모든 게 올바른 선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앉아서만 하는 선은 활구가 아닌 사구였기 때문입니다. 법사님과 같이 행으로 실천으로 옮겨질 때에야말로 참된 선이 되고 살아있는 선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소견 공부 힘써 더하여 생각 없이 생각하고 행함이 없이 행하며 말함이 없이 말하고 닦음이 없이 닦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옵소서!

참회 불자 00- 두 손 모읍니다.

내면의 부처님 마음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행하고자 발심한 법우님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아시는지요. 정진하여 꼭 서원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남북불교가 손잡은 이유

남과 북의 불심이 '해외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와 '일본의 독도강탈 책동 규탄'에 손을 잡았다. 갈수록 경색일로를 달리고 있는 남북관계와 대조적이다. 특히 남과 북의 불교대표가 이 두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한 날이 북경올림픽이 열리는 8월 8일이었다는 것도 흥미롭다. 그날 올림픽 개회식에 남과 북은 공동입장을 하지 못한 채 따로 입장했다. 종교적 입장에서의 대화와 합의는 정치 안보적 입장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남과 북의 불교대표들은 해외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 가운데 일본의 조선의궤와 미국의 '라마탑형사리구' 환수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한다. 또 독도문제와 관련 강도 높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최근 남과 북의 불교교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남겼다. 지금도 인도적 지원의 차원에서 다양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조계종의 금강산 신계사 복원과 금강산관광 사업 전개,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 복원과 문화교류 등은 남과 북이 불심을 뿌리로 만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불교계의 인도적 문화적 교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한 하늘 아래 사는 한 핏줄임을 부정하지 않는 한 양쪽 모두에 뿌리 깊게 전해 온 불교의 문화와 정신도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불교계는 대북교류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각적인 활동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자들 시청 앞에 모이는 까닭은?

8월 27일 현 정부 들어 그침이 없는 종교편향 사례에 분노한 불자들이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모인다. 시청 앞 광장,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이 한민족의 저력을 과시했던 곳이고 올해 들어서는 정부의 대책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성난 민심이 촛불을 밝혔던 곳이다. 그러니까 서울 시청 앞 광장은 우리시대의 '뜻'이 모아지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곳이다.

그런 곳에 불자들이 모여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교계 안에서 풀어야 하고 집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아고라'로 스님과 재가자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범불교도대회'의 규모와 의미를 생각할 때 마지막 카드를 너무 일찍 꺼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카드의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현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특정종교가 공직 등의 권력을 앞세워 편향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심대한 위헌행위다. 그런데 지금은 특정종교에서 그런 위헌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물론 그 행위로 인해 불교계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27일 불자들은 이 땅에 종교의 가치가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종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서울 시청 앞에서 풀어야 할 불교인들의 화두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학 인 모 집

영남 범패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7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안 내
- 입교일시 : **2008년 8월 28일(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관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일반불공의식 및 재의식
  1.각종 불공 및 재의식 2.사물 다루는 법 3.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 한 출가 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교재비 별도)
- 수 강 일 : 매주 월,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서진주 I.C에서 5분거리)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보세요.
- 문의전화 : 055)747-8419 / 011-867-8419(원장 원명스님)

영 남 범 패 불 음 원

수월관음도

사찰법당과 스님 접견실에 걸으면 품격 가정에 걸으면 재난과 액운을 쫓고 번영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 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에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수월관음도는 불화의 대가인 법성께서 판화한 대작으로 수월관음도를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 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한 선율에 어떻게 이렇게 그릴수가 있을까하고 감탄을 한다. 수백년을 이어갈 사찰의 소장품으로 가치가 있으며 스님 개인 소장품으로 손색이 없다.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가보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거실에 걸면 집안의 분위기가 품위있게 바뀐다. 2단 돌출 최고급 표구와 100% 천연코튼판화지에 판화된 수월관음도는 수백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게 베르린왁시를 처리한 특별 제작된 불화로 이제 두 번 다시 재현할 수 없는 국보급 세기의 불화다.
일부 시중에는 본 불화를 컬러복사해 표구를 그럴듯하게하고 베르린 왁시 처리를 하지 않아 2~3년만 지나면 색상이 탈색되고 진품 인양 판매하고 있으므로 표구 뒷면에 불광사의 보증서와 소장인란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안전하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 택배로 안전하게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195,000원

※ 사찰 스님 신청시 20% 할인 특별보시.

문의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 필승합격과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 마친 비방!

필승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로도 품격! 필승 합격을 기원하는 스님 선물로 최고!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웠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아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 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 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음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도 마찬가지다.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인도양 수심 100m~150m에서 채취한 청궁석(일명 용궁석) 원석이며 받침도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리며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수험생에게 필승의 영험을!

보시가격95,000원 (사찰스님 신청시 20%할인)
전화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대입수험생, 중고등학생, 승진을 준비하는분, 로스쿨준비생, 사법고시 준비생, 행정고시준비생, 공인중개사, 세무사, 기술고시준비행, 공무원시험준비생 등 각종시험 준비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와 가피로 필승하게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비방법구다. 보궁여의주를 받으시면 수험생 책상위에 놓아주면 집중력과 마음의 안정도 찾게된다.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 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스님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 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문의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스님 신청시 20% 할인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인도산 천연 백수정 54염주

평생 인연의 귀인을 만나는 인도 전설의 염주

화제의 염주 인도에서 스님과 지도층 인사들 사용



수입 기념 특별선물
- 스님께는 천연백수정 27주 법륜염주
- 불자님께는 천연백수정 합장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54법륜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 있으면 인연의 귀인을 만나는 행운과 그 인연으로 인해 원하는 계획이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세상사는 동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연법으로 한 사람의 좋은 인연의 만남으로 평생 인생이 바뀌는 것과 계획한 것이 쉽게 성공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원대한 불사계획을 가지고 계신 스님, 원대한 불사를 시작했으나 어려우신 분, 중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 평생 인연의 짝을 찾고 계신 분, 건강이 나빠 인연의 의사를 만나고 싶은 분 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54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천연백수정 54염주 외 스님께는 천연백수정 27주 법륜염주를 일반불자께는 천연백수정 손목합장주를 수입기념 특별 선물로 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사찰스님께는 20% 할인)
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

자동차 사고예방의 영험! 생명을 보호하는 비방!



■ 아내와 자녀에게 안전의 선물
■ 스님께서 아끼는 불자에게 안전의 선물

차안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차를 종종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귀족여성들과 전장에 나가는 장수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들에게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 서 목각으로 만든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는 한명도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설화에 따르면 원효대사가 태종 무열왕의 딸 요석 공주에게 세상이 험하니 몸에 꼭 지니고 다니라고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선물한것이 인연이 되었다고도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살인, 납치, 강간, 유괴, 실종, 하루에도 수백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등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을 하는 남편에게, 스님께서는 아끼는 불자들에게 귀중한 선물이 될것이다.
1500년전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 앞면에는 미륵반가사유상을 넣고 뒷면에는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옴"자와 백연화 넣었으며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다. 청동으로 제작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여성은 지갑속에 자동차는 운전석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45,000원.

문의(02)741-4488(사찰스님 20%할인)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성 불 조 각 원 www.sungbul.co.kr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 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